

M46-6-2/2004.7
제6권 제2호/Vol. 6 No. 2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팀이 북한의 최근 농업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70 전송 02-959-6110

- 내용 문의: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지인배 jiinbae@krei.re.kr	02-3299-4324
이정연 sabrina@krei.re.kr	02-3299-4370

목 차

□ 포커스

북한의 축산과 남북 협력 방안 / 3

□ 동향분석

1. 농업정책 / 20
2. 벼농사 / 26
3. 축 산 / 40
4. 감자 농사 / 54
5. 이모작 / 61
6. 농업기반 / 73
7. 산림 / 90
8. 과수, 콩 / 99
9. 기타 보도동향 / 112

□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137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39
 2. 대북한 지원 동향 / 150
 3. 교류협력사업 동향 / 154
 4.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155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171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171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 179

□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 185

포커스

● 북한의 축산과 남북 협력 방안

북한의 축산과 남북 협력 방안

지 인 배

(전문연구원, jiinbae@krei.re.kr)

북한은 경제침체와 식량난으로 인해 축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 그 결과 1997년의 가축 사육규모는 1990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축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초지조성과 함께 초식가축사육을 중심으로 하는 축산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 결과 최근 소와 돼지의 사육두수는 그 규모가 최저수준이던 1997년의 사육두수보다 약간 증가한 57만 두와 300만 두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염소와 토끼는 2003년 현재 1996년에 비해 6.4배와 3.8배 늘어난 271만7천 두와 1,957만6천 두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육류 생산량과 육류 공급량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축산업 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북한이 단독으로 축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은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차원으로 약 6,611억원, 민간차원에서 약 4,285억원 상당의 식량과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축산업 관련 지원액은 2003년까지 총 29억7천8백만 원으로 대부분 민간단체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지원 사업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란중계장 지원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젖염소 목장 지원사업, 굿네이버스의 젖소 및 우유급식지원사업, 한국대학생선교회의 젖염소 축산지원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민간단체들의 사업이 단기적이고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다는 것, 둘째, 사업의 구체성과 지원체계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 셋째, 대북지원주체간의 협력체계가 미비하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순히 축산분야의 지원사업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대북지원사업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대북지원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어려운 북한의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북지원·협력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가축을 직접 보낼 경우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과 자재, 사료, 사육기술, 수의약재 등을 함께 지원하는 윈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둘째, 남북한 협력축산농장을 개발하는 방안, 셋째, 사료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지조성과 사료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배합사료공장의 재가동을 지원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친환경적 축산업 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다.

1. 서론

북한의 경제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의 몰락으로 정치·경제적 우방을 잃음과 동시에 핵문제 등으로 인한 대외경제압박으로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특히 1995년과 1996년에는 연속적인 홍수피해로 인하여 농업기반이 파괴되어 농업생산이 크게 떨어지고 극심한 식량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5년의 식량난 이후 국제사회의 식량과 각종 물자지원으로 2000년부터는 경제성장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다소나마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의 경제사정과 식량사정은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북한의 식량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차원으로 약 6,611억원¹, 민간차원에서 약 4,285억원 상당의 비료 및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²

이와 같은 대북지원사업은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식량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쌀과 밀가루와 같은 곡물의 지원을 통한 직접적 방법과 북한의 농업생산성 회복을 위한 비료, 각종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 등의 간접적 방법을 취하고 있다.

북한이 최악의 식량위기 상황을 벗어나면서 최근에는 주민들에게 단백질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2003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돼지고기를 수입하였으며 금년에는 콩재배를 확대하고 있다.³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개발협력의 한 분야인 북한의 축산업 부문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북한의 축산업 동향과 남북 축산물 교류·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축산업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대북지원 및 협력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북한의 축산동향

가. 북한의 축산현황

북한은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7차 회의('63.9.9)의 결정에 따라 축산물 생산

¹ 대북식량차관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²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56호.

³ 북한은 2003년 중국으로부터 6,362만 달러 가량의 냉동돼지고기 등을 수입하였음.(KOTRA, 2003년도 대외무역동향, 2004. 6)

의 전문화를 목표로 국영축산(국영농목장), 협동축산(협동농장), 농민부업축산(농가)의 3원 체제를 확립하였다. 국영축산은 총경지면적의 12%, 축산물 생산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지역별 기후조건에 적합한 축종을 선택하여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전문화 사육방식을 도입하였다. 협동축산은 협동농장의 축산작업반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별로 전문화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축종으로 축산분조를 운영하고 있다. 농민부업축산은 그 우월성이 인정되어 1961년부터 장려사육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71년부터는 협동농장, 농가, 학교 등에서 닭, 오리, 토끼, 염소, 양 등 일정수의 가축을 의무적으로 사육하도록 하고, 특히 가축사육 증대를 위해 이들 가축을 주민들이 농민시장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업축산을 장려하였다.⁴

1970년대 중반까지 3원 축산체계가 확립되면서 연도별 축산물 생산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현대적인 배합사료 시설을 설치하여 사료공급에 주력하였고, 돼지공장, 닭공장, 오리공장 등이 설립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는 기존의 축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영농목장의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정책적인 의무사육제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경제악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식량과 사료곡물의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이는 결국 농후사료를 주먹이로 하는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사육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특히 협동농장과 농민부업축산에 의한 가축사육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가축사육의 감소는 북한의 육류 공급의 주축을 이루던 국가배급망(Public Distribution System)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육류소비량이 크게 떨어졌다.

북한은 식량난과 사료부족으로 급속히 와해된 축산업을 진흥시키고자 1996년부터 초식가축 중심의 축산업 발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97년과 1998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초지조성 및 초식가축 중심의 축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한 이후 계속적으로 초식가축 위주의 축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료부족으로 농가와 협동농장의 가축사육 두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곡물사료가 거의 필요 없고 손쉽게 기를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써 염소, 토끼 등 초식가축의 사육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초지조성과 초식가축 기르기를 전당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자연초지를 중심으로 한 초지조성, 풀씨채종체계 수립, 국영농목장과 협동경영의 공동축산을 위주로 하면서도 농장원들과 노동자, 사무원들의 개인부업축산의 병행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축산동향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의 가축사육두수는 북한경제가 나빠지기 전인 1990년을 전후로 최고를 기록하

4 신승열 외, “북한의 축산물 수급현황과 대북 축산업 지원방안”, 농촌경제 제20권 제2호, 1997 여름. p.149~152

다가 “고난의 행군”시기인 1997년을 전후로 최저수준을 기록한 뒤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7년 이후의 가축사육동향은 초식가축 중심의 축산업 진흥 정책에 따라 곡물사료에 의존하는 소, 돼지 등의 사육두수는 소폭 증가 혹은 감소한 반면, 초식가축인 염소와 토끼의 사육두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인 1990년을 전후로 소 사육두수는 100만 두를 약간 상회하였으나 1997년에는 54만5천 두까지 감소하였다가 최근까지 57만 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돼지는 1990년에 580만 두였던 것이 1997년에는 185만9천 두까지 감소하였고, 2000년에 들어서면서 300만 두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1997년부터 중점적으로 사육을 확대하고 있는 염소와 토끼 사육두수는 1996년에 각각 71만2천 두, 3,005만6천 두였으나 2003년에는 각각 6.4, 3.8배로 늘어난 271만7천 두와 1,957만6천 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표 1)

<표 1> 북한의 가축 사육두수 증가 추이

(단위: 천두)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소	950	1,100	1,000	886	615	545	565	577	579	570	575	576
젖소	-	-	-	-	-	-	-	-	39	40	40	-
돼지	4,200	4,800	5,800	2,674	2,674	1,859	2,475	2,970	3,120	3,137	3,152	3,178
양	290	350	500	260	248	160	165	185	185	189	170	171
염소	490	600	650	712	712	1,077	1,508	1,900	2,276	2,566	2,693	2,717
토끼	-	-	-	-	3,056	2,740	2,795	5,202	11,475	19,455	19,482	19,576
닭	17,950	18,450	21,000	8,871	9,425	7,904	9,427	11,200	15,733	16,894	18,506	19,958
오리	2,000	2,400	3,000	1,098	1,098	822	1,372	1,624	2,078	3,158	4,189	4,613
거위	-	-	-	-	554	357	462	829	889	1,090	1,247	1,247

자료: <http://faostat.fao.org/>

이러한 북한의 가축사육두수의 급격한 변화는 육류 생산량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의 생산량은 1995년과 1996년을 기점으로 90년대 초반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닭고기와 계란의 경우 최근 그 생산량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아직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염소고기는 초식가축정책으로 인해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였다.(표 2)

북한의 1인당/년 육류 공급량 또한 1990년 15.8kg에서 1997년 5.9kg까지 떨어졌다가 2000년 이후 9kg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은 2000년 남한이 46.1kg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약 1/5 수준임을 알 수 있다.(표 3) 탈북자나 방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현실은 이보다 더욱 열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표 2> 북한의 육류 생산량

(단위: 천톤)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쇠고기	30,750	37,500	34,500	45,000	21,750	18,750	19,500	19,950	20,025	21,450	21,750	21,825
돼지고기	165,000	195,000	225,000	115,000	105,100	83,750	111,500	133,750	140,000	145,000	145,700	146,900
닭고기	32,450	37,400	47,300	22,000	22,550	17,050	20,350	23,430	26,840	30,800	33,737	36,300
젓소우유	54,000	75,000	88,000	85,000	80,000	80,000	85,000	86,000	90,000	92,000	92,000	94,000
염소고기	2,205	2,700	2,925	3,195	3,210	4,845	6,780	8,550	10,200	10,500	11,025	11,115
계란	105,000	125,000	145,000	85,000	91,000	75,000	83,000	95,000	110,000	120,000	130,000	135,000

자료: <http://faostat.fao.org/>

<표 3> 남북한의 육류 공급량(1인/1년)

(단위: kg)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북한	13.5	14.8	15.8	8.8	7.3	5.9	7.3	8.5	9.0	9.4
남한	12.7	17.9	24.9	37.5	40.1	41.3	38.4	44.9	46.1	42.3

자료: <http://faostat.fao.org/>

나. 북한의 축산전망

북한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상업적 식량수입량이 연간 약 10만 톤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식량의 상당부분을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어려운 식량수급상황은 사료곡물과 육류의 생산과 함께 수입에도 상당한 제약을 주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의 축산업은 농후사료가 아닌 조사료에 의지하는 초식가축사육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소의 경우 도축을 위한 사육보다는 축력을 이용하기 위한 사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북한은 부족한 육류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대체가축으로 염소와 토끼를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염소는 염소젖을 생산할 수 있어 우유, 요쿠르트, 치즈 등을 생산할 수 있으며, 토끼와 같이 일반 가정에서 사료 없이 손쉽게 사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축산정책은 염소와 토끼를 중심으로 하는 초식가축 위주의 정책으로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염소와 토끼의 사육두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의 경제와 농업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면 소와 돼지 같은 대가축의 수도 함께 증가할 테지만 단기적으로는 1990년 전후의 수준을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4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축산기지들과 개건현대화된 닭공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축산의 현대화는 어쩔 수 없는 대세이다. 하지만 식량과 에너지 부족으로 모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축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결국 북한의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 회생을 통해 농업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며, 식량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만 축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남북한 협력을 통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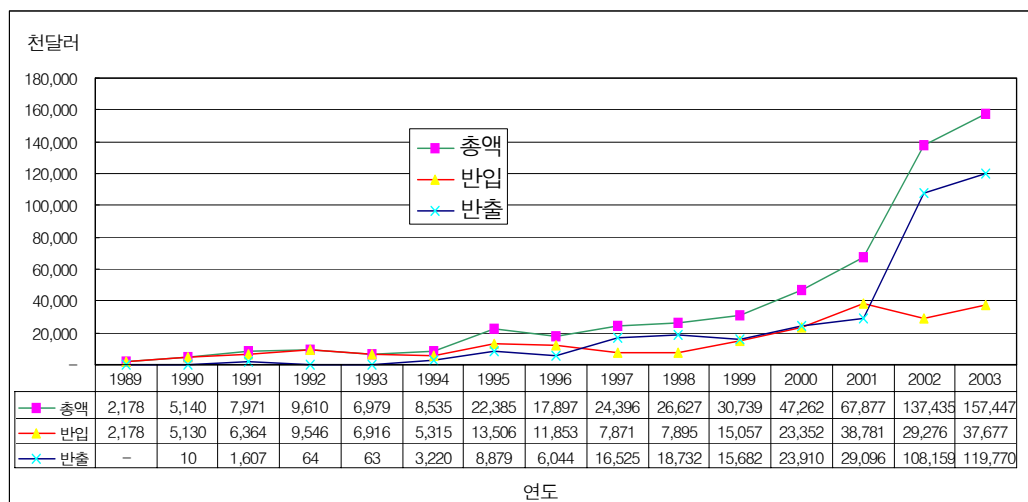
3. 남북 농산물 및 축산물 교역·지원 동향

가. 남북 농산물 교역 동향

남북물자교류는 1988년 ‘7.7선언’이후 공식적으로 개시되어, 1989년 2,000만 달러 수준 이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2003년에는 7억2,421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3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2000년에 합의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절차 등 4개 부문 합의서의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제도적 보장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남북해운 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을 추진하고, 남북간 상품 및 임가공거래를 직거래 방식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협의 통로를 개설하는 등에 합의하여 향후 남북한간 물품 거래는 보다 용이하고 다양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농산물 교역 동향



자료 :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14~150호.

그리고 최근 개성공단 개발과 금강산 관광특구 개발 등 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남한의 직접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단순 물적교류 이외에 남북한간 경제협력은 그 방법이나 형태에서 상당히 다양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그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간의 농산물 교역은 교역 초기인 1989년 217만 달러이던 것이 2001년에는 6,787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2002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1억5,744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중 농산물반입물량은 3,767만 달러이고, 농산물반출물량은 1억1,977만 달러이다. 주요 농산물반입품목은 대두, 과일, 고추, 호도, 채소, 버섯류, 한약재 등이며, 농산물반출품목은 담배, 감자, 옥수수, 비스킷, 기타 식물성물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교역 초기에는 농산물의 반출물량에 비해 반입물량이 많았으나 교역이 진행되면서 농산물반입, 반출량은 모두 서서히 증가하였다. 그러다가 2002년에 들어와서 농산물반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농산물교역부문에서는 대북 무역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간 농산물 교역 중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산물 총교역량의 약 5.6%이며, 반입물량은 2001년에 7만8천 달러, 2002년 39만5천 달러, 2003년 147만4천 달러, 반출물량은 2001년 215만7천 달러, 2002년 507만 9천 달러, 2003년 742만5천 달러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반입품목은 축산물부산물, 녹용, 로알제리이며, 반출품목은 쇠고기, 양고기, 칠면조고기, 소시지, 분유, 난류, 모류 등이다. 북한으로 반출되는 주요 품목이 주로 육류나 우유류 등인 것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이 단백질 공급원임을 알 수 있다.

나. 인도적 지원 현황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은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는 직접적으로 쌀이나 비료를 지원하거나, WFP, UNICEF, UNDP, FAO, WHO 등을 통해 옥수수, 밀가루, 쌀과 같은 곡물과 분유, 의약품, 구호세트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금액은 1995년에 2억3,200만 달러를 시작으로 2004년 5월까지 총 6억2,338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다.

민간차원에서는 주로 대한적십자창구와 독자창구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대한적십자의 지원품목은 밀가루, 분유, 의류, 연탄, 의약품, 의료품 등이며, 독자창구로는 월드비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국제옥수수재단 등 약 20여개의 단체가 활동 중이며, 이들의 지원품목은 쌀, 밀가루, 의류, 분유, 의약품, 의료품, 설탕, 건축자재, 농기계, 각종 농자재, 감귤 등이다. 대한적십자창구와 독자창구를 합한 민간차원의 지원금액은 2004년 5월까지 총 3억5,346만 달러이다.

민간차원의 독자창구의 각 민간단체에서는 주로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

여 오다가 2000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Matching Fund방식으로 보건의료, 농업개발, 취약계층 지원 등을 중심으로 대북지원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들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지원분야는 농업기반 복구, 농업생산성 향상, 농산물 증식 및 생산사업 등이며, 보건의료분야는 전염병 퇴치, 기초의약품 지원, 의료체계 복구 사업에, 취약계층분야는 유아, 어린이, 노약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며, 기타사업으로 산림복구 등 환경개선사업과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 사업 등이 있다. 대북지원규모는 2000년에 7개 단체에 33.8억원, 2001년에 13개 단체에 38.4억원, 2002년에 54.5억원, 2003년에 19개 단체에 75.3억원 등 총 202억원을 지원하였다.

다. 축산관련 민간지원 현황

민간단체의 독자창구 대북지원사업 중 축산과 관련된 사업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란종계장 지원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젓염소 목장 지원사업, 굿네이버스의 젓소 및 우유급식지원사업, 한국대학생선교회의 젓염소 축산지원사업 등이 있다.

<표 4> 축산업 관련 대북 민간차원 지원

(단위 : 백만원)

단체명	사업내용	연도별 승인액				
		2000	2001	2002	2003	합계
새마을운동중앙회	산란종계장	-	393	300	110	80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젓염소 목장 지원	444	251	-	-	695
굿네이버스	젓소 및 우유급식	354	237	239	410	1,240
한국대학생선교회	젓염소 축산지원	-	-	-	240	240
합계		798	881	539	760	2,978

자료 :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14~150호.

새마을운동중앙회는 1998년 이후 손수레, 경운기,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산란종계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3년에는 손수레 1,000대와 사료 등 1억9천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0년부터 젓염소 목장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시에 농자재 및 농기계수리공장 지원을 지속하여 콤팩트, 경운기, 이앙기 등 국산농기계를 지원하였고, 2001년부터는 황해남도 신천과 황해북도 사리원에 농기계수리공장을 건설하여 2003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시범농장을 대상으로 온실자재, 비료, 농약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1995년 이후 젓소·닭목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육아원 시설개선과 영양식 지원사업, 병원의료기자재 지원사업, 제약시설 개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8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젓소·닭목장 운영지원사업에서는 젓소 120두, 우유·요그르트 등을 생산하고 운반할 수 있는 설비와 삼석닭목장 신축계사의 설비를 지원하였으며, 사료 500톤과 수의약품, 양계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는 2001년 황해북도 봉산군 은정리에 젓염소목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착유가공설비와 축사자재, 농기계 등 4억4천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다. 은정리 젓염소목장 운영지원사업으로는 젓염소 250두, 사료, 가축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하수 관정, 유제품 포장기, 착유기, 사료, 가축약품 등 운영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목초종자와 비료, 농기자재 등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4. 남북 축산 협력방안

가. 대북 축산지원의 문제점

북한의 축산업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적으로 식량난에서 비롯되는 사료의 부족이다. 사료와 에너지의 부족으로 인해 기존에 건설된 배합사료공장들의 가동률도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때문에 북한의 축산정책은 그나마 풍부한 조사료를 활용할 수 있는 초식가축위주의 정책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농후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남한의 사정과 비교하였을 때 북한의 축산정책이 쉽게 소와 돼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 결국 북한의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소와 돼지를 중심으로 하는 축산정책은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들의 문제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차원이나 대한적십자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축산관련 대북지원은 따로 구분되어 추진되는 것이 없다. 따라서 축산과 관련된 민간단체들의 사업추진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단체들의 사업이 단기적이고 일회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사업 목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북한의 농업문제해결이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축산업 복구와 생산성 향상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입국거부나 사업지연 등이다. 이로 인해 지원물자의 공급이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국 사업의 지속성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지원이 급격히 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대북사업이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고 추진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그 실효성과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사업의 구체성과 지원체계의 준비부족이다. 대북지원시 핵심적인 지원물품에 이은 부수적인 물품의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쪼트나 돼지를 지원해 주었을 경우 지원된 가축들의 사육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료, 사육기술, 사육시설과 같은 축산기자재의 부족으로 결국 가축사육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핵심적인 대상물만을 지원하였을 경우 부대시설이나 기자재가 부족하여 결국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어려움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있어 대북창구인 사업대상자와 대상지역의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 대상지역 정도만 결정되면 그 지역의 축산현황이나 사업추진 능력, 축산물 수요 등에 대한 사전적 조사나 연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즉, 사업추진에 있어 지원지역, 지원대상, 지원품목과 범위, 전달경로, 분배의 확인,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과 모니터링, 평가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부족하다.

셋째, 대북지원주체간의 협력체계가 미비하다. 정부의 대북지원과 협력에 대한 전략이 민간에 잘 전달되지 못하여 정부지원하의 민간 추진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민간 간에는 대북지원·협력의 노하우나 지원정보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여 사업자들이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민간차원의 사업들은 소규모로 각각의 민간단체 중심으로 구상되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요령 등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고 있어 기존 사업자들의 노하우나 대북정보를 공유할 경우 그 사업의 효과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장이 부족하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단순히 축산분야의 지원사업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대북 민간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지원사업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대북지원의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 대북 축산지원 및 협력 방안

대북 인도적 지원과 협력은 개념상 약간의 차이를 가진다. 인도적 지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대에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물자가 공급되는 것을 말하지만, 협력은 상호적인 관계에서의 물자, 기술, 자본 등의 공급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현 북한의 경우는 주로 인도적 지원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거나 조건이 갖추어진 후에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시급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정책에, 중·장기적으로는 피폐해진 북한의 축산기반복구를 위한 대북축산협력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틀에서 북한의 축산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적 지원차원에서 지원농장에 가축을 직접 보낼 경우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과 자재, 사료, 사육기술, 수의약재 등을 함께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축산업에 필요한 가축, 사료, 시설, 자재를 모두 보내줌으로써 실질적인 축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결국 북한 주민들이 선진적인 축산업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향후 북한에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지원과 함께 보내진 가축과 시설, 기술 등이 얼마나 잘 사육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기술지도와 모니터링 작업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측의 사업자를 비롯한 축산기술자들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방문은 남과 북의 주민들이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중·장기적 협력방안으로 남북한 협력축산농장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단체들의 진행 중인 대북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남북협력 시범농장을 지정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산협력농장을 개발·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 협력시범농장의 범위와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그 배후지의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남북협력 시범농장을 지정하여 우선 선별적으로 남측이 지원하는 현대적 축산시설을 건설하고 축산기술을 전파해 줌으로써 북한의 축산업 발전의 발판을 삼는 것이다.

셋째, 사료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지조성과 사료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배합사료공장의 재가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 초지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초지조성사업이 보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료작물 종자와 관리기술과 함께 관리기계 등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과도하게 개발되어 토양유실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산간지나 다락밭, 유희지를 초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설이 낙후되거나 가동되지 않는 배합사료공장의 개보수를 지원하여 배합사료의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 축산업 개발을 위한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하였으며, 지금도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처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축산업 개발 초기단계부터 비축산분야와 유기·생태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눌 필요가 있다.

5. 요약 및 결론

북한의 농업정책의 핵심은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이모작혁명, 초식가축 사육증대,

토지정리사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농업정책은 과거 농지확장정책에서 생산성향상정책으로 전환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당분간 계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북한이 식량문제를 안전하고 완전하게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대부분의 체제전환국이 그랬던 것처럼 외교적·정치적 안정이 필수적이며,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경제발전을 토대로 공산품 수출을 늘리고 부족한 식량을 수입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정권붕괴에 대한 우려로 대외 개방을 꺼려하는 북한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체제가 현재와 같이 외부세계와의 교류를 억제하는 한 식량자급을 위한 정책들은 북한 자체 내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축산업의 경우 현재로서는 외부로부터의 축산물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생산성 제고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은 식량난과 사료부족으로 급속히 와해된 축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초지조성과 초식가축 중심의 축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외부의 지원없이 북한이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차원에서 남북한 교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인도적 지원 중 축산관련 지원사업으로는 민간단체의 독자창구 대북지원사업 중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란종계장 지원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젓염소 목장 지원사업, 굿네이버스의 젓소 및 우유급식지원사업, 한국대학생 선교회의 젓염소 축산지원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지원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몇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민간단체들의 사업이 단기적이고 일회적이다. 둘째, 사업의 구체성과 지원체계의 준비가 부족하다. 셋째, 대북지원주체간의 협력체계가 미비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순히 축산분야의 지원사업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대북지원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북지원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어려운 북한의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북지원·협력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축을 직접 보낼 경우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과 자재, 사료, 사육기술, 수의약재 등을 함께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한 협력축산농장을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 사료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지조성과 사료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배합사료공장의 재가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 축산업 개발을 위한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태진, “북한 농업의 발전 방안”, 『북한의 농업·농촌 진흥 방안』 세미나 자료, 북한농업연구회, 2004. 6.
- 권태진 외, 『북한의 농기자재 수급 현황과 남북한 협력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 김영훈 외,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 김운근 외, 『북한의 농업개발 전략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 신승열 외, “북한의 축산물 수급현황과 대북 축산업 지원방안”, 『농촌경제』 제20권 제2호, 1997.
- 이종무 “민관협력을 통한 대북 농업지원사업 현황과 확대방안”, 『화해 협력시대의 농업 부문 남북한 협력방향』 세미나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조동호 외, 『남북경협 추진전략 및 부문별 주요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1.
- 최윤재 외, “북한 축산의 진흥방안”, 『북한의 농업·농촌 진흥 방안』 세미나 자료, 북한농업연구회, 2004. 6.
-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14~150호, 1989-2004.
<http://www.unikorea.go.kr/통일통계>
[http://faostat.fao.org/\(FAO 농업통계자료\)](http://faostat.fao.org/(FAO 농업통계자료))

동향 분석

1. 농업정책
2. 벼농사
3. 축산
4. 감자 농사
5. 이모작
6. 농업기반
7. 산림
8. 과수, 콩
9. 기타 보도동향

* 북한의 주요 신문인 <로동신문>(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과 <민주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의 농업관련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음.

동향분석 요약

지 인 배

(전문연구원, jjinbae@krei.re.kr)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은 3월 26일자 신문에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에서 지난해 국가 예산 결산과 올해 국가예산에 대한 문일봉 재정상의 보고를 보도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국가예산수입계획을 100.9% 달성하였으며 전기석탄공업성, 임업성, 전자공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과 많은 관리국, 연합기업소들에서 국가예산수입계획을 초과 수행하였다고 보고했다. 또한 도, 시, 군에서 지방살림살이를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도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예산지출계획은 98.2%로 집행되었으며 그 가운데 인민경제사업비로 23.3%를 지출하여 전력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다져지고 경공업의 현대화가 추진되었으며, 평양시, 평안남도의 토지정리, 백마-철산물길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이 진전되어 농업혁명방침 관철에서 큰 성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올해 국가예산 수입은 지난해의 105.7%로 늘어나고 국가예산지출은 108.6%로 늘려 편성하였다. 올해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 주된 힘을 넣으며 채취공업과 기계공업, 화학공업과 건재공업, 임업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공업과 농촌경리부문에서 높은 생산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자금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농업부문의 주요 기사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봄철을 맞아 각지의 벼냉상모판씨뿌리기와 모내기 등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또한 이모작에 대해 강조하면서 알곡대알곡을 효과적으로 재배하기 위한 노동력 부족문제, 기계화, 영농기술, 새로운 품종개발, 관개 등 지역특성에 따른 각종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앞그루로 재배한 감자의 수확동향과 함께 뒷그루로 강냉이 파종에 대해 보도하고 있으며, 콩재배와 관련하여 콩의 주작과 뒷그루, 사이그루 재배방법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축산업과 관련한 보도로는 풀판조성 시기를 맞아 각 지역의 풀판조성사업 진행상황과 함께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5개의 축산전문협동농장과 여러 종합축산분장의 개건 현대화 실적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농업성 수의방역국의 봄철 황사피해를 막기 위한 수의방역 대책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국토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개수리시설과 설비를 수리정비, 현대화하며 여러 지대의 자연호름식 물길을 조성하여 관개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03년 개천-태성호물길공사 완공에 이어 현재 평안북도의 백마-철산물길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개천-태성호 물길공사는 지난해 이미 완공되었지만 군단위에서는 지류에 대한 관개공사를 아직도 진행하고 있으며 보완공사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단하였던 간척사업도 평안남도 온천군 금성간척지를 시작으로 추진하는 것도 새로운 움직임이다.

1. 농업정책

- 국가예산지출 중 인민경제사업비로 23.3%를 지출하여 전력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다져지고 경공업의 현대화가 추진되었으며 평양시, 평안남도의 토지정리, 백마-철산물길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이 진전되었다고 보고하고, 올해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05.7%로 늘어나게 되며 국가예산지출은 108.6%로 늘어 편성하여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 주된 힘을 넣으며 채취공업과 기계공업, 화학공업과 건재공업, 임업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공업과 농촌경리부문에서 높은 생산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자금을 지출하게 된다고 보도

□ 농업정책

- 김정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발표 40주년을 맞아 사상이론적 업적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8)
 - 김정일은 1964년 3월 18일에 발표한 노작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을 통해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 거점과 그 역할에 관한 우리 당 사상이론의 혁명적 본질과 지역적 거점을 설정해야할 필요성, 군의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고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 등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음.
 - 김정일의 위 노작이 발표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사상이론은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음. 오늘 우리나라에서 군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고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거점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음. 군당위원회는 사회주의농촌진지를 정치사상적, 계급적으로 확립하고 농촌의 모든 당조직들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농업생산은 지방경제의 기본을 이루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의 개선문제는 강성대국 건설에서 중요한 문제임.
 - 노작에서 제시된 사상이론과 방침을 관철하여 지방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건설한 지방산업공장들도 오늘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되며 각 군들이 자연지리적 조건과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나라의 전반적 인민경제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음.

-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농촌문제를 중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이 문제는 지역적 거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 원만히 수행될 수 있음. 사회주의건설은 당과 국가의 유일적 지도 하에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도시와 농촌에 대한 지도는 그 조건과 환경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적 거점을 설정해야 함.
 - 공장, 기업소가 일정한 지역에 집결되어 있는 반면 토지가 기본 생산수단인 농촌은 농업기업소와 농촌마을이 널리 분산되어 있으며 작업장마다 소규모 집단으로 분산되어 일을 함. 또한 농업은 자연기후조건에 따라 생산이 크게 영향을 받으며 그 영향의 정도도 각 지역의 기후풍토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남. 결론적으로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농촌 지도에서 농촌의 분산성과 자연기후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그에 맞게 지방마다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 지도의 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거점으로 사업하여야 함.
 - 지역적 거점의 문제는 모든 군에 해당되는 원칙적 문제이며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풀어야 할 중요한 전략적 문제임. 김정일은 노작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에서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 단위,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연계의 거점으로서 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이론실천적 문제를 밝혀준 것임.
-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에서 지난해 국가예산 결산과 올해 국가예산에 대한 문일봉 재정상의 보고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26, 민주조선 3. 26)
- 지난해 국가예산수입계획이 100.9%로 수행된 가운데 전기석탄공업성, 임업성, 전자공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과 많은 관리국, 연합기업소들에서 국가예산수입계획을 초과수행하였음. 또한 도, 시, 군에서 지방살림살이를 자체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 생산, 건설, 상업봉사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지방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도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았음.
 - 지난해 국가예산지출계획은 98.2%로 집행되었으며 그 가운데 인민경제사업비로 23.3%를 지출하여 전력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다져지고 경공업의 현대화가 추진되었으며 평양시, 평안남도의 토지정리, 백마-철산 물길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이 진전되어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서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올해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05.7%로 늘어나게 되며 국가예산지출은 108.6%로 늘려 편성하였음. 올해 우리는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 주된 힘을 쏟으며 채취공업과 기계공업, 화학공업과 건재공업, 임업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공업과 농촌경리부문에서 높은 생산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자금을 지출하게 됨.

□ 농작물 생산면적을 최대한 늘리며 농업생산의 집약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논두렁, 하천부지 등 새땅찾기와 함께 토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집약농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도하고, 또한 알곡 대 알곡을 위주로 하는 이모작농사 면적을 늘리려야 한다고 보도

○ ‘부침땅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문제’를 게재(민주조선 4. 30)

-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리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임. 경작지의 이용률을 높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높은 애국적 열성을 발휘하는 것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업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고를 바친 김일성과 김정일의 뜻을 받들어 경작지의 이용률을 높이는데 공민적 의무를 다해야 함.
- 이와 함께 농작물 생산면적을 최대한 늘리며 농업생산의 집약화수준을 높여야 함. 논두렁, 하천부지 등 새땅찾기와 함께 토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집약농법을 받아들여야 함. 또한 알곡 대 알곡을 위주로 하는 이모작농사 면적을 늘리고 앞뒤그루에서 높은 소출을 내도록 해야 함. 기후풍토조건에 맞게 재배형을 정하고 주체농법을 준수하자면 농업생산과 기술에서 혁명을 일으키도록 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야 함.
-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은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하도록 기술지도를 면밀히 실시해야 함. 이와 함께 경작지 이용률을 높여 높은 수확을 거둔 협동농장과 작업반, 분조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물질적 평가를 정확히 해야 함.
-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은 농촌경리부문 근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체 인민들과 국가기관 등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함.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집약농법에 대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실정에 맞게 성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해당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간석지 개간을 비롯해 경작지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전망성 있게 세우는 한편 경작지 이용률을 높이는데 필요한

물질적 수단과 영농물자, 자재를 책임있게 보장해야 함.

-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 과학화하고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농사를 과학화하기 위해서는 최신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모든 영농공정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야 함.

- ‘농사를 과학화하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이는 중요한 담보’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

- 과학의 시대를 맞아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 과학화하고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농사를 과학화하기 위해서는 최신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모든 영농공정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야 함.
- 종자혁명을 통해 다수확품종의 종자로 농사를 짓는 것이 중요함. 농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여러 가지 좋은 품종을 육종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함. 농업부문에서는 채종체계를 확립하고 각 지방, 농장에서 요구하는 품종의 종자를 생산보장해야 함. 도, 시, 군에서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지대적 특성에 맞게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배치하고 주체농법에 맞게 비배관리를 해야 함.
- 농사를 과학화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여야 함. 농사를 짓는 모든 단위에서는 농업과학기술학습을 강화하여 최신농업과학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현대적인 농기계를 능숙하게 다루어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이와 함께 농업지도기관들은 일군들이 과학적인 체계와 방법으로 농사를 조직지도하도록 해야 함.

- 지방예산제 발전을 위한 강원도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의 사업목표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12)

- 지방예산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 협동농장들은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려야 함. 협동농장들에서 고기와 알, 채소, 과일, 공예작물 등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지방산업공장의 가동률을 높여 지방예산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임.
- 강원도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은 알곡 대 알곡 위주의 이모작농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올해는 이모작재배면적을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확장하여 경지면적의 1/4에 해당하는 땅에 앞그루작물로 보리를 심었음. 이와 함께 감나무 재배면적에서 정보당 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또한 고기와 알, 치소, 공예작물도 더 많이 생산하여 군내 지방산업부문과 상업 및 사회급식부문에서 원

료의 제한없이 인민생활에 사용할 일용필수품과 식료품 생산을 다그치도록 적극 이바지해야 함.

○ 평안남도의 현지말씀 관철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5)

- 올해 3월,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받은 평안남도는 현지말씀 관철에 적극 나서고 있음. 도내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토지정리의 생활력을 높이기 위해 숙천군, 평원군, 안주시, 문덕군 등 어디에서나 좋은 종자의 확보, 유기질거름 내기에서 성과가 나타나도록 농사준비를 하고 있음. 새로 개간하는 금성간석지를 현대적인 농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수백 세대의 체대군인살림집 건설사업이 진척되고 있음.

○ 김정일의 농업의 현대화, 과학화 업적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21)

- 2003년 5월 21일, 김정일은 ‘우리 당이 제시한 농업혁명방침은 변화된 환경과 조건,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추세에 맞게 농업생산과 기술에서 일대 변혁을 이룩하여 김일성이 사회주의농촌건설분야에 쌓은 업적을 고수하고 그 구상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 방침’이라고 지적하였음. 김정일은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 농업을 현대화, 과학화해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토지정리작업장, 축산목장, 양어장, 닭공장 등에서 현지지도하였음.
- 농업의 현대화, 과학화 실현을 위한 지름길은 선군임. 인민군대가 토지정리사업,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비롯한 농업혁명 관철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음. 김정일은 인민군대에서 수많은 농기계들과 영농물자를 농촌에 보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이모작농사를 비롯해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 앞장서고 있는 인민군부대 산하 농장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음.
- 김정일은 감자농사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을 위해 현대적인 농기계를 지원해주는 등 량강도 대흥단군을 감자농사, 과학농사의 본보기고장으로 내세워 주었고 량강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북부산간지대에 감자산지들이 조성되었음. 이와 함께 김정일의 영도에 따라 곳곳에 현대적인 닭공장, 염소목장, 폐기공장이 건설되었으며 농촌정리의 수리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개천-태성호물길이 완공되고 백마-철산물길이 건설 중에 있음.

○ 당의 농업혁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21)

- 김정일은 2003년 5월 21일, 노작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를 통해 농업생산과 기술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현시기 농촌문제 해결의

기본과업으로 제시하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그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문제, 감자농사혁명을 일으키고 이모작농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문제, 종자혁명과 토지정리사업 등 당의 농업혁명방침의 주요 내용들과 그 수행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음.

- 현재 곳곳에서 당의 농업혁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나타나고 있음. 각지 농촌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량강도 대흥단군에서 일어난 감자농사혁명은 삼지연군, 백암군을 비롯한 고산지대에 영향을 주어 현대적인 과학농법인 대흥단식 과학농법으로 감자농사를 짓고 있음. 또한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던 이모작농사가 우리 식 농법으로 자리잡아 어느 농장에서나 이모작농사를 하고 있음.
- 종자혁명이 강조되는 가운데 농산 뿐만 아니라 축산, 과수, 잠업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우량품종의 종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음. 강원도에서 시작된 대규모 토지정리사업은 평안북도, 황해남도, 평양시와 평안남도도 이어지고 있으며 평안북도는 개천-태성호 물길에서 자연흐름식으로 관개용수를 보장하고 있음.

○ ‘농촌을 적극 지원하자’는 글을 게재(민주조선 5. 29)

- 농사는 전 인민적,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한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인 모내기철에 농촌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사업을 벌려 농촌지원사업을 전 군중적인 운동으로 진행해야 함.
- 각급 정권기관들은 해당 부문과 연계하여 농촌지원과 관련한 인력동원계획을 세우고 각 단위에 인력지원과제를 정확히 주어야 함. 이와 함께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모내기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기계수단을 제때에 보내주어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 각급 정권기관들과 해당 기관들은 농촌지원 정형을 수시로 총화하고 필요한 역량과 자재를 보장하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농촌지원사업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함.

2. 벼농사

- 벼냉상모판씨뿌리기철을 맞아 한해농사의 첫 공정인 씨뿌리기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준수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함. 특히 모판에 거름을 많이 내고 평당 씨뿌림량을 정확히 보장해야 함.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은 기본그루와 뒤그루로 심을 벼품종을 정확히 선정하고 주체농법에 맞게 씨뿌리기를 하도록 기술지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도

□ 씨뿌리기

○ 씨뿌리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23)

- 벼냉상모판씨뿌리기철을 맞아 한해농사의 첫 공정인 씨뿌리기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준수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함. 특히 모판에 거름을 많이 내고 평당 씨뿌림량을 정확히 보장해야 함.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은 기본그루와 뒤그루로 심을 벼품종을 정확히 선정하고 주체농법에 맞게 씨뿌리기를 하도록 기술지도를 실시해야 함. 협동농장 일군들은 모내기계획에 맞게 씨뿌리기 일정계획을 단계별로 세우고 모든 일손을 씨뿌리기에 집중하며 농업생산 설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또한 연관 부문에서는 씨뿌리기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관개용수를 담당한 부문에서도 책임을 다해야 함.
- 황해남도 안악군은 오국협동농장에서 방식상학을 조직하여 봄철날씨조건과 벼품종의 특성에 맞게 씨뿌리기를 하도록 기술문제를 알려주었음. 대추, 읍협동농장은 모판규격을 보장하고 벼씨뿌리는 기계를 이용하여 씨앗을 기술규정대로 뿌리고 있음.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일군들은 각 농장에서 모판고르기, 부식토퍼기, 씨앗뿌리기, 복토 등 모든 공정에서 주체농법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농업성을 비롯한 각지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들은 선전선동수단을 벼냉상모판씨뿌리기 현장에 배치하고 농업근로자들의 작업열의를 북돋우고 있음. 이와 함께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 하에 지대적 특성에 맞게 품종배치와 씨뿌리기 계획을 세우고 있음. 황해남도 연안, 청단, 재령군은 날짜별, 경지별 계획에 따라 씨뿌리

기를 기술규정대로 해나가고 있으며 평안남도 문덕, 숙천, 평원군 등에서도 씨뿌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각지 농촌의 씨뿌리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30)

- 각지 농촌에서 벼냉상모판씨뿌리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평안남도 증산군, 온천군, 개천시를 비롯한 농촌에서는 벼냉상모판씨뿌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평원군, 강서군 등에서는 날짜별 씨뿌리기계획에 따라 인력과 기계수단을 집중하여 씨뿌리기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황해남도, 평안북도,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농촌에서 주체농법대로 벼냉상모판씨뿌리기작업을 진행하고 씨뿌리기가 끝나는 대로 벼모판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의 벼냉상모판씨뿌리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2)

-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은 씨앗의 소독과 처리, 싹틔우기를 기술규정대로 실시하고 벼냉상모판 씨뿌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각 작업반에서는 모판을 고르고 씨뿌리는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책임성 높은 관리공을 배치하여 벼모를 튼튼하게 키워내고 있음.

○ 각지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7)

- 평안북도 룡천군, 운천군은 비옥하고 물을 충분히 댈 수 있는 곳을 모판자리로 정하고 모판의 온도를 높이면서 냉상모판에 씨를 뿌리고 있음. 태천군, 염주군 내 협동농장들은 종자처리장을 제대로 운영하여 싹틔우기를 기술규정대로 하고 평당 씨뿌리는 양을 지키면서 씨뿌리기를 질적으로 하고 있음. 광산, 의주, 피현군을 비롯한 도내 각 협동농장에서는 냉상모판 씨뿌리기를 질적으로 하면서 모판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음.
-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의 모든 작업반, 분조들은 씨뿌리기에 필요한 소농기구를 마련하고 바람막이바자 치기와 모판 만들기, 부식토와 대용비료 생산 및 운반을 앞세워놓고 일정계획대로 씨뿌리기를 하고 있음. 로암, 덕성, 대추, 엄곶협동농장 등에서도 씨뿌리기일정계획을 모내기날짜에 맞춰 씨뿌리기를 진행하고 있음.

○ 각지의 씨뿌리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4. 20)

- 평양시 력포구역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벼냉상모판 씨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 기술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위원회는 각 협동농장에서 심게 될 벼품종의 생물학적 특성과 기후조건에 맞게 냉상모판 씨뿌리기 일정계획을 세우도

록 한데 이어 인력과 기계수단을 집중하여 모판만들기를 비롯한 씨뿌리기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황해북도 은파군 강안협동농장은 부식토, 흙보산비료, 중소농기구를 갖추어놓고 벼냉상모판 씨뿌리기를 하고 있음. 각 작업반에서는 제철에 질적으로 씨뿌리기작업을 끝내기 위해 날짜별 씨뿌리기계획을 세워 계획대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각지 농촌의 벼모판씨뿌리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24)

- 황해남도 재령군, 안악군, 신천군 등에서는 모판마다 알맞게 씨앗을 뿌리고 있음. 씨뿌리는 기계를 다루는 농업근로자들은 속도를 조절하면서 씨앗을 뿌리고 씨앗 다지기과 묻어주기도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평안남도 개천시, 순천시, 평성시, 평원군, 룡강군 등에서는 모판만들기를 끝내고 벼모판씨뿌리기를 일정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평안북도 정주시, 룡천군, 염주군, 박천군 등에서는 모판마다 질 좋은 부식토를 내고 물을 준 다음 싹이 고르게 튼 씨앗을 묻고 있음. 함경남도, 강원도, 자강도, 량강도 등에서도 씨뿌리기를 다그치며 모판관리에 힘을 쏟고 있음.

- 벼모내기를 주체농법에 맞게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내기 기간동안 계획대로 튼튼한 벼모를 차질없이 공급해야 함. 각지 협동농장에서는 모판관리공들이 모기르기를 계속 잘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모내기와 함께 모판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해야 함

□ 모내기

○ 함경남도 함주군의 모내기 준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4. 27)

- 함경남도 함주군은 논에 20톤의 자급비료를 내고 논갈이를 끝내는 등 모내기준비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각 협동농장에서는 벼모를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 바람막이바자를 자주 손질하고 비닐박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모판의 온습도를 보장하고 살초제와 덧비료치기도 영농공정대로 해나가고 있음.
- 이와 함께 각 협동농장에서는 모내기를 기계화하기 위해 모뜨는 기계와 모내는 기계의 수리정비를 끝냈으며 농기계작업소에서는 농기계 이동수리조를 조직하여 기동적으로 수리정비사업을 하고 있음.

○ 황해남도 신천군의 모판관리 기술지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5)

- 황해남도 신천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현지에 일군을 파견하여 벼모판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벼모의 생육단계에 맞게 모판관리를 주체농법에 맞게 실시하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일군들은 셋길, 백석협동농장에서 날씨 변화에 맞게 모판의 온습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으며 명성, 사창, 복우협동농장에 나간 일군들은 모판 관리공들이 바람막이바자 손질, 비료 및 물 주기, 햇빛 쏘이기 등 기술규정대로 모판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황해남도 청단군의 벼농사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8)

- 황해남도 청단군은 일기조건에 맞게 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청정협동농장의 각 작업반들은 대용비료주기와 바람쏘이기, 물대기를 기술적으로 하여 벼모를 튼튼하게 키우고 있음. 양화, 화산협동농장은 모범적인 모판 관리공들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앞이 나온 상태에 맞게 벼모 영양관리를 잘하면서 낮은 온도에서 벼모를 단련시키고 있음. 청단읍협동농장, 남촌농장을 비롯한 각 협동농장에서도 모판관리공을 대상으로 한 기술학습을 진행하면서 벼모를 튼튼하게 키우고 있음.

○ ‘모내기준비를 빈틈없이 하자’라는 글을 게재(로동신문 5. 8)

- 벼농사에서 모내는 중요한 영농공정임. 모내기철을 앞두고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함.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모내기일정계획에 따라 모를 낼 수 있도록 벼모를 튼튼하게 키우는데 힘을 쏟아야 함. 각지 협동농장의 모판관리공들은 모판온도 보장과 물주기, 덧비료주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함.
- 각 협동농장에서는 모내는 기계의 수리정비를 질적으로 끝내고 예비부속품을 확보하여 모내는 기계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함. 이와 함께 각지 농기계작업소에서는 트랙터 수리정비를 끝내 논써레치기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함. 각지 관계관리소는 관개수보장대책을 세워 급수사령체계에 따라 논써레치기에 지장이 없도록 물을 사전에 흘러들게 해야 함.
- 모든 협동농장에서는 날짜별, 경지별로 모내기계획을 세우고 일손과 기계수단을 집중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준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함.

○ 평안북도 동림군 풍천협동농장의 모판관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9)

- 평안북도 동림군 풍천협동농장은 모판관리를 기술규정대로 진행하도록 인력조직과 기술지도에 힘을 쏟고 있음. 제1, 2, 4작업반의 모판관리공들은 일교차에 따라 모판 물대기와 덧비료주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6작업반은 질 좋은 덧비료를 주면서 벼모를 초기생육단계에서부터 튼튼하게 키우고 있음.

○ 함경남도 함주군의 모판관리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0)

- 함경남도 함주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모판관리계획을 세우고 각 작업반과 분조에서 튼튼한 모를 기르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동봉협동농장, 수흥협동농장의 모판관리공들은 모 생육상태와 날씨에 맞게 주체농법으로 벼모를 기르고 있으며 물대기, 온도보장을 정확히 하고 있음. 수동, 상중, 조양협동농장에서도 모판관리를 기술규정대로 하고 있음.

○ 각지의 모내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1)

-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은 5월 10일 첫모내기를 실시하였음. 중앙과 도, 농업부문 일군들이 모내기 지원에 나선 가운데 농장에서는 날씨별, 경지별 모내기계획에 따라 모기르기와 논씨레치기를 앞세우면서 모든 역량과 기계수단을 모내기에 집중하고 있음.
- 개성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벼모기르기와 모내기방식상학을 통해 각 농장들의 마지막 모가 나갈 때까지 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봉동, 림한협동농장은 트랙터, 모내는 기계 등 모든 농기계의 수리정비를 끝낸데 이어 모내기작업 실적을 올리고 있음. 시에서는 농촌의 모든 역량을 모내기작업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공장, 기업소 노동자, 사무원들도 모내기를 적극 지원하도록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의 모내기 준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12)

-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은 모내기 준비가 한창임. 모판관리공들은 불리한 날씨조건에도 온도관리와 물관리, 덧비료주기를 기술규정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씨레치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모내는기계 운전공들도 기계 수리정비를 끝내고 예비부속품을 마련하고 있음.

○ 남포시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의 모내기 준비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12)

- 남포시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은 올해 3월에 들어서면서 연료 및 비료가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내기 준비작업에 돌입하였음. 기름이 적은 조건에서 이른 봄에 해토가 되는대로 논갈이를 진행하는 문제, 대용비료로 모를 키우는 문제 등 실천 속에서 좋은 방안들이 제기되었음.

- 기계화작업반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트랙터 수리정비를 계획보다 앞서 끝내고 모든 기계를 제때에 논갈이에 투입하여 적은 기름으로 지난시기보다 10일이나 앞당겨 논갈이를 끝냈음. 모판관리공들은 예년에 비해 일교차가 심하고 바람이 센 조건에 맞게 비람막이바자 손질을 자주하면서 온습도 보장을 기술규정대로 하였음.

○ 벼냉상모판관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15)

- 평안남도 숙천군은 날씨조건과 벼모의 생육상태에 맞게 모판리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모판관리에 모범적인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음. 광천농장은 모판의 온도보장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대용비료를 내고 바람막이바자 손질과 박막씌우기를 하고 있음. 홍오, 운정농장을 비롯한 각 농장에서도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대용비료를 마련해가며 모를 과학기술적으로 기르고 있음.

○ 평안북도 신도군 황금평협동농장의 모판관리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6)

- 평안북도 신도군 황금평협동농장은 섬에 위치하여 기온이 낮고 바람이 센 지대적 조건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여 벼모를 기르고 있음. 농장일군들과 각 작업반에서는 변화가 심한 날씨조건에 맞게 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황해남도 삼천군의 모기르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8)

- 황해남도 삼천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모기르기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한 개 농장씩 맡고 작업반기술일군들을 지도하면서 모판관리공에 대한 기술학습을 조직하고 있음. 모판관리공들은 모판의 온습도, 바람쏘이기 정형을 일지에 기록하면서 과학기술적으로 모판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 협동농장 일군들은 모판관리일지를 점검하면서 대용비료도 만들어 치고 비닐박막도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각지의 모내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9)

-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는 5월 10일, 형제산구역 학산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식상학을 실시하고 일군들을 각 농장들에 파견하였음. 만경대구역은 논물잡이와 씨레치기, 논두렁짓기 등 선행공정을 앞세우면서 모내기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형제산구역은 모내는기계와 모뜨는기계를 수리정비하

는 한편 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모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모내기를 질적으로 하고 있음. 려포구역과 강남군, 순안구역, 강동군 내 협동농장들에서도 모내기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임.

- 평안북도 룡천군은 분조장 이상 일군들을 대상으로 모내기 방식상학을 실시하고 모내기를 적기에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었음. 장산, 신암, 산두, 쌍룡협동농장은 계획대로 모내기작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룡연, 건일, 동신헌동농장은 모뜨기와 씨레질을 앞세워 모내기를 적기에 하고 있음.

○ 모내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19)

- 모내기를 제 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업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함. 농업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많은 작업을 처리해야 하는 모내기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을 발휘하여 적극 나서야 함.
- 모내기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관철해야 함. 협동농장들은 수확고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시기에 모를 낼 수 있기 계획을 세우고 농기계의 가동률과 이용률을 높여 모내기에 집중해야 함. 또한 모내기질을 높여야 함. 씨레치기를 비롯한 모내기의 모든 공정에서 과학기술적 조건을 준수하고 평당 포기수를 보장해야 함. 모내는 기계 운전공들은 기계정비를 잘하고 표준조작법에 맞게 운전하여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보장해야 함.
- 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의 작업열의를 북돋우는 정치사업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모내기에서 인력과 농기계, 영농물자와 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직해야 함. 농촌지원사업을 벌려야 함. 해당 단위에서는 필요한 영농물자도 자재를 모내기에 지장없이 농촌에 보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농촌지원자들은 농사일을 주인답게 해야 함.
- 황해남도 안악군은 오국협동농장에서 모내기 방식상학을 조직한데 이어 올해 모내기에서 준수해야 할 기술규정을 각 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에게 전달하고 모내기작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오국협동농장은 트랙터 가동률을 높여 씨레질을 앞세우고 모뜨기, 모운반 등 여러 공정을 주체농법에 맞게 진행하고 있음. 로암, 덕성, 대추협동농장은 트랙터와 축력수단을 배합하여 모내기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

○ 각지의 모내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20)

-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야 벼의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 수 있음. 모내기에

서 기계화비중을 높여야 함. 모내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해서 각 협동농장들은 모뜨는기계와 모내는기계의 이용률을 높여야 함.

- 모내기에서 속도와 질을 보장하여야 함. 모든 협동농장들은 주체농법에 맞게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보장하도록 하고 트랙터의 가동률을 높이며 부림소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씨레치기를 앞세워야 함. 이와 함께 일군들은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들을 동원하며 작업조직을 짜고 들어 모내기일정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함.

- 황해북도는 모내기를 주체농법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해 대용비료를 많이 생산하고 모판관리를 잘하면서 씨레치기를 앞세우도록 하고 있음. 전기공급이 어려워 양수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는 단위에서는 자연관수체계를 받아들여 물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내기의 기계화비중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평양시 형제산구역 학산협동농장은 모내는기계와 모뜨는기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리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모내기를 다그치고 있음. 각 작업반의 모내는기계 운전공들은 과학기술적으로 모를 내고 있으며 모뜨는기계 운전공들은 표준조작법에 맞게 기계를 다루면서 모를 뜨고 있음.

○ 황해남도의 모내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21)

- 황해남도 농촌경리위원회는 정보당 벼소출을 높이기 위해 방식상학과 기술강습을 통해 모내기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안악, 재령, 청단군을 비롯한 각 군의 협동농장에서는 계획에 따라 물대기, 씨레치기, 모뜨기를 앞세워 모내기성과를 올리고 있음.

○ 모내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22)

- 황해남도는 5월 말까지 모내기를 끝내기 위해 모내는기계의 가동률과 이용률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모내는기계 운전공들의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이미 마련된 관개체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도록 하고 필요한 농기계부속품 생산보장대책을 세우고 있음.

- 평안북도 운전군 관해협동농장은 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모판관리공들은 날씨변화에 맞게 온습도 보장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바람쏘이기 등을 잘하여 모를 잘 키워 모내기 현장에 공급하고 있음.

○ 평안북도의 모내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24)

- 평안북도는 최적기인 5월에 모내기를 끝내기 위해 박천군 룡곡협동농장에서 모내기 방식상학을 진행하고 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을 모내기작업 현지에 파견하였음. 운전군, 박천군의 각 협동농장들은 트랙터의 가동률을 높여 논써레치기를 앞세우고 모내기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룡천군, 염주군을 비롯한 각 시, 군에서는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보장하면서 모내기실적을 올리고 있음.
- 이와 함께 도에서는 지구관개관리소에서 모내기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 군농기계작업소에서 이동수리차를 보내 농기계를 현장에서 수리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 모내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24)

- 벼모내기를 주체농법에 맞게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내기 기간동안 계획대로 튼튼한 벼모를 차질없이 공급해야 함. 각지 협동농장에서는 모판관리공들이 모기르기를 계속 잘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모내기와 함께 모판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해야 함.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은 모판관리공들의 모기르기 정형을 파악하고 필요한 기술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평안남도 평원군 당책임비서는 모내기에 앞서 각 협동농장들의 벼모상태를 점검하였고 삼봉협동농장 제5작업반의 모기르기에 주목하였음. 삼봉협동농장 제5작업반은 일정 정도 모가 자란 뒤 물을 얇게 대어 모를 번덕스러운 날씨조건에 적응시키고 있었음. 모내기를 제철에 끝내기 위해 협동별을 수시로 방문하여 여러 가지 방도를 모색하는 군책임일군의 모범 속에 농업근로자들은 모내기작업에 더욱 충력을 기울이고 있음.
- 평안남도 숙천군은 모내기를 일정계획보다 앞당겨 끝내기 위해 칠리농장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음. 칠리농장은 모내는기계의 원추치차를 개조하여 기술규정대로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할 뿐만 아니라 모내는기계를 뒤따라가며 벼모를 보식하는 일손도 덜고 있음.

○ 황해남도 청단군의 회전식 써레치는 기계 이용에 대해 보도 (로동신문 5. 25)

- 황해남도 청단군은 김제원해주농업대학 농기계연구소에서 개발한 새로운 회전식 써레치는 기계를 도입하는데 힘을 쏟고 있음. 이 회전식 써레치는 기계는 기존보다 적은 연료와 일손으로도 모내기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음.

- 농기계 제작 시범단위로 지정된 소정협동농장은 밤낮없이 제작에 매달려 15대의 회전식 씨레치는 기계를 만들어 농산작업반에 내려보냈음. 청정, 룡포, 심평 등 많은 협동농장에서도 짧은 기간에 10여대씩 기계를 성과적으로 만드는 등 군에 140여대의 새로운 회전식 씨레치는 기계가 갖추어졌음.

○ 각지 모내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27)

- 황해북도 사리원시는 모내기에 앞서 각 협동농장에서 벼품종의 특성과 기후풍토 조건에 맞게 필지별로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과학기술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만금, 해서협동농장 등에서는 계획대로 기계수단을 집중하여 모내기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에서는 협동농장별 모내기 정형을 파악하여 총화와 평가사업을 해나가고 있음.
- 평안남도 온천군 마영협동농장의 각 작업반 모내는기계 운전공들은 표준조작법에 맞게 기계를 운전하면서 빈포기가 생기지 않도록 포기당 대수를 보장하고 자검자수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음. 모관관리공들은 모내기 기간동안 계획대로 벼모를 공급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기계화작업반은 농기계준비를 끝내고 이동수리조를 조직, 운영하고 있음.

○ 각지 모내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29)

- 평안남도 숙천군 당위원회,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일군들은 한 개 농장씩 맡고 나가 모내기가 적기에 질적으로 진행되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광천농장은 모관리를 잘하고 모내는기계의 수리정비를 끝낸데 이어 모내기를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산, 검흥, 성남, 약전농장 등 다른 농장에서도 모내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은 지난 경험에 기초하여 농기계 가동률과 운전수, 운전공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사업에 힘을 쏟고 있으며 엄곳, 덕성협동농장은 일군들이 모내기 주요공정을 맡아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기술적으로 모내기가 진행되도록 이끌고 있음.

○ 각지 모내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29)

- 평안남도 증산군, 온천군은 모내기를 최적기에 끝내기 위해 씨레치기와 모뜨기를 앞세워 계획한 면적에 질적으로 모를 내고 있으며 평원군 원화, 삼봉협동농장 등에서는 모내는 기계의 이용률을 높여 모내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 황해남도는 올해 모내기에서 김제원해주농업대학에서 창안제작한 곡면날식 회전

물논써레치는 기계를 받아들였음. 이 써레치는 기계는 축에 고정되어 있는 여러 개의 곡면날개가 회전하면서 같이한 논에 흙덩이를 부수며 논을 고르기 때문에 토양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며 논에 뿌린 유기질거름을 고루 섞이게 하므로 논벼 발육에 좋음. 또한 기존 기계보다 연료소비량이 적고 시간당 써레치는 면적은 2~3배나 많음.

- 황해북도 서흥군관개관리소는 저수지와 보조수원을 보수하여 올해 농사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확보한데 이어 양수기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음. 화곡작업반은 수백m 구간의 흙을 처리하여 물길을 확장하고 수습 정보의 양수관개면적을 자연관개면적으로 전환한데 이어 물공급체계를 바로 세워 양수기 가동시간을 줄이면서도 물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음. 봉하, 양암, 읍작업반은 양수설비를 점검하고 제때 보수 정비하는 한편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에 맞게 양수기를 정상가동하고 있음.

○ 황해남도 벽성군 서원협동농장의 모내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3)

- 황해남도 벽성군 서원협동농장 일군들은 모내기를 최적기에 끝내기 위해 모내는 기계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일군들은 모뜨기, 모내기, 모보식을 비롯한 모든 작업공정을 주체농법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실천적 모범을 보이고 있음.

○ 황해남도의 모내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6. 3)

- 황해남도 농촌경리위원회는 최적기에 모내기를 진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청단군 청정협동농장에 나간 위원회 일군은 농장의 써레치기실적이 저조하자 곡면날식 회전물논써레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였음. 이 기계를 받아들이기 위해 일군은 농기계작업소와 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과 함께 기술문제와 자재를 해결해 가며 며칠 사이에 여러 대의 새로운 써레치는기계를 제작하였고 이 경험과 성과를 다른 농장에 일반화하였음.
- 배천군에 나가있는 위원회 일군은 날씨변화로 벼모기르기에 차질이 생기자 강호협동농장에서 시범창조사업을 진행하였음. 일군은 모판관리공들이 주체농법에 맞게 모판관리를 하도록 지도하고 비닐박막의 이용률을 높이며 벼모의 생육조건을 호전시키는데 필요한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함으로써 벼모를 잘 길러내게 하였음.
- 연안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주체농법에 맞게 모내기를 하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경영위원회는 발산협동농장에서 모내기 방식상학을 진행하고 각 협동농장 별로 실정에 맞게 방식상학을 진행하여 기술적인 문제들을 농업근로자들에게 알

려주도록 하였음.

- 오현, 천태협동농장에서 일군들은 모판관리와 모내기에 대한 경험교환회를 진행하여 여러 가지 기술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으며 정촌, 풍천협동농장 등 여러 협동농장들에 나간 일군들도 기술지도를 하면서 모내기를 주체농법대로 하고 있는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음.

○ 모내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6. 5)

- 평양시 만경대구역은 트랙터 운전수들과 모내는기계 운전공들이 농기계에 대한 자검자수를 책임적으로 하여 짧은 기간에 모내기를 질적으로 끝냈음. 형제산, 락랑구역에서는 모내기 일정계획에 맞게 인력과 기계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분조마다 노력일평가사업을 실시하면서 모내기실적을 올리고 있음.
- 황해남도 신천군은 모내기에 앞서 씨레치기를 질적으로 하였음. 샛길, 반정, 화산협동농장의 트랙터 운전수들은 논판의 모양과 토질, 논갈이 상태를 따져 합리적인 씨레치기방법을 받아들여 씨레치기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 복우, 사창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날자별, 포전별 씨레치기계획을 세우고 작업반, 분조별 사회주의경쟁을 벌려 씨레치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 평안북도 박천군 룰곡협동농장은 모내기에 앞서 농기계수리정비를 끝내고 그 가동률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음. 농장은 모내는기계 운전공들이 표준조작법에 맞게 운전하도록 지도하고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하였음. 맹중, 청룡협동농장의 농기계 운전수들과 운전공들도 기계의 가동률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

○ 모내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6)

- 토지정리된 평안남도의 농촌들에서 모내기가 한창임. 평안남도는 증산군 풍정협동농장에서 모내기 방식상학을 진행하고 숙천군, 문덕군, 순천시 등 다른 시, 군의 농장들에서 주체농법에 맞게 모내기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평양시 강동군은 모내기에 앞서 양수동력설비, 트랙터, 모내는기계의 수리정비를 끝내고 농장마다 군농기계작업소의 노동자들을 배치하여 수리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였음.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각 협동농장에서 모판 물대기와 비료주기 등 벼모를 과학기술적으로 키우도록 하고 계획에 따라 모내기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모내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7)

- 평안남도 온천군 마영협동농장은 트랙터와 모내는 기계를 집중하여 모내기작업을 벌리고 있음. 각 작업반들에서 트랙터운전수들은 논써레치기를 기술규정대로 하고 있으며 모내는 기계 운전공들은 적합한 깊이에 모를 내고 있음.
- 평안북도 운전군은 모내기 일정계획에 따라 써레질을 앞세우기 위해 논판 물대기, 논두렁짓기와 함께 트랙터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음. 각 농장 일군들은 트랙터 예비부속품 확보하여 트랙터의 가동률을 보장하면서 써레치기를 한 뒤 모내기를 질적으로 하고 있음.

○ 모내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9)

- 황해북도 금천군은 각 농장들에서 논갈이를 끝내고 트랙터와 부림소를 동원하여 써레치기를 앞세우면서 모내기 일정계획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강남협동농장은 모기르기에 힘을 쏟아 물대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튼튼한 모를 내고 있음. 강북협동농장은 트랙터 운전수들이 합리적인 논갈이방법과 써레치기방법을 받아들여 연료를 절약하면서 써레치기를 하고 모내기를 계획대로 진행 중임.

○ 강원도 고산군의 모내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12)

- 강원도 고산군은 올해 농사에서 기계화의 비중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모내기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음. 각 협동농장의 기계화작업반과 군농기계 작업소에서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회전식 써레가 도입되고 수리공들은 모내기 현장에서 수리정비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지난해보다 트랙터, 모내는기계, 모뜨는기계의 가동률과 함께 모내기실적도 더욱 높아졌음.

○ 황해남도 안악군의 논물관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6. 13)

- 황해남도 안악군은 논물관리에 기술수준과 경험이 풍부한 농장원을 배치하고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오국, 대추협동농장의 논물관리공들은 논물의 깊이와 온도를 측정하면서 날씨상태에 맞게 논물관리를 하고 있으며 로암, 경지협동농장은 포전별 모내기 날짜와 벼품종의 특성을 따져 논물을 대주고 있음.

○ 황해북도 봉산군의 논두렁 콩심기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6. 13)

- 황해북도 봉산군은 콩을 주작 및 간작으로 심는데 이어 논두렁 콩심기를 하고 있음.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모내기를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230여 정보의 논두렁

에 콩을 심었음. 청계협동농장은 노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계획대로 40여 정보의 논두렁에 콩을 심었고 지탑협동농장은 논두렁짓기를 할 때 콩심기 준비를 끝내고 모내기에 뒤따라 콩을 심었음.

○ 평안남도 대동군 원장협동농장의 노력관리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14)

- 평안남도 대동군 원장협동농장은 노력관리사업에 힘을 쏟아 당면한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농장 일군들은 농장원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면서 작업열의를 북돋우고 능률적인 회전식 씨레치는 기계를 모든 작업반에 도입하여 절약한 연료와 일손을 모내기에 집중하고 있음.

○ 평안북도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의 모내기 경험에 대해 소개(민주조선 6. 29)

- 평안북도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은 올해 모내기를 계획하면서 모든 작업반, 분조들이 높은 실적을 올리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농장일군들은 각 작업반, 분조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인력구성도 새롭게 하였음.
- 씨뿌리기가 끝날 무렵, 일군들이 각 작업반의 모판관리 정형을 파악한 결과 작업반별로 모판관리에서 격차가 나타났음. 일군들은 비교적 수준이 낮은 제7작업반을 방식상학 대상으로 정해 모판관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설해주었고 각 작업반, 분조에서 모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음.
- 이와 함께 농장일군들은 현지에서 모판관리공들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부족한 비닐박막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모내기의 속도와 질을 높이도록 하였음. 그 결과 모든 작업반, 분조들이 높은 수준에서 모내기를 최적기에 끝냈음.

3. 축 산

- 경제난, 식량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김정일은 대대적인 초식가축 사육방침, 현대적인 닭공장, 염소목장, 소목장, 타조목장 건설방침, 기존 닭공장들과 오리공장의 개건현대화방침 등 혁명적인 조치를 취했음. 현대적인 닭공장 건설을 비롯해 염소목장, 소목장, 메기공장 건설도 인민군대에서 시작되어 전국에 일반화되었음.

□ 축산 동향

○ 함경남도 장진군 읍협동농장의 축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24)

- 함경남도 장진군 읍협동농장은 돼지, 양, 토끼를 길러 해마다 축산물 생산계획을 초과달성하면서도 가축 배설물로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작업반포전과 감자밭에까지 내고 있음.

○ 봄철 가축사양관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25)

- 자강도 위원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현지에서 농장원들을 대상으로 가축을 기술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화창, 대야협동농장에서 일군들은 가축우리의 온도 보장과 영양관리를 잘하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어곡, 개원, 광천협동농장에 나간 일군들은 아래 단위 일군들과 관리공들이 가축관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음.
- 평안북도 구장군 중초협동농장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염소를 기르기 위해 봄철 새끼생산에 힘을 쏟고 있음. 염소분조원들은 새끼밴 어미염소의 영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염소의 생리적 특성과 영양상태에 따라 먹이주기와 우리 안의 온습도 보장을 비롯한 사양관리를 기술규정대로 진행해나가고 있음.
- 평양시 강동군 룡흥협동농장의 염소분조원들은 봄철을 맞아 새끼받을 준비를 계획성있게 하여 많은 새끼염소를 생산하였음. 또한 갓 낳은 새끼염소 우리의 온도 보장과 젖먹는 시기별 특성에 따르는 관리도 책임있게 하고 있음.

○ 농업과학원의 축산부문 연구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29)

- 농업과학원 축산학연구소는 염소의 인공수정에서 나타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완성하고 인공수정기구를 제작하여 황해북도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에 도입한데 이어 올해 그 성과를 전국에 보급할 목표를 세웠음. 또한 새끼생산성이 높고 먹이소비단위가 낮으면서 빨리 자라고 고기의 질이 좋은 여러 품종의 돼지종자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임.
- 이와 함께 질 좋은 비알곡미생물 단백질과 종합광물질 덩이먹이를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축산학연구에 정보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종축가치평가와 같은 최신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하고 가축하루먹이량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데 힘을 쏟고 있음. 또한 축산부문 과학기술자료검색과 가금공장, 돼지목장들에서 경영활동의 컴퓨터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농업과학원 수의학연구소는 현대화된 닭공장의 수의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기술일군들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생산에 받아들였음. 이로써 짧은 기간에 알낱이 닭마리수를 늘려 알생산을 정상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염소에게 나타나는 질병 가운데 기관지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개건확장된 력포목장의 조업식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22, 민주조선 4. 22)

- 력포목장은 개건확장공사를 통해 연건축면적 수만㎡에 생산 및 보조건물이 40동에 달하는 현대적인 목장으로 일신되었음. 21일에 진행된 조업식에서 목장 개건확장공사에 위훈을 세운 목장 종업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이 전달되었음. 조춘일 지배인의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고기생산성과를 높여 축산기지가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자강도 장강군 무덕협동농장의 가축관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4. 23)

- 자강도 장강군 무덕협동농장은 우량품종의 염소와 양, 소를 늘리기 위해 그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먹이분조원들은 지난해 가을에 칩, 콩짚 등 수백 톤의 마른 먹이를 마련해놓고 새끼 뺨 우량품종의 수백마리의 염소와 양, 소에게 영양가 높은 먹이를 공급하는데 힘을 쏟고 있음.
- 관리분조원들은 일조시간이 길어지는 조건에서 방목시간을 늘려 가축들이 충분히

먹이를 먹도록 하고 있으며 방목지에서 돌아온 염소, 양, 소에게 영양가 높은 먹이를 섞어 분쇄한 먹이를 끓여 먹임으로써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하고 있음. 풀판작업반은 자체적으로 예방약을 생산하여 접종사업을 벌리고 있음.

□ 초지조성사업

○ 풀판조성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3)

- 풀판조성 시기를 맞아 모든 단위에서는 풀판조성사업을 적극 벌려야 함. 풀판조성은 자연풀판을 기본으로 하며 적지 선정을 잘해야 함. 이와 함께 제철에 질적으로 풀판을 조성해야 함. 또한 채종풀판을 조성하여 영양가 높고 수확이 많은 풀씨를 많이 생산해야 함.
- 강원도 판교군 사동축산전문협동농장은 봄철에 100정보의 자연풀판 조성계획을 세워 아카시아나무를 심고 영양가 높은 여러 가지 풀씨를 야산에 뿌리고 있음. 작업반 비육분조에서는 20정보씩 자연풀판을 조성하기 위해 아카시아나무 심기와 풀씨 뿌리기, 칩뿌리 잘라심기 등을 질적으로 하고 있음.
- 황해북도는 각 시, 군의 자연풀판 상태를 파악하고 먹이풀과 칩, 아카시아나무, 싸리나무 등을 심도록 하고 있음. 평산군과 황주군, 신계군은 자연풀판에 먹이풀이 적은 곳에 오리새와 같은 영양가 높은 먹이풀을 심으며 나무가 적은 산에는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고 있음. 이와 함께 풀판조성에 필요한 좋은 풀씨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각지의 축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7)

- 자강도 농촌경리위원회는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벌리기 위해 강계시 의진지구를 비롯한 시, 군들에 대규모 염소목장과 장강군 무덕협동농장 풀판에 젓가공기지를 건설하는 등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였음.
-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는 풀판조성과 새 품종의 가축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음. 도 종우장과 토끼, 염소종축장 및 종양장에서 우량품종을 육종하여 도내 협동농장들과 기관, 기업소들에 공급하고 있으며 시, 군수의방역소들에서 예방약생산기지를 조성하여 가축예방접종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평안북도 피현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염소를 사육하기 위

해 풀판조성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음. 일군들은 답사를 통해 적지를 확정하고 아카시아나무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화삼, 정산, 룡흥협동농장에서 일군들은 아카시아나무모를 제때에 운반하여 계획대로 심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풀판을 조성해나가고 있음.

- 함경북도 청진토끼종축장은 우량품종의 토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토끼우리 건설과 수의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함께 새 품종토끼를 위한 단백질먹이를 확보하고 거친먹이를 분쇄하여 알먹이로 만들기 위한 생산공정을 조성하여 먹이 생산을 확대하고 있음. 또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새 품종토끼 사육에 대한 기술 학습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의방역사업에도 주의를 기울여 우리소독과 예찰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탁창손이 일하는 목장의 저수지 조성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8)

- 탁창손이 일하는 목장은 마을을 끼고 흐르는 지장천을 두 개의 언제로 막아 저수지 두 개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음. 목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언제공사에 총력을 기울여 20일만에 무덤이물길과 배수구를 갖춘 두 개의 언제를 건설함으로써 저수지가 조성되었음. 이로써 목장은 물 걱정없이 새로 건설한 축산기지에서 염소 마리수를 1.7배로 늘리는 성과를 거두었음.

○ 평안남도 성천군 상하협동농장의 축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9)

- 평안남도 성천군 상하협동농장 축산작업반은 초식가축을 대대적으로 사육하도록 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가축 마리수를 늘리는 조건에 맞게 자연풀판에서 방목을 위주로 하면서 계절별 먹이 보장에 힘을 쏟았음. 이 작업반은 자체적으로 조성한 먹이밭에 앞그루감자를 심을 때 해바라기도 심어 잎을 자주 따주면서 가축먹이로 이용하고 있으며 씨는 기름원료로, 찌꺼기는 고급단백먹이로 이용하고 있음.
- 이로써 작업반에서는 돼지, 거위, 오리, 염소 등 수백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고기와 알, 젖생산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황사피해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성의 대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9)

- 농업성은 가축사육에서 황사현상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축산관리국을 비롯한 농업성 일군들은 닭공장, 오리공장, 돼지공장, 젖소목장과 협동농장 종축작업반을 비롯한 축산기지에서 황사피해방지 실태를 파악하고 이미 2월부터 피해방지대책을 사전에 세우도록 지도하였음.

- 농업성 일군들은 봄철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 축산기지 주변에 나무를 심어 황사 피해를 막도록 하고 가축우리 바닥을 물청소하며 벽회칠을 하는 등 위생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또한 황사에보체계를 세워 황사에보시 가축들이 우리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돼지우리과 같이 실외에 있는 가축우리에는 덧씌우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함경남도 홍원군 봉화협동농장의 발전상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3)

- 함경남도 홍원군 봉화협동농장은 척박한 땅을 개량하고 정리하고 기와생산기지를 조성하여 리소재지와 마을마다 수십 세대의 농촌문화주택을 건설하였음. 이와 함께 집집마다 거위, 오리, 토끼를 사육하고 있으며 맹기덕골짜기에 염소방목지를 조성하고 염소를 길러 해마다 염소젖을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 평안북도 구성시 양정사업소의 축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20)

- 평안북도 구성시 양정사업소는 당의 초식가축 사육 장려정책에 따라 염소우리 건설사업을 실시하였고 축산 부산물로 물고기를 기르기 위해 염소우리 앞에 양어못도 조성하였음. 사업소는 인공풀판과 200여 정보의 자연풀판을 조성한데 이어 염소가 증가하는 조건에 맞게 젓가공실과 지하냉장고도 건설하였음. 이로써 사업소는 최근 2년여의 짧은 기간동안 오봉산 한증골에 종합적인 축산기지를 완공하여 지난해 돼지, 염소, 닭, 오리, 거위 등 가축고기와 알, 젓, 젓빵, 케피르 등을 생산하였음.

○ 황사피해방지대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22)

- 각급 수의방역기관들과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단위에서는 해당 기상관측소와 연계하여 황사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중앙수의방역소는 중앙기상연구소와 합동으로 황사가 영향을 미치는 날짜와 지속시간, 지역, 심도 등을 도수의방역기관들에 통보하고 각급 수의방역기관은 황사의 구체적인 실태를 가축사육단위에 통보해야 함.
- 먹이는 지붕이 있는 저장고에 보관하며 밖에 쌓아둘 때는 비닐박막을 씌우도록 함. 또한 물이 황사에 오염되지 않도록 황사현상이 끝난 뒤 물먹이통이나 샘물터, 우물 등에 씌워놓은 비닐박막을 벗기고 깨끗이 털어내야 하며 황사로 오염된 풀판에 가축을 방목하지 말아야 함.
- 황사현상이 끝난 뒤 일주일동안 매일 가축을 검진하고 질병발생정형을 종합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찾아야 함. 중앙수의방역소는 황사를 통해 세균,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대한 통보를 받을 경우 그에 따르는 가축검진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함. 황사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변환경과 산림조성을 잘하며 풀판과 가축우리, 양어장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해야 함.

- 함경남도수의방역소는 중앙수의방역소, 도기상수문관측소와 연계하여 황사발생 예상 날짜와 지역, 지속시간, 심도 등을 시, 군수의방역소에 알려주며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 도수의방역소는 가축을 기르는 단위에서 황사먼지가 가축우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수정비사업과 소독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황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축 질병예방치료에 필요한 약을 만들어 시, 군수의방역소와 목장들에 공급하고 있음.
- 농업성 수의방역국은 황사피해를 막기 위한 수의방역기술참고서를 만들어 각 도 농촌경리위원회와 축산 단위에 보급하는 한편 중앙수의방역소에서 중앙기상연구소와 연계하여 황사발생 날짜와 지속시간, 지역, 심도 등을 각 도수의방역기관들과 수의방역대에 알려주는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고 있음.

○ 자강도 장강군 무덕협동농장의 발전상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25)

- 김정일은 자강도 장강군 무덕협동농장을 방문하여 풀판조성사업, 초식가축 관리 등 축산업 발전에 대한 문제들을 현지에서 지도하고 소, 염소와 양까지 수십마리씩 보내주었음. 김정일 현지도 이후 무덕협동농장은 축산기지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 풀판과 가축 수가 증가하고 현대적인 젓가공실이 건설되었음.

○ 희토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21)

- 조선희토류센터는 희토류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과학기술성과 발표회를 진행하였음. 김일성종합대학 기초과학센터 신계룡 박사가 동식물의 성장에 희토류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과 의의, 그 응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음.
- 동, 아연, 칼슘과 같은 미량원소나 질소고정균과 같은 미생물을 결합시켜 만든 희토류미량비료가 이용되고 있음. 희토류미량비료는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시키고 수확고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사용량이 적어 경제적임. 희토류미량비료는 알곡, 채소, 공예작물, 과일 생산에 도입되고 있으며 희토류원소를 착화합물형태로 만든 희토류미량첨가제도 축산부문에서 널리 이용하고 있음. 희토류미량첨가제는 동물의 무게를 늘리고 가축이나 물고기의 면역력을 높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

○ 황해북도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의 축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6. 13)

- 황해북도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은 풀판조성을 위해 영양가가 높고 수확이 많은 풀씨를 과학기술적으로 생산하는데 힘을 쏟았음. 농장은 산이 많은 조건을 이용하여 자연풀판을 기본으로 지난 봄철에 많은 면적의 축산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농장은 우량품종의 가축 수를 늘리기 위해 앞선 새끼생산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올해 수백마리의 새끼염소를 생산하였음. 가축 수가 늘어남에 따라 축산물 생산량이 증가하여 지난 5월 한달 동안에만도 여러 가지 젖제품을 생산하였음.

○ 현대적인 축산기지 조성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15)

- 경제난, 식량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김정일은 대대적인 초식가축 사육방침, 현대적인 닭공장, 염소목장, 소목장, 타조목장 건설방침, 기존 닭공장들과 오리공장의 개건현대화방침 등 혁명적인 조치를 취했음. 현대적인 닭공장 건설을 비롯해 염소목장, 소목장, 메기공장 건설도 인민군대에서 시작되어 전국에 일반화되었음. 인민군대에서 건설한 가금목장을 방문한 김정일은 현대적인 목장을 많이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을 풍족하게 먹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그리고 이미 마련된 축산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축산물 생산을 적극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모든 공정이 현대화된 112호닭공장, 황주닭공장, 9월27일닭공장, 강계닭공장과 평안북도닭공장, 구성닭공장, 안주닭공장 등이 도처에 새로 건설되고 대규모 만경대 닭공장과 서포닭공장, 룡성닭공장, 하당닭공장, 승호닭공장이 개건현대화되어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음. 이와 함께 김정일의 구상에 따라 평양시 닭공장 개건현대화가 추진되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6개의 대규모 공장을 개건현대화되었음.
- 김정일은 초식가축 사육과 풀판조성, 염소목장과 메기공장 건설도 인민군대가 본보기를 창조하고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하였음. 전국 도처에서 인민군대의 모범을 본받아 현대적인 염소목장이 건설되고 초식가축 사육과 풀판조성에 일대 비약이 일어났음. 이로써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5개의 축산전문협동농장과 구성시 남산협동농장 종합축산분장, 황해남도 계남목장과 황해북도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 함흥시 청년염소목장, 소목장과 타조목장 등 전국 도처에 현대적인 축산기지가 조성되었음.

○ 축산성과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30)

- 당의 초식가축 사육 장려정책에 따라 축산업 발전에서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염소사육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염소 마리수와 젖생산을 훨씬 늘리고 수십만 정보의 풀판을 새로 조성하였음. 농업성 축산관리국은 종자혁명을 기본으로 가축우리 건설과 풀판조성을 잘하고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 도입에 힘을 쏟고 있음.

- 계남목장과 황해북도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은 축산기지를 보다 현대화하고 우량품종의 염소를 널리 보급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 김책시 상평축산전문협동농장, 구성시 남산, 정주시 룡포, 신포시 양화협동농장 등 여러 단위에서 더 많은 고기와 염소젖을 생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함경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각지 농촌들은 아카시아, 칩, 오리새, 토끼풀 등을 심어 풀판을 가꾸고 있음.

□ 축우

- 김정일의 조선인민군 제580군부대의 7월18일소목장 시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5, 민주조선 4. 6)

-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제580군부대의 7월18일소목장을 시찰하였음. 김정일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자체적으로 대규모 소목장을 단기간에 건설한 것에 대해 큰 만족을 표시하였음. 김정일은 목장을 대규모 축산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후생시설 건설과 풀판도로 포장 등을 몇 달 안에 서둘러 끝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또한 최근 여러 목장의 경험이 수익성과 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을 사육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하면서 지대적 특성에 적합한 소종자를 연구개발하고 생산에 도입하는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김정일은 축산에서 먹이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료밭의 지력을 높이고 영농작업의 기계화를 실현하여 알곡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뒤이어 김정일은 인민군 군인들이 새로 건설하게 될 오리공장 부지를 정해주고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오리공장을 건설하도록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었음.

□ 염소

- 함경남도 함흥시 청년염소목장의 축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4)

- 지금으로부터 3년 전 5월, 김정일은 함경남도 함흥시 청년염소목장에서 우량품종을 받아들여 염소 마리수, 염소젖과 젖가공품 생산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현지지도하였음. 목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김정일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해 해발 500~1,700m에 110동의 염소우리와 53개의 염소분장을 건설하고 150리에 달하는 운환선도로를 포장하였음. 관리공들은 어미염소 사양관리를 잘하여 이미 올해에 수천 마리의 새끼염소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목장은 현대적인 젖생산 및 가공기지 조성사업을 벌려 젖짜는 실은 50개, 젖가공장은 3개나 건설하였으며 현대적인 설비를 과학기술적으로 이용하여 염소젖과 젖가공품 생산량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몇 배로 늘렸음. 목장에서는 매일 여러 대의 차로 염소젖과 젖가공품을 시내 상업망에 운반하여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 목장은 먹이원천 확보를 위해 풀판조성과 종합먹이가공장 건설에 힘을 쏟았음. 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산경사지를 정리하고 해마다 풀씨를 심어 3,000여 정보의 풀판과 먹이작물밭을 조성하였음. 이 풀판을 따라 5월부터 10월까지 이동방목을 실시하여 먹이문제를 해결하게 됨. 이와 함께 겨울철 염소먹이 확보를 위해 종합먹이가공장과 클로렐라배양장 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
- 평안북도 피현군 하단협동농장의 축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6. 8)
- 평안북도 피현군 하단협동농장은 양, 염소 종자를 늘리는 동시에 우리를 확장하고 산골짜기에 방목지도 조성하였음. 이와 함께 먹이준비를 잘하고 겨울철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가축 수를 늘렸음. 농장은 가축 수 증가에 따라 새로운 방목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풀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함경남도 정평군 장천협동농장 청년염소분장의 젖가공품 생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9)
- 함경남도 정평군 장천협동농장은 현대적인 염소우리를 건설하고 수백 마리의 우량품종 염소를 사육하면서 염소젖가공기지에 최신식 설비를 갖추고 영양가 높은 여러 가지 젖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음. 농장의 청년염소분장은 염소젖 생산을 늘리기 위해 올해 수백 마리의 새끼염소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염소관리공들은 방목을 통해 어미염소들의 영양상태를 향상시켜 마리당 젖생산량을 늘리고 가공기지에서는 치즈, 요구르트, 케피르, 젓두부 등을 생산하여 어린이들과 농장원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 염소젓가공품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27)

- 올해 각지 농촌들에서 초식가축을 대대적으로 사육하는 가운데 염소를 기르는 단위들은 젓생산이 증가에 맞게 젓가공품생산에 보다 큰 힘을 쏟아야 함. 젓가공품 생산을 적극 늘리기 위해서는 젓가공시설을 잘 갖추어야 함. 염소를 기르는 모든 단위들은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젓가공시설 조성사업을 벌이고 설비를 현대화해야 함. 도와 시, 군들에 건설된 염소목장들에서 현대적인 젓가공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함.
- 또한 젓가공에 필요한 균을 자체로 생산해야 함. 과학자, 기술자들은 염소젓 가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균 생산에 힘을 쏟도록 하고 염소젓 생산기지들은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젓가공에서 표준조작법을 준수해야 함.
-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은 산을 이용하여 골짜기마다 수천 마리의 염소를 사육하고 여러 가지 염소젓가공품을 평양 시내 여러 단위에 공급하고 있음. 올해 4월초부터 농장에서 생산한 젓량은 무려 100여 톤으로 청년젓가공반은 젓가공속도를 높여 날마다 질 좋은 여러 가지 젓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음.
- 평안북도 정주시 룡포협동농장은 염소방목을 순환식으로 하고 어미염소의 영양상태에 따라 젓까지를 잘하여 젓생산을 늘리고 있음. 관리공들은 방목 시 영양가 높은 풀을 먹이기 위해 애를 쓰고 방목지에서 돌아와서도 어미염소관리에 정성을 다하고 있음.

□ 가금

○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제 233군부대 오리공장과 양어장을 시찰하였다고 보도(로동신문 3. 16, 민주조선 3. 16)

-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제 233군부대 오리공장과 양어장을 시찰하였음. 김정일은 오리공장 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대규모 오리고기생산기지를 자력으로 훌륭히 건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여 병사들의 식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에 크게 만족을 표시하였음.
- 김정일은 오리공장의 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먹이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속농장의 지력을 높이고 영농작업의 기계화를 실현하여 알곡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이와 함께 우량품종의 오리를 엄선하

여 사육하고 과학기술적으로 사양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축산물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축산과 개인축산을 배합하도록 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하면서 모든 농가에서 거위, 오리 등 가축 사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하였음.

- 이어 김정일은 군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어장을 돌아보았음. 김정일은 양어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화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양어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선진적인 사양관리방법을 도입하여 물고기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오리사육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30)

- 각지 축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부대 오리공장들과 같이 고기와 알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 각 오리공장에서는 인민군부대의 모범을 본받아 오리 먹이를 자체적으로 생산보장하기 위해서는 먹이밭의 지력을 높여 알곡소출을 늘리며 대용먹이를 적극 이용해야 함.
- 또한 먹이를 적게 먹으면서 빨리 자라는 우량품종의 오리를 확보하고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함. 이와 함께 축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동축산과 함께 개인축산을 배합하도록 한 당의 정책을 관철해야 함. 각 농촌의 모든 농가에서는 오리, 거위 등 가축 사육을 균등적 운동으로 적극 추진해야 함.
- 두단오리공장은 오리사육방법을 과학화, 현대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음. 관리공들은 오리의 나이별로 호수를 4개로 나누고 그에 따라 먹이를 공급하고 있으며 새끼오리에 대한 첫 먹이주기와 온도보장, 흐름식 물주기, 복합 미생물에 의한 냄새 없애기 등을 과학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함경남도 영광군 기상축산전문협동농장

- 함경남도 영광군 기상축산전문협동농장은 종축작업반 종금분조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천 개의 오리알을 부화시킬 수 있는 알깨우기실에서 온도를 정확히 보장하고 알굴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알깨우기율을 높이고 있음. 각 농장원 세대에서도 오리알깨우기가 한창임.

○ 타조사육의 역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9)

- 1997년 11월, 김정일은 세계가금업 발전의 추세를 볼 때 타조를 기르는 것이 경제 적이며 타조생산품이 인기가 높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타조를 사육해볼 것

에 대해 언급하였음. 그러나 타조를 인공적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가 많이 들고 넓은 타조사육장을 필요로 하는 바, 일부 나라의 타조사육은 제한된 범위에서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 그러나 김정일은 타조알 생산만이 아니라 타조고기와 그 가공품도 생산하도록 타조사육에 대한 구상을 펼치면서 해당부문 일군들이 타조사육에 대한 도서와 기술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고 일군들을 다른 나라에 파견하여 타조사육에 대한 경험을 습득하도록 하였음.

- 1998년 5월부터 타조목장 건설사업이 시작되었음. 해당부문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600마리 정도의 타조를 사육할 수 있는 부지를 정하고 타조사 2동, 보조건물 3동 등 석달 만에 타조목장을 완공하였음. 김정일은 타조목장 건설정형을 보고받은 뒤 타조는 고기와 가죽생산성이 소보다 높기 때문에 타조목장을 운영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하면서 타조목장을 보다 큰 규모로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김정일의 타조목장 확장공사 방향과 단계별 목표에 따라 타조목장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1998년 말까지 여러 동의 타조사와 알깨우기장을 건설하고 타조사를 추가로 건설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타조사육은 타조목장 확장공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타조사육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타조알 깨우기율은 50%에도 이르지 못했음. 김정일은 타조알 깨우기율을 높이기 위한 가르침과 함께 타조사육 관련 도서를 보내주었고 과학자, 기술자들은 김정일이 보내준 참고도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식의 알깨우기 방법을 연구도입하는데 성공하였음. 이로써 3년이라는 기간 안에 타조목장이 완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조생산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음.

- 2000년 12월, 김정일은 타조목장을 방문하였음. 타조목장은 김정일의 의도대로 타조를 겨울에도 기를 수 있게 타조사 벽체와 천장을 우리나라 겨울철 평균온도와 해비침각도를 타산하여 우리 식으로 특색있게 건설되었음. 김정일은 고기가공, 냉동을 비롯한 타조고기가공설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조성하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주었으며 타조목장을 더 확장하기 위한 문제, 먹이보장기지문제 등을 밝혀주었음.

○ 함경남도 광포오리공장 현대화공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20)

- 함경남도 광포오리공장 현대화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진행 중임. 함흥시, 홍남시, 북청군을 비롯한 시, 군돌격대원들,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등 여러 단위의 기술자, 건설자들이 동원된 가운데 종자오리우리, 새끼오리우리, 비육오리우리 등이 건설되었고 공장 구내에 3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졌음. 그리고 상수도공사, 내부전기망공사, 먹이 및 물 공급선 설비공사를 앞두고 있음.

○ 각지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24)

- 자강도 홍주닭공장 건설지휘부는 공장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해 설비조립과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도내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비육직장과 고기가공직장의 설비조립을 끝내고 사료가공직장 설비조립을 계획보다 10일이나 앞당겨 끝낸데 이어 먹이를 생산하고 있음. 한편 알깨우기실과 닭우리의 설비가 완공되어 알깨우기와 닭사양관리가 진행되고 있음.
- 황해남도 신천군 호암협동농장은 모범적으로 오리, 거위를 사육하고 있는 작업반, 가정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고기와 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평안북도 구성시 금산협동농장은 농장원 세대당 10마리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도록 비육분조에서 많은 가축을 길러 농장원 세대에 공급하고 있음.

□ 토끼

○ 토끼기르기 가정수첩을 소개(로동신문 4. 24)

- 평안북도 신의주시편의봉사관리소 역전작업반 김정화, 문경희는 지난 10여년 간 토끼를 사육하면서 토끼기르기 가정수첩을 작성해오고 있음. 수첩에는 토끼 품종별 특성과 겨울, 봄, 장마철 사양관리에서 주의할 사항, 병 예방에 쓰는 약과 치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 계남목장

○ 계남목장 확장 제3단계공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7)

- 황해남도에서 계남목장 능력확장을 위한 제3단계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 공사는 축산제1, 2분장에 수천 마리의 염소를 더 기를 수 있는 염소우리와 부속건물을 새로 짓고 해주시 광석천 유원지에 계남목장 특산물식당을 건설하게 됨.
- 돌격대지휘부는 부족한 골재원천을 동원하고 필요한 운반수단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장연, 삼천, 신천, 재령, 신원, 웅진군돌격대는 여러 가지 자재를 마련한데 이어 여러 동의 염소우리 건물기초와 벽체쌓기를 끝냈으며 안악군돌격대는 광석천유원지 계남목장 특산물식당 건물의 기초타입을 끝내고 벽체쌓기를 진행하고 있음.

○ 황해남도 계남목장의 축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6. 15)

- 2003년 6월 17일, 김정일은 황해남도 계남목장을 방문하여 가축우리, 착유실, 젓가공공장을 돌아보면서 훌륭한 목장을 건설한 것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음. 김정일은 계남목장이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대규모 축산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었으며 우량품종 가축들과 현대적인 가공설비를 지원해주었음.
- 목장은 김정일의 현지지도에 따라 목장의 능력을 확장하고 보다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5천여 정보의 산판에 여러 가지 가축을 기르고 남방과일을 생산하며 가축먹이를 다량 가공하는 대규모 종합적인 축산기지로 성장하였음.
- 축산 제1분장은 돼지우리 5동, 염소우리 4동이 있으며 수백kg이나 되는 우량종 돼지를 2개 호동에서 사육하고 있음. 돼지우리는 계절적, 수의학적 특성에 맞게 실내우리와 야외놀이장으로 구분되어 있음. 축산 제2분장의 염소우리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할 수 있게 건설되었음.
- 젓가공공장은 젓을 계량하는 공정에서부터 버터, 치즈, 케피르 등 젓가공품 생산에 이르는 전 공정이 최신식 설비로 이루어져 있음. 각 축산분장에 건설된 먹이지장과 먹이가공시설도 해마다 계절에 관계없이 수백 톤의 풀절임과 마른 풀을 저장 및 가공할 수 있음.

4. 감자농사

-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 따라 량강도 대홍단군을 비롯한 북부고산지대를 중심으로 감자파종 준비와 물거름, 흙보산비료 등의 거름내기, 감자 파종, 감자재배 동향을 보도하고 있음

□ 감자농사 준비

○ 함경남도 장진군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6)

- 함경남도 장진군은 감자농사를 준비하면서 각 협동농장 작업반의 매개 분조마다 2개 이상씩 흙보산비료생산기지를 만들어 질 좋은 흙보산비료를 감자밭에 내고 있음. 련화산 기슭에 자리한 메물협동농장은 나무발구를 이용하여 산비탈감자밭에 거름을 실어나르고 있음.
- 감자조직배양실은 멸균공정에서부터 배양액 제조, 접종, 배양 등 모든 공정에서 온도와 빛 보장, 감염방지대책을 세워 배양모를 튼튼히 키우고 있음. 이미 군내 곳곳에 온실과 배양실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무바이러스 감자종자를 대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질 것으로 전망됨.
- 군에서는 올해 감자농사에 사용할 거름 중에서 흙보산비료의 비중을 높이기로 하고 니탄매장지 또는 부식토 원천지 가까이에 흙보산비료 생산기지를 지었음. 새로 지은 흙보산비료생산기지는 이동식으로 귀틀집 바닥에 구멍을 내고 불을 때서 흙보산비료를 생산하게 되는데 니탄이나 부식토를 흙보산비료로 전환시킨 다음에 거름성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덮어놓고 다음 감자밭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흙보산비료를 감자밭에서 만들고 있음.

○ 농사차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20)

- 량강도 대홍단군, 삼지연군, 보천군과 백암군에서는 감자종자 확보와 적지 선정 등 농사차비가 한창임. 대홍단군은 질 좋은 니탄흙보산비료 생산을 위해 니탄캐기

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물거름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수천 톤이나 더 생산하였음. 삼지연군은 거름생산계획량을 초과달성한데 이어 실어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백암군은 감자밭에 지난해보다 정보당 10톤의 거름을 더 내기 위해 거름과 함께 니탄흙보산비료를 생산하여 밭에 내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농사차비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21)

- 량강도 대흥단군은 감자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 감자종자 싹틔우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였음. 관리공들은 싹틔우기에 적합한 최적의 온습도, 빛조건을 보장하고 운반과정과 심을 때 싹이 떨어지지 않도록 크기를 알맞게 보장하였음. 또한 밭에 거름을 충분히 내고 평당 포기수를 보장하면서 감자심기실적을 높이고 있음.
- 량강도 대흥단군 서두농장은 감자씨불임 준비가 한창임. 제7작업반은 정보당 수십 톤의 질 좋은 거름을 내기 위해 물거름, 흙보산비료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산한 거름을 경지별, 필지별 토양특성에 맞게 실어내고 있음. 제1, 3작업반에서는 종자 고르기와 여러 회 뒤지기를 끝내고 냉상처리장 준비를 비롯하여 싹틔우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음. 농장에서는 각종 농기계 수리정비와 예비부속품을 넉넉히 마련해나가고 있음.
- 량강도 대흥단군 농기계작업소는 부속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앞선 기술과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농기계부속품 생산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수리작업반은 농기계수리정비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수리정비를 기술규정대로 하고 있음.

□ 파 종

○ 함경남도의 통알감자심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5)

- 함경남도 단천시와 북청군은 앞그루감자종자를 냉상처리하여 적기에 질적으로 심고 있음. 감자를 냉상처리하면 앞그루감자 생육기일을 앞당기고 뒤그루작물 심기를 제철에 할 수 있음. 정평군은 감자종자를 통알로 확보하고 냉상처리를 한 뒤 감자밭에 거름을 충분히 냈음. 남창, 문창, 창신희동농장을 비롯한 정평군 내 협동농장에서는 비옥하게 가꾼 감자밭에 냉상처리하여 싹이 튼 통알감자종자를 주체농법에 맞게 질적으로 심고 있음.

- 함주군은 앞그루감자농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무바이러스 감자종자를 심고 있음. 군에서는 감자조직배양공장을 운영하여 무바이러스 감자종자를 생산, 확보하고 동봉, 조양, 재안협동농장 등 군내 협동농장에서 무바이러스 감자종자를 이모작농사 앞그루로 심고 있음.

○ 량강도 대흥단군의 감자심기가 시작되었다고 보도(민주조선 4. 28)

- 량강도 대흥단군은 감자심기에 앞서 감자종자 저장실에서 다수확우량품종의 감자종자 싹틔우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감자밭에 거름과 흙보산비료, 물거름을 냈음. 군농업경영위원회는 농장별로 감자심기일정계획을 세운데 이어 대흥단식 과학농법으로 감자를 심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 삼봉, 신덕, 농사동, 창평농장에서는 일손과 기계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감자심기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홍암, 서두, 신흥농장을 비롯한 군 내 농장들은 트랙터와 갈이수단을 이용하여 밭갈이를 앞세우고 종합과종기의 가동률을 높여 감자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량강도 대흥단군의 감자심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2)

- 량강도 대흥단군은 거름생산 및 운반, 감자종자싹틔우기 등 감자농사준비를 끝내고 감자심기에 일손과 기계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음. 홍암농장은 감자심기계획에 따라 트랙터, 감자과종기의 가동률을 높여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삼장, 삼덕, 신덕농장 등에서도 평당 포기수, 깊이 등을 보장하면서 과학기술적으로 감자를 심고 있음.

○ 량강도 백암군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4)

- 량강도 백암군은 거름생산과 흙보산비료 생산계획을 수행하고 무바이러스 잔알감자 생산에 힘을 쏟았음. 각 농장에서는 봄갈이, 씨레치기를 앞세우고 질 좋은 거름을 이랑마다 낸 뒤 통알감자를 심고 있음.
- 량강도 백암군 농기계작업소는 감자심기에 앞서 군내 모든 트랙터를 수리정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음. 각 수리직장들은 밤낮없이 계획된 수리부속품을 생산하고 작업소 근로자들은 각 농장기계화작업반에 나가 트랙터 수리정비를 지원하고 있음.

○ 자강도 랑림군의 감자심기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6)

- 자강도 랑림군은 주체농법에 맞게 밭갈이에서부터 거름퍼기, 감자심기 등 모든 작업공정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읍협동농장, 문악협동농장에서는 감자심

기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중협동농장도 포전별, 필지별로 감자심는 날짜를 정해 감자심기를 다그치고 있음. 인산협동농장은 부림소를 이용하여 밭을 갈고 거름을 많이 낸 뒤 감자를 심고 있음.

○ 량강도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1)

- 량강도는 올해 감자밭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1천여 정보 늘리고 감자농사준비와 관련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음. 이와 함께 갑산군 송암협동농장에서 감자심기에 대한 방식상학을 진행한데 이어 각 농장에서 감자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김형직군은 이미 계획된 면적에 감자심기를 끝냈고 갑산군은 감자심기 계획의 약 70%를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김정숙군, 백암군, 해산시를 비롯한 다른 군에서도 감자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량강도 대흥단군의 감자심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13)

- 량강도 대흥단군은 봄 날씨가 가물고 바람이 센 조건에서 종자싹의 마른 정도, 심한 일교차를 고려하여 포전별 감자심는 날짜를 정했음. 각 농장들은 유기질거름을 정당 평균 70~100톤, 물거름은 25~50톤씩 밑거름으로 충분히 내고 감자밭 이랑너비와 높이를 과학적으로 정한 뒤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종자를 적당한 깊이로 심고 있음.
- 창평농장은 파견된 제대군인들이 초급일군으로 성장하여 감자농사에 앞장서고 있음. 제대군인들은 올해 수백 톤의 거름을 생산하고 감자심기에서 대흥단식 과학농법을 준수하도록 분조원들을 이끌어어나가고 있음.
- 신흥농장은 다수확품종의 감자종자를 기술규정대로 심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일군들은 유기질거름, 물거름, 흙보산비료, 구운흙, 소석회, 재 등을 넉넉히 준비하여 구색에 맞게 밑거름을 내고 이랑을 과학적으로 지은 뒤 평당 포기수를 보장하면서 감자를 심고 있음.
- 성, 중앙기관들에서 대흥단군의 감자농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성, 중앙기관일군들은 농기계 부속품과 영농자재를 현지에서 직접 싣고 내려와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해주었으며 현지에서 감자심기를 도와주고 있음.

○ 량강도 대흥단군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21)

- 량강도 대흥단군은 제철에 질적으로 감자심기를 끝내고 당면한 영농작업에 박차

를 가하고 있음. 군은 감자농사 지원을 위해 현지에 파견된 중앙 일군들과 연계하여 감자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각 농장의 세대군인들과 그 아내들도 모범적으로 감자심기에 나섬으로써 감자심기를 제철에 끝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 재 배

○ 량강도 백암군의 농사 경험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4)

- 량강도 백암군은 지난해 대홍단식 과학농법으로 감자농사를 잘 짓기 위해 감자밭 지력 높이기와 일손부족문제 해결에 힘을 쏟았음. 군은 군내 거름원천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거름생산량이 계획의 70%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거름을 주민 주거지에서 생산하여 열차수송 등을 통해 각 협동농장, 농장들로 운반하고 동계지구에 니탄사업소를 조직하여 흙보산비료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였음.
- 한편 농장원 세대는 물론 노동자, 사무원 가정들과 농장 작업반, 분조마다 흙구이 시설을 갖추어 흙구이를 하는 등 군 곳곳에서 거름생산과 운반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두달 사이에 거름생산과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량강도 대홍단군의 영농기계화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9)

- 김정일은 량강도 대홍단군에서 감자농사혁명이 달성되도록 수많은 세대군인을 보내주었고 종합적 기계화의 본보기가 되도록 자동차와 농기계를 적극 지원해주었음. 감자심기에서부터 수확에 이르는 모든 영농공정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이 성과를 나타내는 가운데 지금 대홍단군은 봄에는 감자파종기를, 여름이면 김매는 기계로 밭을 정리하고 가을이면 감자수확기를 이용하고 있음.

○ 량강도 대홍단군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9)

- 량강도 대홍단군은 감자농사의 전반적 영농공정의 종합적 기계화, 물거름 생산조건 등 포기농사를 성과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져 있음. 군 일군들은 포기농사를 통해 감자농사에서 높은 성과를 거둔 홍암농장 제4작업반의 감자농사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조직하였음.
- 홍암농장 제4작업반은 우량품종의 통알감자 종자를 전면적에 평당 포기수를 보장하여 질적으로 심었고 비배관리 시 복을 3번씩 충분히 주었으며 덧거름도 적절히 주었음. 특히 물거름을 포기마다 묻어 주었음. 군내 모든 농장에서 포기농사를 실시하면서 일손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나 일군들은 대중의 작업

열의를 북돋우면서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는 등 포기농사를 더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나가고 있음.

○ 량강도 대홍단군의 감자밭 가꾸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21)

- 량강도 대홍단군 농업경영위원회는 홍암농장 제4작업반에서 감자밭 가꾸기에 대한 방식상학을 진행하고 각 농장들에 감자밭 가꾸기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홍암농장을 비롯해 서두, 창평, 삼봉 등 다른 농장들에서도 복주기를 질적으로 하면서 병해충 및 역병 방지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량강도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22)

- 량강도 대홍단군은 감자밭에 중경제초기로 복주기를 하면서 물거름을 동시에 내기 위해 중경제초기에 설치할 물거름주기장치를 제작하였음. 군은 수십 대의 중경제초기에 물거름주기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농사동, 신흥농장을 비롯한 각 농장에서 짧은 기간에 계획한 물거름 주기와 2회 복주기를 성과적으로 끝냈음.
- 량강도 삼지연군에서는 제대군인들이 감자밭 김매기에 적극 나서고 있음. 중흥농장 제1작업반은 제대군인들의 솜씨수범을 보이는 가운데 감자밭 2회 김매기를 끝냈으며 보서, 백두산, 중토장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의 제대군인들도 김매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 량강도 백암군 동계협동농장 제4작업반은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 운영계획에 따라 10일에 한번씩 운영을 정상화하고 작업반의 농업과학기술학습 정형을 일지에 기록하고 있음.

□ 국제감자과학토론회

○ 국제감자과학토론회 개최소식을 보도(로동신문 6. 19, 민주조선 6. 19)

- 국제감자과학토론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국제기구, 각국 대표 및 대사관 성원들을 비롯해 농업과학원, 농업성 일군들,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참가하였음. 농업과학원 계영삼 원장은 개막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식량문제 해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자농사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생산을 늘리고 그 이용분야를 넓혀나가기 위한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토의할 것에 대해 말하였음. 토론회에서는 농업과학원 량희운 부교수의 ‘우리나라 감자연구와 발전전망’, 국제감자센터 동부 및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

대표 페르난도 엔, 에제타의 ‘감자생산과 이용의 세계적 추세’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음.

○ 량강도의 감자밭 김매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20)

- 량강도 내 농촌들에서 감자밭 김매기가 한창임. 대흥단군은 현대적인 농기계의 가동률을 높여 김매기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김형직군은 후치질을 앞세워 1회 김매기를 끝냈음. 풍서군, 갑산군은 일손조적을 합리적으로 하고 일일 총화사업을 벌려 김매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5. 이모작

- 당의 이모작농사방침은 경작지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식량문제를 가장 빠른 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정당한 방침임. 당의 이모작농사방침 관철에서 중요한 것은 이모작농사를 적극 장려하여 이모작농사면적을 늘리면서 알곡 대 알곡, 알곡 대 감자를 위주로 하여 수확고를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임
- 평안북도 신의주시 송한협동농장 감자분조의 생활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7)
 - 평안북도 신의주시 송한협동농장 감자분조는 지난 1월 말에 개최된 감자농사혁명 선구자대회 토론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지난해 분조농사과정을 되짚어 보았음. 분조에서는 압록강 연안에 자리한 돌투성이의 메마른 땅을 비옥하게 할 목표를 세우고 일반 밭에 내는 거름량의 3배나 되는 거름을 생산하기로 하였음.
 - 분조원들은 퇴적장에서 거름을 파내고 열두바닥파기를 하여 거름을 모았으나 계획량에 미치지 못하자 두 개 조로 진거름생산조를 조직하였음. 진거름생산조는 남신의주와 송한동에서 120일 동안 진거름을 모아 매일 소달구지로 6~7회씩 운반하여 감자밭과 강냉이밭에 정보당 60톤씩 냈음.
 - 이와 함께 앞그루감자와 뒤그루강냉이를 적기에 심기 위해 모든 분조원들이 단위 시간 내에 작업능률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조직사업을 벌려 앞뒤그루작물 심기의 적기보장과 가꾸기를 성과적으로 해냈음.
- 자강도 장강군 협동농장들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21)
 - 자강도 장강군 읍협동농장은 산기슭에 계단식 태양열온실을 조성하여 앞그루감자 싹틔우기를 하고 있으며 장평협동농장은 이모작 재배면적이 늘어난 조건에서 거름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유기질거름과 흙보산비료 생산 및 운반작업에 대중들을 적극 동원하고 있음.
- 앞그루작물 심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21)
 - 황해남도 연안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정춘, 오현협동농장에서 방식상학을 조직

하고 앞그루감자를 제철에 질적으로 심는데 힘을 쏟고 있음. 오현, 읍협동농장은 거름과 흙보산비료를 내고 냉상처리한 통알감자를 심고 있음. 도남, 발산, 봉덕협동농장은 품종과 땅의 특성에 맞게 평당 포기수를 정하고 감자심기를 주체농법대로 하고 있음.

- 함경남도 홍남시 수도협동농장의 각 작업반에서는 여러 가지 같이수단을 총동원하여 밭갈이를 끝내놓고 거름을 충분히 낸 뒤 감자를 심고 있음. 특히 제2, 3작업반은 같이와 거름주기, 평당 포기수 보장을 주체농법에 맞게 하면서 감자심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 평안북도 염주군 도봉협동농장의 이모작 재배방법 개선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27)

- 평안북도 염주군 도봉협동농장은 전면재배방법으로 실시한 이모작농사의 소출이 높지 않은 원인이 앞뒤그루농사가 겹치는 시기의 일손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있음을 파악하고 시범적으로 감자와 강냉이를 겹재배하였음. 농장은 여러 가지로 겹재배방법을 달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겹재배방법을 찾아내서 지난해에는 겹재배방법으로 세벌농사를 하여 성과를 거두었음.

○ 황해남도의 앞그루 감자모 옮겨심기작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3)

- 황해남도 농촌경리위원회는 지난 시기의 감자농사경험을 분석한 것에 기초하여 다수확 감자종자 확보와 적지 선택을 바로 하고 영농공정별 기술지도를 강화하였음. 연안, 안악, 재령군 내 협동농장에서는 운반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평당 감자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감자모를 옮겨심고 있음. 강령, 벽성, 웅진군 등에서는 지난해보다 감자재배면적이 늘어난 조건에 맞게 배수로치기와 논밭갈이를 앞세우고 감자모 옮겨심기를 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개성시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29)

- 개성시는 공장, 기업소 등에서 마련한 거름을 3차례에 걸쳐 실어내고 4만여 점의 소농기구, 영농자재를 마련하여 농촌에 보내주었음. 이와 함께 계획대로 이모작농사를 진행하여 봄보리심기가 계획보다 2.2배나 수행되고 이미 감자와 콩밭에 정보당 20톤 이상의 거름과 1톤 이상의 흙보산비료를 냈음.

○ 황해남도 봉천군의 이모작농사 경험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4)

- 황해남도 봉천군 당위원회는 이모작 재배면적을 대대적으로 늘리면서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서 종자확보사업을 벌리도록 하고 군당위원회 일군들을 각 협동농장

작업반, 분조에 파견하여 이모작농사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해설사업을 실시하였음. 당위원회는 초급일군들을 대상으로 이모작농사 경험 소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일군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각 영농과정별 좋은 경험을 찾아내고 제때에 알려주도록 하였음. 이로써 각 협동농장 별로 지대적 특성에 맞는 이모작농사 경험이 창조되고 널리 일반화되었음.

- 지난해 말, 이모작재배면적 확장과 함께 군당위원회에서는 이모작농사에 대한 방식상학을 각 협동농장에서 한번씩 진행하여 좋은 경험을 한가지씩 내놓도록 하였음. 군당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이 모든 협동농장의 작업반, 분조에 내려가 이모작농사 과정에 이룬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좋은 경험을 내놓았고 이모작농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여러 단위에서 내놓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음.

○ 평안북도 정주시 압두협동농장의 기계화 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18)

- 평안북도 정주시 압두협동농장은 흙을 덮어주는 작업량이 방대한 밀심기를 적기에 끝내기 위해 밀밭의 고랑을 만들면서 흙을 덮는 농기계 제작사업을 추진하였음. 수리분조와 기계화작업반이 적극 나서서 자체적으로 여러 대의 흙덮어주는 기계를 생산하였고 앞그루밀농사를 제철에 질적으로 지을 수 있었음.
- 또한 농장에서는 앞그루작물 씨뿌리기와 뒤그루작물 가을걷이가 겹치는 시기에 트랙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기름과 부속품을 차질없이 공급하여 앞그루작물 심기를 제철에 성과적으로 끝냈음.

○ 황해북도 토산군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28)

- 황해북도 토산군은 이모작농사면적을 늘리면서 알곡 대 알곡, 알곡 대 감자를 위주로 하여 수확고를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군에서는 감자밭에 거름과 흙보산비료를 내고 통알감자를 제철에 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강냉이밭 70%의 면적에 영양단지모를 내는데 힘을 쏟고 있음.

○ 황해남도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1)

- 황해남도 청단군은 종자문제를 해결하고 대용비료를 충분히 마련하여 씨뿌리기를 제철에 진행하였으며 비배관리를 잘하고 있음. 청단읍협동농장을 비롯해 청정, 화산, 양화 등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밀, 보리의 생육을 위해 영양관리대책과 습기 및 병해충 피해방지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연안군 연안읍협동농장을 비롯한 정춘, 소정, 발산 등 각 협동농장들은 경험을 살려 밀, 보리 가꾸기에서 제기되는 기술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음. 배천군 수원농장은 밀, 보리씨뿌리는 기계를 제작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성, 추정협동농장 등은 생육시기별 기술조건에 맞게 밀, 보리를 관리하고 있음.

○ 각지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11)

-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은 이모작 재배면적을 확정하는데 이어 거름생산과 종자확보, 관수 준비를 끝마쳤음. 각 작업반들은 이모작 재배지에 물을 보장하고 비료를 기술규정대로 내는 등 앞그루작물 비배관리를 주체농법에 맞게 진행하고 있음.
- 량강도 풍서군 관흥협동농장은 관수조건이 좋고 기계화에 유리하며 감자 대 채소, 보리 대 채소 등을 심을 수 있는 땅을 적지로 선정하고 씨불임을 제철에 지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 농장에서는 앞그루 보리와 감자심기를 끝내고 뒤그루농사차비를 하고 있음. 우포, 신명협동농장은 이모작 재배지에 정보당 60톤 이상의 질 좋은 유기질거름과 흙보산비료를 내고 앞그루 감자와 보리씨불임을 적기에 끝냈음.

○ 문금희가 일하는 농장 제7작업반의 농사 경험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2)

- 문금희가 일하는 농장 제7작업반은 이모작농사 초기 강냉이 사이그루로 강냉콩과 들깨를 조금씩 심고 밭 둘레에는 줄당콩을 심었으며 강냉이 뒤그루로 김장용 채소를 심었음. 그러나 단벌농사를 지을 때와 알곡수확고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당의 방침대로 알곡 대 알곡 이모작농사를 짓기 위해 거름생산에 총력을 기울였음.
- 작업반에서는 10여리 떨어진 읍에서 도시거름을 실어들여 해마다 300여 톤의 가루거름과 1,000여 톤의 퇴비를 생산하여 땅을 비옥하게 가꾸고 수확고를 높였음. 작업반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모작 재배면적을 계속 확장하면서 서해안 북부지방의 기후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겹재배방법으로 지난해 세벌농사를 짓는 성과를 거두었음.

○ 황해북도 신계군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2)

- 황해북도 신계군은 고구마 생산지로 유명함. 정봉협동농장은 지난 3월 20일까지 지표별 자급비료 준비를 끝냄으로써 정보당 20톤씩 낼 수 있는 비료가 마련되었음. 농장에서는 모내기과 강냉이파종, 고구마심기가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조건에서 일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구마밭 이랑짓기를 3월말 전까지 끝냈음. 이

농장의 고구마밭 이랑짓기방법은 파종시기 전에 먼저 진거름물에 적신 강냉이짚을 정보당 5톤 정도 고랑에 깔고 자급비료와 소토를 충분히 넣은 뒤 이랑을 지어 놓음. 그 다음에 모내기와 강냉이파종시기에 일손을 집중하다가 비가 내리는 날을 택해 이랑에 구멍을 뚫고 고구마순을 심음으로써 작업효율을 높였음.

- 감자와 고구마 농사방법이 전국적으로 소개된 바 있는 침교협동농장 7작업반은 밭마다 규모있게 거름더미를 쌓아놓고 정보당 시비량을 기술지표대로 내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각지 협동농장에서 고구마농사에 적합한 온도 및 통기조건 등 과학기술적 이치를 해설해주고 있음. 농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 농업과학지도일군들로 구성된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돌격대'는 이미 여러 해에 걸쳐 과학연구사업과 도입시험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돌격대에서는 신계군에서 적지적작, 적기적작을 과학화하고 이모작농사를 위한 품종선택과 시비방법을 확증한데 이어 새로운 품종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각지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3)

- 함경남도의 각 협동농장들은 앞그루감자심기를 질적으로 끝낸데 이어 벼모판씨뿌리기를 한 뒤 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각 시, 군에서는 모내기준비를 한데 이어 씨레치기를 앞세우고 있음. 각 협동농장에서 강냉이심기가 마무리단계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봄철 가뭄에 대비해 양수기, 강우기 수리정비와 굴포, 우물, 지하저수지 보수작업이 한창임. 장진, 부전군에서는 감자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황해남도 태탄군 류정협동농장은 인력을 조직하고 영농공정별 기술지도를 실시하면서 밀, 보리, 감자의 생육을 왕성하게 하고 있음. 운산협동농장 청년작업반은 50여 정보의 밀밭 가꾸기에 힘을 쏟고 있으며 과산, 부양협동농장은 앞그루밀, 보리, 감자농사에서 좋은 경험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음. 공세, 성남, 광탄협동농장은 밀거름을 내고 씨를 뿌려 밀, 보리, 감자밭을 관리하고 있음.

○ 농업성 농기계운영국의 이모작농사의 기계화 추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29)

- 농업성 농기계운영국은 이모작농사에 현대적인 농기계를 적극 도입하고 기존 농기계를 최대한 이용하여 기계화비중을 높이고 있음. 국은 올해 앞그루로 심은 밀, 보리 수확을 능률높은 농기계로 하기 위해 농업과학원 농업기계화연구소와 연계하여 앞그루 밀,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기계를 창안제작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이모작 재배단위에서 지대적 특성에 맞는 농기계를 도입하여 앞그루작물을 가을하도록 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당의 이모작농사방침 관철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6. 4)

- 당의 이모작농사방침은 경작지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식량 문제를 가장 빠른 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정당한 방침임. 당의 이모작농사방침 관철에서 중요한 것은 이모작농사를 적극 장려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식생활 조건을 마련해주려는 김정일의 뜻을 자각하는 것임.
- 이와 함께 농업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함.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이모작농사의 영농작업을 주체농법에 맞게 수행해야 함. 일군들은 이모작 재배면적을 계속 늘리며 좋은 종자를 받아들이는 문제, 농산작업에서 기계화비중을 높여 일손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관수대책을 세우는 문제 등을 해결해나가야 함. 그리고 앞선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널리 적용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해야 함.
- 당의 이모작농사방침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물질기술적 방조가 강화되어야 함. 농업과학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모작농사에 알맞은 여러 가지 종자를 육종하고 영농기술과 방법을 혁신해나가야 함. 해당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를 제때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앞그루작물 수확과 뒤그루작물 씨뿌리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에 농촌지원사업을 조직해야 함.

○ 황해남도 웅진군의 유채가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5)

- 황해남도 웅진군은 밀, 보리, 감자와 함께 앞그루로 심은 유채 가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각 협동농장들은 날짜별, 포전별 유채가을걷이계획을 세우고 일손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유채를 거두어들이는 대로 탈곡장에 운반하고 있음.

○ 앞그루감자 재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8)

- 각지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앞그루 감자밭 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황해남도는 앞그루 감자소출을 높이기 위해 김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평안남도는 개천-태성호물길을 이용하여 감자밭 관수를 제 때에 질적으로 하고 있음. 함경남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평안북도에서도 김매기와 물주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평안남도 성천군 삼덕협동농장의 이모작농사 경험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8)

- 평안남도 성천군 삼덕협동농장은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알곡 대 알곡, 감자 대 알곡을 기본으로 이모작농사를 하여 좋은 경험을 창조하였음. 농장 제2작업반

은 밭농사를 위주로 하는 지대적 특성에 맞게 앞그루 감자, 뒤그루 강냉이농사를 계획하였음. 작업반에서는 감자종자를 냉상처리한 뒤 잘 자란 모를 옮겨 심어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고 충하도 줄였음. 이에 따라 생육기일이 앞당겨져 좋은 품종을 배치하고 뒤그루작물을 제 철에 심었음.

- 농장에서는 제2작업반의 이모작농사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음. 농장일꾼들은 이모작 재배면적을 늘리는데 힘을 쏟아 제4작업반 3분조의 강냉이밭에 있던 돌담을 제거하는 등 이모작농사적지를 확정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알곡 대 알곡, 감자 대 알곡 농사를 짓도록 하였음. 이와 함께 6개의 양수장과 10여 개의 굴포, 우물을 이용하여 관수문제를 해결하였음. 이로써 농장은 알곡 대 알곡, 감자 대 알곡 이모작재배면적을 초기에 비해 수십 배로 늘렸으며 올해는 전체 논·밭의 60%의 면적에서 알곡 대 알곡 이모작농사를 짓고 있음.

○ 각지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6. 8)

-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에서 앞뒤그루에서 모두 높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작물의 생육기일을 보장해야 함. 이는 앞그루작물의 수확과 뒤그루작물 씨뿌리기 시기를 옹게 보장할 때 가능함. 당의 이모작농사방침에 따라 각지 농촌에서 이모작 재배면적을 체계적으로 늘리고 있으나 연료와 농기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앞그루작물 수확과 뒤그루작물 씨붙임을 6월 하순의 짧은 기간에 끝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임.
- 이모작농사에서 시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함. 부족한 일손문제를 풀기 위해서 영농작업의 선후차를 정해 계획대로 진행하며 앞그루작물 수확에 필요한 농기계 및 중소농기구를 미리 준비하고 난알운반과 건조대책을 세워야 함. 뒤그루작물 씨붙임을 제때에 하기 위해서 온습도가 높고 해가 많이 비치는 절기상 특성에 맞게 씨뿌리기날짜를 정하고 알맞게 자란 모를 내도록 함.
- 농기계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이모작농사에 필요한 농기계생산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각 부문과 단위에서는 앞그루작물 수확과 뒤그루작물 씨붙임 시기에 농촌지원사업을 벌려 영농물자와 자재 및 일손을 지원하도록 해야 함.
- 황해북도 은파군은 앞그루작물 가을과 뒤그루작물 씨붙임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 농기계 수리정비를 끝내고 부속품을 생산하였음. 이와 함께 트랙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운반수단을 확보하고 일손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음.

-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협동농장은 앞뒤그루농사의 시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손과 기계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일군들은 일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랙터 정비를 신속히 끝내도록 하고 작업반에서 합리적인 농기구를 총동원하였음. 그리고 기계화작업반에서는 곡면날식 회전물논써레치는 기계를 제작하도록 하고 있음.

○ 각지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11)

- 이모작농사에서 앞그루작물을 제때에 거두어들여야 뒤그루작물을 제철에 심을 수 있음.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은 앞그루작물 가을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함. 각지 농촌에서는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수리정비를 다그치며 앞그루작물을 수확하는 대로 실어들이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반수단을 충분히 마련해야 함. 또한 협동농장들은 탈곡기와 선풍기를 갖추어 낱알털기를 제때에 끝내야 함. 모든 단위와 기관, 기업소들은 해당 지역의 앞그루작물 가을준비를 물질기술적으로, 노력적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함.
- 평안북도 선천군은 모내기를 진행하면서 앞그루 밀, 보리 가을걷이도 차질없이 끝내기 위해 모내기에 사용할 농기계는 물론 탈곡기까지 수리정비하고 있음. 군농기계작업소와 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에서 부속품과 자재를 마련해가면서 트랙터와 모내는기계, 탈곡기 수리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수확한 앞그루작물을 제때에 건조, 보관하기 위해 도람통으로 낱알건조기를 만들어 탈곡장마다 낱알건조장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 강원도 철원군은 앞그루작물 가을을 위해 트랙터를 비롯한 운반수단의 수리정비를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하고 뒤그루 모내기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 문암협동농장은 부속품과 자재를 마련하여 낫, 호미 등 소농기구를 만들고 트랙터, 달구지 등 여러 가지 운반수단의 수리정비도 끝냈음.

○ 황해남도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14)

-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 연안읍, 소정 등 많은 협동농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감자수확과 모내기를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청단군 청정협동농장과 남촌농장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와 농기구 이용률을 높여 감자수확 실적을 올리고 회전식 써레치는기계를 이용하여 모내기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 배천군은 며칠동안에 감자캐기와 운반을 끝내고 모내기에 일손을 집중하고 있음.

○ 앞그루작물 수확작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15)

- 앞그루밀, 보리 가을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함경남도 금야군은 일주일 동안에 수 천정보의 앞그루밀, 보리 가을을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고 고원군 락천, 군내협동 농장, 함주군 상중협동농장에서는 앞그루밀, 보리 가을을 빨리 끝내고 탈곡과 보 관작업에 힘을 쏟고 있음. 안변, 통천, 고성군을 비롯한 강원도내 협동벌에서는 앞 그루작물 수확을 기본적으로 끝내고 탈곡과 건조대책을 세우고 있음.
- 평안남도 숙천군 약전농장은 앞그루밀, 보리 가을과 뒤그루작물심기를 10여일 동 안에 끝낼 계획을 세우고 종합수확기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의 가동률을 높이 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농장일꾼들은 밀, 보리가 익은 밭부터 수확하고 일손 과 기계수단을 집중하여 밭을 갈고 있으며 밀, 보리를 가을하는 대로 탈곡장에 실 어내고 있음.
- 평양시 강남군 당곡협동농장 제7작업반은 어느 한 건물의 윗층에 난알건조장을 마련하였음. 난알건조장은 수백㎡의 넓은 바닥, 통풍이 잘 되도록 살창을 한 벽체 에 햇빛과 비를 막을 수 있는 기봉을 갖추고 있음. 작업반은 탈곡한 밀, 보리를 새 로 만든 밀, 보리건조기로 건조시킨 뒤 바닥에 고루 퍼놓아 빠르게 건조시키고 있 음.

○ 황해북도 사리원시 대룡협동농장의 모내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6. 17)

- 황해북도 사리원시 대룡협동농장은 논앞그루 밀, 보리를 수확하는대로 뒤그루 논 벼를 심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농장에서 날짜별, 포전별 모내기계획을 구 체적으로 세운 가운데 제4작업반은 농기계와 농기구의 이용률을 높여 씨레치기를 앞세우면서 모내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3작업반은 모관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모내기계획을 수행하고 있음.

○ 평양시 주변 농촌들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18)

- 평양시 주변 농촌들은 모내기를 끝나고 밀, 보리가을과 뒤그루작물 씨불임에 역량 을 집중하는 가운데 밀, 보리건조로 제작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김책공업 종합대학과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평양기계대학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건조로 설 계를 완성한데 이어 칠골농장, 소신협동농장, 화성협동농장, 장천협동농장에서 시 범적으로 건조로를 만들도록 하고 방식상학을 진행하였음. 만경대농장, 소삼정협 동농장은 새로 만든 곡면날식 물논회전씨레의 시운전을 보여주는 방식상학을 진 행하였고 뒤그루벼모내기에 이용할 예정임.

○ 각지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6. 18)

- 평안남도 내 각 농촌들에서 앞그루작물 수확작업이 바빠 진행되는 가운데 속천군 열두삼천농장은 앞그루작물을 익는대로 제때에 거두어 들이기 위해 중소농기구 준비와 인력조직을 잘하여 매일 평균 수확 정보씩 밀, 보리를 수확하고 있음. 평원군 원화, 삼봉, 송석협동농장 등에서도 짧은 기간에 밀, 보리 가을을 끝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강원도 철원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밀, 보리를 수확하는 대로 모내기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일손과 기계수단을 집중하고 있음. 외학협동농장은 농기계 가동률을 높여 앞그루작물을 가을하는 대로 논갈이와 씨레치기를 앞세워 모내기 실적을 높이고 있음. 마장, 저탄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작업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농기계 가동률을 높여 앞그루작물을 수확하고 뒤그루 모내기를 다그치고 있음.

○ 황해남도 웅진군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20)

- 황해남도 웅진군은 앞그루작물 가을과 뒤그루작물 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각 협동농장에서는 이동식 종합탈곡기 수리를 비롯해 종합탈곡기, 건조기 등 농기계 생산, 트랙터, 달구지 등 운반기재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제때에 하고 있음.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웅진읍협동농장 제4작업반에서 앞그루작물 가을에 대한 방식상학을 조직하고 모든 협동농장에서 곡종별 뒤그루작물 배치정형을 정확히 하고 앞그루작물 가을과 뒤그루작물 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원사, 읍, 진해협동농장에서는 보리 수확이 한창이고 송월협동농장은 유채 가을에 이어 밀, 보리가을을 끝내고 뒤그루작물 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함경남도 금야군의 뒤그루 벼모내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21)

- 함경남도 금야군은 앞그루밀, 보리 가을과 낱알털기를 거의 동시에 끝내고 트랙터 등 갈이수단을 집중하여 논밭을 갈아엎고 뒤그루작물 심기에 역량을 집중하였음. 이로써 지인, 영풍, 사현협동농장을 비롯한 군내 협동농장들은 짧은 기간에 뒤그루벼모내기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각지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6. 22)

- 황해북도 은파군은 앞그루로 심은 밀, 보리 수확작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레

로협동농장은 작업반별, 포전별 수확계획을 세우고 일손과 운반수단을 집중해 밀, 보리를 거두어 들이고 있음. 강안협동농장은 트랙터와 달구지를 이용해 가을한 밀, 보리를 탈곡장으로 실어내고 있음.

- 평안북도 룡천군 쌍룡협동농장은 강냉이밭 김매기를 10일에 한번씩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일손과 기계수단을 집중하고 있음. 각 작업반은 포전별 강냉이 생육과 풀이 돌아난 상태를 따져 김매기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조마다 후치질을 앞세워 김매기실적을 올리고 있음.

○ 각지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6. 23)

- 앞그루작물 가을걷이와 뒤그루작물심기를 앞두고 농업성을 비롯한 농업지도기관들은 일손이 많이 드는 영농작업의 특성에 맞게 인력과 기계수단을 집중시키는 한편 연료와 부속품 등 영농물자보장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황해남도 연안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앞그루작물 가을걷이와 뒤그루 모내기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정춘, 오현협동농장에 나간 위원회 일꾼들은 영농작업의 선후차를 정해 일손을 집중시키고 논갈이, 씨레치기, 모내기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소정, 도남협동농장에 나간 일꾼들은 앞그루작물 가을걷이, 논갈이, 씨레치기, 모내기 등 전 영농공정을 과학기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강원도 고성군 삼일포협동농장은 앞그루작물을 가을하고 모내는기계의 가동률을 높여 뒤그루모내기를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양수동력설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논에 물을 충분히 대기 위한 대책도 세워놓고 있음.

○ 우리식 농법으로 자리잡은 이모작농사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25)

- 김정일은 식량문제 해결에서 이모작농사가 차지하는 의의와 중요성을 통찰하고 인민군대에서 이모작농사의 본보기를 창조하여 그 모범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도록 하였음. 김정일은 몇 해 전 6월, 인민군부대 산하 농장의 이모작 재배지를 방문하여 이모작농사는 경작지의 이용률을 2배로 높여 같은 면적에서 많은 수확을 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모작농사는 우리나라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는 주체적인 집약농법이라고 가르쳐 주었음.
- 인민군대의 본보기를 통해 강원도, 평안북도, 황해남도를 비롯한 각지에서 당의 이모작농사방침 관철에 나섰음. 종자혁명을 통해 이모작 재배에 필요한 종자문제를 해결되고 알곡 대 알곡, 알곡 대 감자, 알곡 대 채소 등 여러 가지 이모작재배방법이 창조되었음.

○ 평안남도 평성시 덕산협동농장의 지력 높이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25)

- 평안남도 평성시 덕산협동농장은 이모작농사를 추진하기에 앞서 지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음. 시내 가까이 위치한 농장의 특성을 살려 도시거름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각 작업반, 분조에서는 소달구지와 밭구, 지게에 거름을 실어 밭에 운반하였음. 이로써 농장은 정보당 60톤 이상의 거름을 내고 흙보산비료도 정보당 4톤 이상 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평안남도 대동군의 밀보리 건조대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25)

- 평안남도 대동군은 밀보리를 제때 말릴 수 있는 건조설비 제작사업을 추진하였음. 일군들은 건조설비의 축강을 회전통의 양 옆에 대어 축강소비량을 종전의 1/3로 줄이고 수동식으로 밀보리를 건조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수동식 밀보리건조설비를 완성하였음. 이로써 군내 모든 협동농장 작업반들은 수동식 밀보리건조로를 건설하여 탈곡한 밀보리를 제때에 건조하고 있음.

6. 농업기반

□ 평안남도의 토지정리사업, 백마-철산관개수로공사, 개천-태성호물길 이용, 금성간석지 개간사업, 각지의 강하천정리사업, 산림집 건설 등을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의 각지 사업진행에 대해 보도

□ 토지정리사업

○ 김정일의 평안남도 토지정리사업 현지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8, 민주조선 3. 18)

· 김정일이 평안남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였음. 김정일은 증산군 무본별, 온천군 마영별 등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 도내 인민들이 짧은 기간에 어렵고 방대한 토지정리공사를 훌륭히 끝낸 것에 큰 만족을 표시하였음. 김정일은 평안남도의 토지정리까지 끝나면 주요 곡창지대의 토지정리사업이 기본적으로 완성되게 된다고 하면서 나머지 각 도에서는 자체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토지정리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김정일은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논밭을 비옥하게 가꾸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토지정리의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김정일은 도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금성간석지 개간공사를 성과적으로 벌려 현대적인 대농장을 훌륭하게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에 대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었음.

○ 각지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23)

· 황해북도돌격대는 평안남도에서 토지정리작업을 진행하면서 겨울동안 얼었던 땅이 겉층만 녹아 트랙터삽날에 흙이 감겨들자 트랙터에 굳은땅파는기계를 달고 언땅을 파놓은 뒤 언 흙덩어리가 섞인 흙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토지정리실적을 올리고 있음.

- 사리원시와 서흥군돌격대는 기존의 도로를 논으로 정리하는 토지정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주트랙터부속품공장은 자재와 전기가 부족한 조건에서도 토지정리작업장에 트랙터 부속품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신흥군돌격대는 수리 기지에 선반, 볼판, 용접기 등 설비를 갖추어놓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속품을 생산하여 트랙터를 수리정비하고 있음.

○ 평안남도 토지정리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30)

- 황해남도돌격대는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함경남도돌격대는 숙천군에서 불도저 가동률을 높여 해당 과제를 실속있게 수행해나가고 있으며 황해북도돌격대는 이미 맡은 과제를 초과달성한데 이어 기계수단과 일손을 집중하여 문덕군의 협동벌을 정리하고 있음. 평안남도돌격대도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여러 시, 군에서 토지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평양시돌격대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31)

- 평양시돌격대는 평양시 주변 농촌들에서 봄철토지정리작업을 벌리고 있음. 강남군 영진리에서 락랑, 대성, 서성, 보통강구역 돌격대는 기계를 기술규정대로 운전하여 가동률을 높이고 있으며 강동, 중화군 돌격대는 앞선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많은 면적의 토지를 정리하고 있음.

○ 황해남도돌격대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1)

- 황해남도돌격대는 작업조건과 불도저 가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토지정리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평안남도 평원군 읍협동농장에서 신원군, 송화군돌격대는 비탈이 많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토지정리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연안군돌격대는 기계가 여러 농장에 분산배치되는 조건에 맞게 인력, 부속품, 기름보장대책을 세워 토지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각지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4. 3)

- 함경남도돌격대는 평안남도 숙천군에서 토지정리작업을 벌리고 있음. 도돌격대 일군들은 불도저 가동률을 높여 토지정리의 질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기름, 예비 부속품 등 보장사업을 차질없이 하고 있음. 또한 습한 지역에 물빼기작업을 벌려 기계작업에 지장이 없이 토지정리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 평안남도 평원군 송석협동농장에서 작업 중인 은률군돌격대는 불도저 수리정비를

끝내고 앞선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토지정리 실적을 올리고 있음. 돌격대에서는 시공지도를 앞세우고 운반할 흙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복작업을 없애며 수평고르기를 질적으로 하고 있음.

○ 황해남도의 토지정리 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5)

- 황해남도는 트랙터 부속품과 돌격대원들의 생활필수품 등이 부족한 토지정리 작업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음. 벽성군, 봉천군, 강령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정성을 다해 돌격대원들의 작업복, 신발, 장갑 등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을 마련하였고 신천군, 웅진군, 은천군은 파철을 모아 여러 가지 부속품을 생산하여 토지정리 작업장에 보내주었음.

○ 평안남도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4. 10)

- 평안남도 증산군과 온천군은 올해의 알곡소출을 높이기 위해 새로 정리한 농경지의 지력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각 협동농장에서는 흙보산비료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 거름원천을 확보하고 마련해놓은 원료로 질 좋은 흙보산비료를 생산하고 있음. 군내 공장, 기업소, 가두인민반에서도 적극 나서서 거름운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양의 거름과 영농물자를 협동농장에 보내주었음.
- 구성시돌격대는 황해남도토지정리를 마치고 재작년 4월 평안남도 증산군 무분별의 토지정리작업에 투입되었음. 돌격대 일군들은 트랙터운전수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전수들이 책임있게 해당 과제를 수행하도록 적극 이끌었음. 이로써 구성시돌격대는 730여 정보의 논에서 880개의 뚝기논을 없애고 80여km의 논두렁을 줄였으며 17정보의 새땅을 찾았음.

○ 평양시돌격대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20)

- 평양시돌격대는 평양시의 토지정리를 맡아 불리한 작업여건에서도 새로운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필요한 부속품을 자체적으로 생산보장하면서 토지정리를 진행하고 있음. 돌격대는 만경대구역에서 논면적을 새로 조사하고 농사조건에 맞게 토지정리를 추진하여 대부분의 논을 규격에 맞게 정리하고 포전도로도 정비하였음. 평양시돌격대에서 지난 기간 토지정리에 동원한 불도저를 비롯한 운전기재를 수리정비하면서 생산한 부속품은 18종에 4만 3,000여 점에 달함.
- 삼석구역에서 작업 중인 중화군대대는 땅이 굳어 토지정리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운전수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운전기재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락랑구역대대는 작업장이 100여 리 구간에 6개소에 분산되어 있는 조건에

서 선전사업을 활발히 하면서 돌격대원들의 작업열의를 북돋우고 있음. 강동군대대는 운전기재의 예비부속품을 미리 마련해놓고 제때에 수리정비하면서 가동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 이로써 평양시돌격대와 군인건설자들은 착공한지 2년 남짓한 기간에 토지정리과제를 초과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중화군돌격대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4. 20)

- 중화군돌격대는 평양시 강남군 장교협동농장의 토지정리를 마무리단계에서 진행 중임. 돌격대 일군들은 작업대상에 맞게 불도저 역량편성을 합리적으로 하는 한편 경제선동을 활발히 하여 돌격대원들의 작업열의를 북돋우고 있음. 불도저 운전수들은 땅이 굳고 밀어내야할 토량이 많은 조건에서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많은 면적의 토지를 정리하고 있음.

○ 량강도 포태지구 토지정리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22)

- 량강도 포태지구는 김정일의 지도에 따라 감자농사혁명에서 전환을 일으킬 수 있도록 토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량강도돌격대가 토지정리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백암군대대는 불도저의 여러 작업공정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간작업의 속도를 높였으며 갑산군대대는 부족한 전기 대신 자체 발동발전기를 이용하고 있음. 운흥군대대를 비롯한 각 대대에서도 자체적으로 삼각불도저날, 원반써레 등 60여 대의 각종 기재를 제작하거나 재생하였음. 이로써 량강도돌격대가 포태지구에서 토지정리를 시작한지 2년여 동안에 1,600여 정보의 새땅이 개간 정리되는 성과가 나타났음.

○ 각지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30)

- 평안남도 돌격대는 토지정리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제일 어려운 대상을 맡아 토지를 정리하고 있는 숙천군돌격대의 작업내용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로 하였음. 숙천군돌격대는 폐기논에 습지대가 70%나 되는 풍덕협동농장의 토지정리를 맡아 곳곳에 구덩이를 파고 물길을 내어 구덩이에 고인 물을 퍼냈음. 곧이어 트랙터를 가동하여 토지를 높은 수준에서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평안남도 돌격대 일군들은 숙천군돌격대의 작업성과에 고무되어 북창군, 성천군 등 도내 각 시, 군 돌격대의 토지정리작업장에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면서 토지정리의 질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평안북도돌격대는 대동군, 증산군, 온천군의 토지정리를 맡아 작업력이 높은 구성시돌격대를 어려운 대상인 증산군 토지정리에 배치하였음. 구성시돌격대 일군들

은 트랙터 부속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를 마련하는데 실천적으로 나섰음. 트랙터 운전수들은 낮에 이어 밤에도 작업을 진행하는 등 짧은 기간에 증산벌을 정리하여 많은 새 땅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평안북도돌격대의 사업 경험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7)

- 평안북도돌격대는 황해남도토지정리를 끝내고 평안남도 대동군, 증산군, 온천군 협동벌의 토지정리에 투입되었음. 돌격대는 토지정리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해 계절적 영향을 받는 봄과 가을철에 역량을 집중하거나 분산시키도록 하고 수리지의 위치를 옳게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업량과 지난 기간의 시, 군돌격대 실적을 고려하여 분담사업을 실시하였음.
- 일군들은 토지정리실적을 높이기 위해 트랙터에서 기술기능수준이 높은 운전수들과 낮은 운전수들을 배합하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집단주의정신이 발휘되어 앞선 작업방법을 받아들이고 적은 기름으로 더 많은 땅을 정리하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백마-철산 관개수로공사

○ 사설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다그치자’를 게재(로동신문 3. 20)

- 김일성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개공사를 군중적 운동으로 추진하고 평남, 기양관개공사를 비롯해 수많은 대규모관개공사를 완공함으로써 나라의 관개망을 확충하였음. 그러나 최근 전기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관개용수보장사업에 차질이 생겼음. 김정일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강물을 자연흐름 그대로 관개용수로 이용하는 자연흐름식 물길 건설을 몸소 발기하였음. 김정일이 발기한 자연흐름식 개천-태성호물길공사는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에 의해 2년 남짓한 기간동안 완공되어 대동강물이 자연흐름 그대로 평안남도, 평양시의 협동벌에 흘러들고 있음.
- 김정일의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온 나라의 관개체계를 자연흐름식 물길로 완성해야 함.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본보기로 하여 평안북도와 황해북도를 비롯한 여러 지대들의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함.

- 지금 평안북도의 관개용수를 자연흐름식 관개물길로 보장하는 백마-철산물길공사가 진행 중임. 물길공사를 맡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사생결단의 의지와 공격정신으로 물길공사를 이끌어야 함. 각급 당조직들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물길공사에 대한 지원을 책임있게 실시하고 시멘트, 강재, 목재 등 여러 자재들과 설비, 물자들을 공사장에 제때에 보내주며 대규모 백마-철산물길공사를 하루 빨리 질적으로 완공하여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 적극 기여해야 함.

○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4. 3)

- 백마-철산물길공사는 피현, 염주, 철산, 룡천군 등지의 넓은 영역에서 대규모 저수지와 물길굴, 잠관과 암거 등 각종 구조물을 건설하고 수백 리 흙물길을 형성해야 함. 중앙지휘부는 이 가운데 가장 어려운 대상인 백마저수지공사를 주공방향으로 정하고 공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중앙지휘부는 황해관개건설여단이 맡은 기본언제공사에서 기본건설자재인 혼석을 보장하기 위해 운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으며 기계들의 정상적인 수리정비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과 자재보장에 힘쓰고 있음.
- 황해관개건설여단은 기본언제를 견고하게 쌓기 위해 점토와 혼석 운반에 중점을 두고 공사가 공법대로 진행되도록 시공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중심강토를 맡은 제1대대는 기계수단의 가동률을 높이고 작업공정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점토퍼기, 물뿌리기, 점토다지기 등 모든 작업을 기술규정대로 하여 중심강토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
- 평안북도여단은 흙물길형성작업을 계획보다 앞서 끝내기 위해 공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지휘부일군들이 운수기재, 기름, 모래 등 자재 보장에 적극 나선 가운데 의주군대대는 기계수단의 가동률과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마대전을 벌려 계획보다 많은 흙을 처리하였으며 30여만^m의 흙을 옮겨 5천 수백^m에 달하는 구간에 흙물길제방둑을 기본적으로 쌓았음. 태천군대대는 합리적인 발파방법을 받아들여 어려운 암반구간을 뚫고 있으며 구장군, 룡천군, 삭주군대대에서도 흙물길제방둑 형성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

○ 평안북도여단의 발파작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20, 민주조선 4. 22)

- 평안북도여단은 기본흙물길공사에서 굳은 암반을 처리하는데 10만산 발파작업을 진행하였음. 광산군대대는 굳은 암반을 제거하기 위해 갱정을 뚫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 날림식대발파를 성공적으로 끝마쳤음.

○ 평양시여단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4. 21)

- 평양시여단은 이미 5개 대상의 물길굴과 구조물공사를 기한 전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고 2개 대상의 물길굴공사와 제2보조언제기초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지난해 6월 중순 선교구역대대 물길굴뚫기현장이 굴입구부터 5m구간까지 붕괴되었을 때 여단 지휘부 일군들이 앞장서서 동발나무를 지고 붕괴구간에 들어서는 실천적 모범을 보였고 대대원들도 적극 복구작업에 나섬으로써 성과적으로 굴진과제를 끝낼 수 있었음.
- 물길굴뚫기작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보다 발파자재 소비량이 많자 지휘부 일군들은 적은 발파자재로 최대한의 효율을 얻기 위해 각 대대에서 암질에 따른 앞선 발파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였음. 각 단위에서는 암질에 맞게 천공배치를 합리적으로 하는 등 발파작업을 공법에 맞게 실시하여 많은 발파자재와 일손,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굴진속도를 높일 수 있었음.
- 지휘부 일군들은 물길공사를 진행하면서 장마철과 겨울철에도 지체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지난해 장마철을 앞두고 건설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장마철에 사용할 시멘트, 모래, 목재 등 건설자재를 확보하는 한편 보관장소를 마련하여 장마철에도 중단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음.
- 락랑구역대대에서 물길굴공사를 진행하던 지난해 8월 초, 막장에서 굴진작업을 하던 2중대는 굴이 무너져 매몰되었으나 발파구멍을 뚫는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고 다른 중대원들에 의해 6시간만에 구조되었음. 또한 각 중대에서는 휴식시간에도 작업을 진행하여 버럭처리속도를 1.5배 이상 높이는 등 굴진과 벽체 및 상부아치콘크리트치기를 계획보다 반년 이상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평양시여단은 제2보조언제기초공사 시작 20여일만에 겉층흙 및 썩은흙 제거, 기초굴착에서 총 3만여m³의 흙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여단지휘부는 보조언제기초공사를 4월 말까지 끝낼 계획 하에 기본역량을 기동적으로 배치하고 기계화수단을 계속 보강하고 있음.

○ 평안북도여단의 발파작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20, 민주조선 4. 22)

- 평안북도여단은 기본흙물길공사에서 굳은 암반을 처리하는데 10만산 발파작업을 진행하였음. 광산군대대는 굳은 암반을 제거하기 위해 갱정을 뚫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 날림식대발파를 성공적으로 끝마쳤음.

○ 각 여단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1)

- 평양시여단은 3개 대상의 물길굴, 3개 대상의 잠관, 1개 대상의 개거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상원군, 강남군, 가동구역대대는 잠관공사를 맡아 잠관기초파기를 하고 혼합물을 기술지표대로 만들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치기를 질적으로 하고 있음. 보통강, 서성, 동대원구역대대는 전단면 굴진과 콘크리트치기를 앞세워 굴공사를 끝냈으며 룡성, 모란봉구역대대도 개거공사를 짧은 기간에 완공하였음.
- 나머지 2개 대상의 물길굴공사에서 평천, 대동강, 대성, 락랑, 선교구역대대를 비롯한 여러 대대에서는 콘크리트치기를 기술지표대로 진행하고 물길굴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냈음. 중구역, 형제산구역, 력포구역, 중화군대대는 모래, 자갈, 시멘트, 동발나무를 차질없이 운반하고 있음.
- 황해관개건설여단은 백마저수지 기본언제공사에서 언제쌓기에 필요한 진흙과 혼석 운반과 다지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자동차운전수들과 굴착기운전공, 불도저운전수들은 수리정비를 잘하고 기계의 가동률을 높여 매일 수천㎡의 진흙과 혼석을 운반하고 있으며 건설자들은 진흙과 혼석 다지기를 기술지표대로 하고 있음.
- 평안남도여단은 이미 1개 대상의 물길굴을 완공하고 2개 대상의 긴 물길굴 도갱을 관통한데 이어 굴확장공사와 콘크리트치기, 개거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증산광산, 천동광산, 람정광산, 인평청년광산, 성산광산대대는 굴도갱을 성공적으로 관통하고 굴확장과제를 매일 1.6배로 초과수행하고 있음. 장산광산,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장산전기공장, 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대대는 개거공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량강도여단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11)

- 량강도여단 지휘부일군들은 매일 2회 이상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설비 배치와 가동정형, 인력조직 등을 점검하고 있음. 4월 초, 8월광산대대에서 굴뚝기작업을 진행할 때 현장작업을 지휘하던 일군들은 각 교대마다 발파에서부터 깨진 암반처리까지 걸리는 시간과 작업여건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여유시간과 남은 일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3개 교대를 4개 교대로 조직하여 굴진속도를 높였음.
- 레일 위에 설치된 회전판을 돌려 광차를 대피시키는 사이 깨진 돌을 실은 광차가 대기하는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일군들은 날개식으로 레일을 설치함으로써 광차대기시간을 없앴음. 이에 따라 하루 광차 이용시간은 종전에 비해 3시간 이상 늘었고 토량처리속도도 빨라지게 되었음. 이 밖에도 지휘부일군들은 각종 설비의 합리적인 변경 등 수많은 혁신안을 연구하고 공사에 도입하였음.

- 신파청년광산대대는 물길굴 도갱관통에 이어 상부확장과 콘크리트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붕락이 발생했음. 대대에서는 전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붕락구간의 돌과 흙을 대대원들이 직접 오가며 처리하였고 일군들이 앞장서서 붕락구간에 동발나무들이기작업을 이끌었음. 이로써 3개월여 동안에 2,890여m³의 흙을 처리하고 10여m의 붕락구간을 복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평안북도여단의 발파작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3)

- 평안북도여단 운산군대대는 여단 일군들과 연계하여 대발파로 암반을 처리하기로 하고 발파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대대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수직갱 및 갱정 뚫기작업을 끝냈으며 물길공사 중앙지휘부 일군들은 대발파와 관련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였음. 이로써 운산군대대는 8만산 대발파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흙물길 형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구장시멘트공장의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3)

- 구장시멘트공장은 백마-철산 물길공사장에 질 좋은 시멘트를 공급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당조직의 지도 밑에 공장에서는 석회석, 석고 등 원료와 자재를 충분히 마련하면서 시멘트의 질을 높이고 있음. 원료직장은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가동이 중단된 여러 대의 교반기를 재가동하였으며 주물작업반, 주강작업반은 용선로, 주강로를 보수하고 필요한 설비와 부속품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김정일이 공사에서 모범을 보인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보도(로동신문 5. 18, 민주조선 5. 19)

- 김정일이 백마-철산물길공사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에게 감사를 보냈음. 평안남도여단은 짧은 기간에 백마저수지 배수굴을 완공하고 연 천수백m에 달하는 물길굴의 작업갱, 도갱굴진을 끝냈으며 굴확장공사와 콘크리트치기, 구조물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황해남도여단은 여러 개의 물길굴을 관통하고 마감공사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황해관개건설사업소여단 제3대대는 백마저수지 기본언제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함흥시, 강동군, 룡강군, 갑산광산, 김책시, 신평린회석광산, 철산군, 박천관개하천건설사업소대대는 물길굴과 각종 구조물, 흙물길공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평안북도인민병원 원장, 초급비서 유승영, 과장인 유병철, 김신남을 비롯한 일군들과 의사, 종업원들은 현장의료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렸으며 동립전기공장, 8월28일공장, 농업성 중앙자재상사 평안북도지구공급소에서는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공

사장 설비를 수리정비하고 자재 및 부속품을 현장에 공급하였음. 피현군 태평중학교 이종숙 교원과 학생소년예술선전대원들은 물자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130여 차의 경제선동을 진행하였음.

○ 평안북도여단의 발파작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30)

- 평안북도여단에서 백마-철산물길의 흙물길형성과제를 수행하는 가운데 운산군대대는 암반제거를 위해 발파작업을 준비하였음. 대대에서는 수직갱을 뚫고 많은 갱정을 마련한 뒤 발파를 진행하여 5만산 발파를 성과적으로 끝냈음.

○ 평안남도여단의 발파작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6. 12)

- 평안남도여단은 물길공사에서 대발파작업을 준비하면서 발파효율을 높이기 위해 갱정배치를 정확히 하고 무덤이공사를 맡은 대대들을 비롯한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안주2탄광건설사업소대대, 룡원광산대대 등에서는 암질 조건에 맞는 발파방법을 받아들여 갱정뚫기속도를 높이면서 공법상 기준을 준수하여 10만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음. 이로써 백마저수지 무덤이언제기초굴착을 공사기일보다 앞당길 수 있게 되었음.

○ 각지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6. 16)

- 중앙지휘부는 강하천 및 철도 등을 횡단하게 되는 대형용수잠관공사가 장마철에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함경남도여단은 농건용수잠관공사를 맡아 장마철에도 물을 통과시킬 수 있는 하천부문 잠관체 형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함경북도여단을 비롯한 다른 단위에서도 기계설비의 이용률을 높이면서 잠관체형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음. 15일 현재 농건용수잠관과 룡산용수잠관, 정산용수잠관 하천부문 잠관체 형성이 완성되었거나 마감단계에서 진행 중이며 전반적인 기초굴착공사가 계획보다 앞당겨지고 있음.
- 함경북도여단은 대규모 룡산용수잠관공사를 맡아 이달 중순까지 룡산천을 통과시킬 수 있는 잠관체를 형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제2조의 은덕군대대, 부령군대대, 라남구역대대, 화성군대대와 제3조는 해당 구간의 잠관체 콘크리트치기를 끝내고 다른 단위의 콘크리트치기작업을 돕고 있으며 제1조는 잠관아치 콘크리트치기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며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음.
- 함경남도여단은 농건용수잠관공사를 맡아 하천부문 잠관체 형성작업을 진행하던 중 계속된 비로 하천둑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음. 여단지휘관, 초급지휘관들이 흙마대를 메고 둑을 막아서는 가운데 여단의 각 대대원들이 여러 시간에

걸쳐 100여m³의 돌과 흙을 날라 독을 보강하였음. 이로써 이날 계획한 수십m구간의 휘틀조립과 철근조립을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잠관기초굴착과제를 150%이상 수행하였고 기술혁신과 앞선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하천부문 잠관바닥과 벽체콘크리트치기를 계획보다 앞서 끝냈음.

□ 개천-태성호물길

○ 개천-태성호물길 이용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22)

- 개천-태성호물길은 관개용수문제를 우리의 독특한 자연흐름식물길로 해결한 선군시대 농업혁명의 상징임. 평안남도과 평양시의 각 협동농장에서는 개천-태성호물길로 흐르는 대동강물을 이용하여 두해째 농사를 짓고 있음. 개천-태성호 물길관리소는 물길가시기와 각종 구조물 보수정비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고 있으며 순천, 평원, 기양지구 관개관리소에서는 담당하는 구간의 물길상태, 흐르는 물의 양과 속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알맞은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평안남도 숙천군의 관개체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22)

- 평안남도 숙천군은 개천-태성호물길로 총 논면적의 70여 %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있음. 개천-태성호물길을 통해 자연흐름식으로 관개용수를 공급함에 따라 20여개의 양수장을 가동할 필요가 없어졌음. 군은 이 물길을 논에까지 자연흐름식으로 대기 위한 공사를 계획보다 앞당겨 끝내 올해농사부터 덕을 보게 되었음.

○ ‘수백리 개천-태성호물길을 따라(1)’를 게재(로동신문 5. 26)

- 수백리에 달하는 우리 식의 독특한 자연흐름식 물길인 개천-태성호물길의 완공으로 서부지구의 관개용수문제가 해결되었음. 김정일은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몸소 발기하시고 수십 차례의 강령적 말씀과 방침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갖 설비자재와 운전기재들을 보장해주었음. 공사에 나선 건설자들은 수백리의 흙물길공사, 수십개 대상의 물길굴공사, 잠관, 다리, 암거를 비롯한 수백개 대상의 각종 구조물공사를 동시에 추진하여 2년여의 기간에 개천-태성호물길을 완공하였음.

○ ‘수백리 개천-태성호물길을 따라(2)’를 게재(로동신문 5. 28)

- 평안남도 평원군 건룡저수지의 기본 물원천은 평남관개수와 눈, 빗물로 눈, 비가 많이 내리지 않으면 저수지를 채우기가 힘들었음. 개천-태성호물길이 완공됨에 따라 주변의 태성호를 비롯한 20여 개의 저수지들에 자연흐름식으로 대동강물을

채우게 되어 전기로 양수기를 가동할 필요가 없어졌음.

- 개천-태성호물길 완공 이전, 평원군 원화땅은 모내기철이 되면 관개용수를 끌어오기 위해 양수기 가동에 총력을 기울이고도 저수지에 물을 채우기가 힘들었음. 그러나 개천-태성호물길이 완성됨에 따라 평원군에서 관개용수 공급이 가장 힘들었던 덕제협동농장에 이르기까지 군내 모든 협동농장에서 물 걱정없이 모내기를 하고 있음.

○ ‘수백리 개천-태성호물길을 따라(3)’을 게재(로동신문 5. 31)

- 개천-태성호물길관리소 기양지구관개관리소 기사장에 따르면 개천-태성호물길 완공 이전 1단, 2단 양수장을 거쳐 태성호에 대동강물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전기가 필요했으나 전력난이 심해 관개용수를 보장하기가 힘들었음. 그러나 개천-태성호물길이 완성됨으로써 양수동력 없이 자연흐름식 관개물길로 증산군, 온천군, 강서군, 대안군, 남포시 일대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게 되었음.

□ 간척사업

○ 금성간석지 개간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20)

- 김일성 유훈에 따라 평안남도 온천군 금성간석지 개간사업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되었음. 청년돌격대원들은 한겨울에 제방쌓기, 도로공사, 논두렁 짓기, 물길건설 등을 진행하고 있음. 소금밭건설장에서는 개천시대대와 안주시대대 청년돌격대원들이 밤낮없이 젖은 흙을 지어 나르고 있으며 저류지, 저장지제방공사장, 배수로 굴착공사장 등에서도 성과적으로 작업이 진척되고 있음.

○ 금성간석지 개간공사에 참가한 청년들의 충성의 결의의 밤 진행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4)

- 금성간석지 개간공사에 참가한 청년들의 충성의 결의의 밤이 1일에 진행되었음. 모임에서는 김일성의 유훈대로 현대적인 대농장과 소금밭을 건설하기 위해 금성간석지 개간공사에서 위훈을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참가자들은 간석지내 부망공사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짧은 기간에 벼씨뿌리기를 끝내고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평안남도 온천군 금성간석지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1)

- 평안남도와 시, 군, 연합기업소의 지원 속에 1,500평짜리 논이 수천 개에 달하는 평안남도 온천군 금석간석지에 첫씨를 뿌리게 되었음. 청년돌격대와 도 일군들, 농업근로자들은 개간작업과 함께 씨뿌리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해 힘을 쏟고 있음.

○ 금성간석지 개간과 씨뿌리기작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27)

- 평안남도청년돌격대는 지난해 말, 금성간석지 개간공사를 맡아 올해 봄에 1,300여 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고 씨를 뿌릴 계획을 세웠음. 대동, 평원, 문덕군대대는 갈뿌리 들춰내기, 독보강, 물대기와 물빠기를 비롯하여 간석지농사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수십 정보의 면적에 씨뿌리기를 10일 동안에 끝냈음. 북창, 성천, 은산군대대는 갈섬지구의 개간작업을 맡아 농사차비를 성과적으로 하고 씨레치기를 앞세우면서 계획대로 씨를 뿌렸음.

□ 국토관리사업

○ 강원도 평강군의 봄철 국토관리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23)

- 강원도 평강군은 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산에 나무를 심기 위해 짧은 기간에 나무모밭을 조성하였음. 이와 함께 도로 기술개건, 가로수 심기, 강하천 정리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음. 또한 새로 건설된 집들에 5그루 이상의 과일나무를 심도록 나무모보장을 비롯한 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각지 국토관리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6)

- 황해남도는 경제적이면서 각 고장의 기후풍토에 적합한 수종의 나무를 심도록 하여 1만 수천 정보의 산림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황해북도는 아카시아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시, 군 소재지와 도로 주변, 공원, 유원지들에 심고 있음. 특히 사리원시, 연탄군, 수안군에서는 나무모를 길러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과학기술적으로 나무를 심고 있음.
- 평안남북도는 새로 건설거나 정비된 도로에 가로수를 심고 있으며 강원도는 강바닥파기, 물줄기 바로 잡기 등 강하천정리사업을 진행하면서 강하천 주변에 나무심기작업을 벌리고 있음. 함경남도에서도 시, 군소재지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 주변에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있음.

○ 함경남도의 봄철국토관리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4. 9)

- 함경남도 함흥시는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들에 과제를 주어 혁명사적지, 공원, 농촌야산 및 산기슭, 도로 주변에 수종이 좋고 빨리 자라는 나무를 기술 규정대로 심고 있음. 이와 함께 800여 톤의 시멘트와 10여 톤의 강재를 마련하여 3개의 다리 건설과 호령천바닥의 1만여㎡의 모래와 자갈을 파내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영광군은 일군, 근로자, 학생들을 동원하여 신흥탄광지구에 4천여 그루의 잣나무를 심었으며 적지적수의 원칙 하에 읍지구, 홍봉, 기상, 상중지구의 야산에 경제림, 땀나무림을 조성하였음. 신흥군은 1,200여 정보의 산과 들에 이깔나무, 아카시아, 잣나무, 밤나무를 심는 한편 하천정리와 신흥-덕성도로의 기술개건공사를 다그치고 있음.
- 황해북도의 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13)
- 황해북도는 올해 봄철국토관리총동원 기간동안 1만 5,000여 정보에 8,36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190여km의 중소하천 제방건설 및 정리사업을 진행하였음. 나무심기에서 장풍, 평산, 개풍, 수안군이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장풍군은 짧은 기간에 350여 정보의 잣나무림과 많은 면적의 아카시아나무림을 조성하였음. 린산군을 비롯한 여러 군에서는 재령강, 예성강, 사천강 등 강하천의 제방건설과 강바닥파기, 물줄기 바로잡기, 장식쌓기, 잔디입히기를 진행하였음. 또한 도에서는 3,320여 개 단위에 460여 정보의 양묘장을 조성하여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키워내고 있음.
- 함경남도의 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7)
- 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 함경남도는 8천 138만 5,000그루의 나무모를 만수천 정보에 심었음. 특히 땀나무림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나무모밭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5천 94정보의 땀나무림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이와 함께 새 도로와 시, 군소재지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도로확장공사를 끝냈으며 천 수백km에 수십만 그루의 가로수를 심었음. 고원군 덕지강, 덕성군 북청강 제방돌입히기와 함흥시 호련천의 강바닥파기를 진행하고 호안림 50여 정보에 12만 5,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홍수피해를 예방하게 되었음.
- 평안북도 철산군의 하천부지 개간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8)
- 평안북도 철산군은 농사차비를 하면서 하천정리작업을 통해 새땅을 개간해냈음.

군일군들과 청년들은 영농작업을 병행하는 조건에서도 하천을 곧게 펴고 제방이 뻗어나간 곳마다 새땅을 개간하여 경작지면적을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평안북도 관개관리소의 용수공급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20)

- 평안북도 농촌경리위원회는 이모작농사에 필요한 물을 저수지에 채우기 위해 양수설비 수리정비를 다그치고 구조물을 정비보강하면서 기본간선물길가시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룡의지구관개관리소는 기본간선물길잡관 등 여러 개 구조물을 자체적으로 보수정비하고 물길가시기를 하고 있으며 대령강지구관개관리소는 잡관, 물길굴을 비롯한 전반적인 구조물 수리정비를 질적으로 하였음. 룡천군, 염주군, 선천군을 비롯한 각 시, 군관개관리소에서는 지선물길가시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구조물공사를 실정에 맞게 끝냈음.

○ 각지의 강하천정리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22)

- 국토환경보호성은 전국의 강하천 실태를 파악하고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하천정리사업을 군중적으로 벌리도록 하였음. 평양시 순안구역, 형제산구역을 비롯한 여러 구역에서는 수만㎡의 강바닥파기와 제방보수, 수십km의 물길정리를 하고 50여 정보의 호안림을 조성하였음. 함경북도 라선시, 새별군, 온성군은 돌 수만㎡를 채취하여 두만강 연안 여러지구의 호안공사와 제방공사를 끝냈으며 평안북도 신의주시 압록강건설사업소는 채석장을 갖추어 섬호안공사와 토성제방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강원도 고성군은 홍수피해를 입었던 남강제방을 복구하였으며 천내군, 안변군에서는 덕지강, 남대천 등 강하천정리를 하고 있음.

○ 황해남도 강령군의 중소하천 정리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26)

- 황해남도 강령군은 강령천을 비롯한 8개 중소하천 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답사를 통해 조건에 맞게 기계수단과 일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였음. 오봉협동농장은 3일동안에 수백㎡의 흙을 처리하여 제방을 쌓고 돌입히기를 끝냈음. 룡연, 평화농장, 군양정사업소, 군농기계작업소, 농기구공장 등 많은 단위에서도 강바닥을 파내고 제방을 쌓고 돌을 입혀내는 작업을 질적으로 끝냈음. 이로써 군은 8개의 강하천정리를 성과적으로 끝냈음.

○ 황해남도 은천군의 물길공사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31)

- 황해남도 은천군은 전기 부족으로 대동강물을 제대로 퍼올리지 못해 관개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자 대동강 옆 야산에 물길굴을 뚫어 대동강물을 자연흐름식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웠음. 군은 100여 명의 청년돌격대를 조직하고 협동농장들에 물

길공사구간을 지정해주어 복두-조정 사이 16km의 물길공사를 진행하였음. 돌격대는 암반을 제거하고 수십만^m의 흙을 처리하는 등 55일만에 군 자체적으로 자연 흐름식 물길공사를 완공하였음. 이로써 여러 개의 양수장을 없애고 수천kW의 전력을 절약하면서도 1,000여 정보의 논밭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있음.

□ 산림집 건설

○ 보온식 부뚜막 도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17)

- 국토환경보호성은 산림 조성을 위해 땃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진행하였고 평안북도 박천군 기송리에 보온식 부뚜막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땃감문제를 해결하였음.
- 이 보온식 부뚜막은 연소효율이 높아 5인 식구를 기준으로 한끼 밥을 짓는데 땃감 8~9kg이 들던 기존 부뚜막과는 달리 2.5kg의 나무면 충분함. 보온식 부뚜막 도입으로 박천군 기송리는 한해 한세대에서 땃나무 8.3^m를 절약하고 있으며 그 외 공공건물의 화구에 쓰이는 땃나무까지 합하면 4,000여^m의 땃나무를 절약하게 됨. 보온식 부뚜막은 기존의 부뚜막을 쉽게 개조하여 만들 수 있고 땃나무 전량을 한 번에 화실 안에 넣고 불을 달궈 이용하며 불이 나면서 연기나 잿가루, 먼지 등이 생기지 않음.

○ 황해남도 강령군의 농촌살림집 건설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1)

- 황해남도 강령군은 농업근로자들의 기호에 맞게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살림집을 건설하고 있음. 동포, 동강협동농장은 수십 세대의 살림집 건설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연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들도 작업반 단위로 살림집 건설계획을 분담하고 실정에 맞게 일손과 자재를 집중하여 살림집 건설속도를 높이고 있음.

○ 황해남도 송화군의 살림집 건설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16)

- 황해남도 송화군은 올해 수백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 목표를 세우고 공사를 진행 중임. 군도시건설사업소는 군소재지 도로주변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고 있으며 명례협동농장의 수정골지구는 염소목장을 건설한데 이어 수십 동의 문화주택을 건설하였음. 구탄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촌마을에서도 살림집 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황해북도 황주군의 살림집 건설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21)

- 황해북도 황주군 석산협동농장은 농촌살림집을 건설하도록 한 김정일의 현지교시에 따라 제12작업반 구역에 현대적인 농촌마을을 조성하였음. 이 마을에는 38동의 농촌문화주택과 탁아소,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 탈곡장, 농기구창고, 온실, 가축우리를 비롯한 공공건물이 새로 건설되었음.
- 새로 건설한 살림집은 살림방 3칸, 부엌, 세면장, 창고가 있으며 집 옆에는 40m²의 부지에 부속건물로 위생실, 가축우리, 창고가 있음. 이 뿐만 아니라 퇴적장과 메탄가스탱크, 온실도 갖추어져 있음.

○ 3월21일과수농장의 살림집 건설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28)

- 3월21일과수농장은 최근년간 100동의 살림집을 건설한 경험에 기초하여 50동의 현대적인 살림집 건설하였음. 이번에 건설된 현대적인 살림집은 여러 칸의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 창고 등이 갖추어져 있음.

○ 평양시 형제산구역의 현지말씀 관철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27)

- 평양시 형제산구역 당위원회는 김일성의 유훈과 김정일의 현지말씀 관철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구역당위원회는 부족한 강재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공방법을 받아들여 시멘트를 상당량 절약하면서도 짧은 기간에 제산군민다리를 완공하였음. 이와 함께 나무모밭을 조성하여 여러 가지 나무모를 키워 최근 몇해 동안 총 연장길이 97.3km에 달하는 구간에 수종이 좋은 가로수를 심었음.
- 학산협동농장은 김정일이 제시한 과업에 따라 농장마을에 현대적인 문화주택을 건설하고 영농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여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늘려나가고 있으며 형산협동농장은 60여 동의 농촌살림집을 새로 건설하였음.

7. 산 림

- 전국 각지에서 봄철나무심기가 활발히 벌어지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10여 억 그루의 나무모가 생산되어 산과 들에 옮겨지고 있음. 또한 토지정리, 흙갈이, 거름생산 및 실어나르기 등 각지 나무모밭의 지력을 높이는데 힘을 쏟으면서 제철에 나무종자를 심고 기술규정대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산 림

○ 나무모 재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7)

- 전국 각지에서 봄철나무심기가 활발히 벌어지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10여 억 그루의 나무모가 생산되어 산과 들에 옮겨지고 있음. 국토환경보호성은 나무모 생산을 위해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나무종자따기를 군중적으로 벌려 많은 종자를 확보해놓았음. 또한 토지정리, 흙갈이, 거름생산 및 실어나르기 등 각지 나무모밭의 지력을 높이는데 힘을 쏟으면서 제철에 나무종자를 심고 기술규정대로 관리하도록 하였음.
- 국토환경보호성은 각 시, 군에 10~15정보의 나무모밭을 조성하도록 하고 각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에서 자체적으로 나무모밭을 꾸리도록 하였음. 이와 함께 각 군에 조성된 나무모밭에 대한 전국적인 판정평가사업을 실시하고 봄, 가을에 성일군들을 각 도, 시, 군에 파견하여 나무모밭의 지력을 높이고 나무모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음.

○ 각지의 봄철 나무심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17)

- 평안남도는 대각청년언제 주변에 100여 정보, 관광도로 주변에 500여 정보의 나무림을 조성할 계획을 세워 봄철나무심기사업을 벌리고 있음. 덕천시는 적지적수의 원칙 하에 나무모의 포장을 잘하여 운반하여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고 있으며 평원군, 문덕군은 오동나무와 밤나무를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큰 나무를 많이 심고 있음.

- 황해북도 신계군은 식수질을 맞아 며칠 안되는 짧은 기간에 군내 공장, 기업소와 협동단체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읍지구, 정봉지구를 비롯한 산들에 여러 수종의 나무 수십만 그루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음. 정봉, 구락, 지성 등 군내 리에서도 땔나무림 조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의 특성에 맞게 산과 들에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있음.

○ 함경남도 북청군 라흥협동농장의 왕밤나무모발 조성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8)

- 함경남도 북청군 라흥협동농장은 올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면적에 왕밤나무를 심을 계획을 세우고 왕밤나무모발을 조성하였음. 농장에서는 왕밤나무모발 김매기와 거름주기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으며 3년생이 되고 실하게 자란 왕밤나무모를 선발하여 산에 옮겨 심도록 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봄철 제때에 질적으로 왕밤나무를 심기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왕밤나무모 심기준비사업을 벌려 연차별로 나무모 심을 면적을 정하고 가을에 구덩이를 판 뒤 질 좋은 거름을 충분히 냈음.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왕밤나무 뿌리와 가지가 상하지 않게 모를 뜨고 운반하여 기술규정대로 심고 버팀대도 매어 사름률을 높이고 있음.

○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이라는 글을 게재(로동신문 3. 20)

- 나무는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토지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임. 산마다 숲이 우거지게 하자면 나무심기를 전망성 있게 추진해야 함.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좋은 수종의 나무를 많이 심어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도록 한 김정일의 뜻에 따라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벌려 산마다 숲이 우거지게 해야 함.
- 나무심기는 자기가 살며 일하는 거리, 마을, 일터, 조국강토를 사회주의선경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국애, 향토애를 지녀야 나무를 정성껏 심어 사름률을 높일 수 있음.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는 근로자들이 조국애와 향토애를 발휘하여 나무심기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함.
- 인민군대처럼 나무모발을 조성하여 자체적으로 생산한 나무모를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 산에 있는 나무를 옮겨 심는 식으로는 수림화를 실현할 수 없음. 도, 시, 군 일군들은 자체적으로 나무모발을 조성하여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생산하는데 힘을 쏟아야 함. 또한 나무심기를 봄과 가을철에 군중적 운동으로 벌려야 함. 산림경영소와 기관, 기업소, 농장 일군들은 지대별 기후조건과 토양 특성에 맞게 나무 심을 계획을 세우고 실천사업을 질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황해남도 벽성군의 식수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20)

- 황해남도 벽성군 산림경영소는 나무모밭을 기름지게 가꾸어 올해 민아카시아, 오동, 이깔, 잣, 은행나무모를 710여만 그루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인민위원회, 양정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기관, 기업소에서는 담당지역의 실태를 미리 파악한 데 이어 나무심기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장공장, 화학공장 등 여러 공장, 기업소에서는 구덩이파기, 물주기, 흙묻어주기 등을 기술규정대로 준수하면서 나무를 질적으로 심고 있음.

○ 봄철 나무심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21)

- 개성시는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695정보의 산림을 조성하고 공원과 도로 주변에 3만 6,500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농촌에는 밤나무를 비롯한 과일나무를 심을 계획을 세웠음. 시당위원회, 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이 산림조성사업의 앞장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이끌며 나무심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 남포시 룡강군은 3월초부터 중순까지 기관, 공장, 기업소 등 여러 단위에서 거리와 공원 등 공공건물 주변에 10여 종에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3월 중순부터 산림부문에서도 도로주변의 산을 비롯한 100여 정보에 나무심기작업을 벌리고 있음.

○ 황해남도 봉천군의 산림조성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24)

- 황해남도 봉천군은 김정일이 보내준 오동나무모로 봄철에 60정보의 오동나무숲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음. 산림부문 일군들은 적지를 찾아내고 기술적 요구대로 나무모를 심어 가꾸고 있으며 근로자, 청소년들은 구덩이파기, 거름주기와 나무모 운반 및 심기를 하고 있음. 이로써 봉천군은 일주일동안에 죽동지구의 26정보에 오동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음.

○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의 나무모 생산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26)

- 도시경영성은 중앙양묘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종이 좋고 빨리 자라는 나무모를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단계별 목표를 세웠음. 중앙양묘장에서는 1, 2월에 50정보의 토지를 정리하고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정보당 20톤씩 실어내고 30여 정보의 밭갈이와 30여만 그루의 가지심기, 20여 종의 종자심기 등을 진행하였음. 성에서는 4월까지 10정보의 나무모밭에 분수식 관수를 끝내기 위해 물탱크 건설, 기본관 늘리기 등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각지의 산림 조성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26)

- 평양시는 산과 들에 수천 정보의 풍치림과 땃나무림을 조성하며 거리와 공원, 유원지 등에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한 계획을 세워 대중들을 동원하고 있음. 동대원, 서성, 승호구역에서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나서서 봄철나무심기를 군중적 운동으로 벌리고 있음. 중구역과 모란봉구역을 비롯한 중심구역에서는 거리, 공원, 유원지 등에 아카시아, 정향나무 등 수십 종의 나무와 꽃관목을 심고 있으며 삼석구역, 룡성구역을 비롯한 주변 구역과 군에서는 땃나무림과 풍치림 조성을 위해 여러 수종의 나무를 심고 있음.
- 평안북도 정주시는 곳곳에 양묘장을 조성한데 이어 3월 중순부터 노동자, 사무원, 농장원, 청년학생, 가두인민반원들이 나무심기에 나섰음. 오산, 서호, 석산, 남양협 동농장은 농장림을 모범적으로 조성하고 산기슭과 산골짜기, 집 주변에 빨리 자라는 나무와 갖가지 과일나무를 심고 있으며 각 공장, 기업소에서도 공장 구내와 주변에 나무를 심고 있음.

○ 산림보호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28)

- 애써 조성한 산림이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에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보호사업을 잘해야 함. 산림감독원들은 산림보호사업을 군중적으로 벌리기 위한 해설선전사업을 적극 실시해야 함. 이와 함께 산불방지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 담당 산림구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입산 질서를 준수하도록 해야 함. 또한 인근 농장과 연계하여 산불감시원을 두고 만약의 산불 사고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함. 산림감독원들은 각종 가축들에 의해 새로 심은 어린 나무들이 상하지 않도록 가축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어린 나무를 베는 일이 없도록 관리사업을 잘해야 함.
- 평안남도 덕천 시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서는 산불통보체계, 군중동원체계를 세우고 산불감시와 산불예방을 해나가고 있음. 일정한 구역마다 산불감시원들을 두고 해당 구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음.

○ 각지의 산림 조성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28)

- 함경북도 산림관리처 일군들은 각 시, 군, 구역의 공업림 경영소와 나무모재배지에서 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구덩이파기, 나무뿌리보양재 준비를 잘하도록 하고 있음.
- 함경남도 단천시는 올해 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수백정보의 산과 들에 나무를 심을 목표를 세우고 일군, 근로자, 가두여성, 청년학생들을 동원하여 시 주변 야

산과 신단천지구의 공원, 살림집 주변, 도로변에 1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음. 이어 달전지구를 비롯한 30여개 지구에 나무심기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자강도산림과학연구소는 좋은 수종의 나무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나무모밭에 2~3년 심어 가꾼 뒤 산에 옮겨 심던 나무모 생산방법을 공업화할 수 있는 새로운 나무모 생산방법을 연구완성하였음. 좋은 수종의 나무를 한번에 수천, 수만그루씩 확대번식하여 보급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일손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적은 토지에서 수많은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으며 연구소 온실에서 아카시아, 참오동나무, 밤나무 등 좋은 수종의 나무모를 짧은 기간에 수십만 그루나 생산하였음.

○ 평양시 순안구역 산림경영소의 산림조성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29)

- 평양시 순안구역 산림경영소는 구역나무모밭을 잘 가꾸어 많은 나무모를 생산하고 있음. 나무모 작업반은 거름원천이 부족한 조건에서 북데기도 걷어들이고 가축우리 바닥도 파내면서 도시의 진거름과 잘 섞혀 생산한 질 좋은 거름으로 나무모밭을 비옥하게 가꾸고 나무모를 실하게 키워내고 있음.
- 또한 산림경영소에서는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나무모 생산에 합리적인 기계를 이용하고 있음.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창안에 힘입어 개발된 나무씨뿌리는기계는 자재를 적게 들이면서 쉽게 만들어 이용할 수 있음. 산림경영소는 이 기계의 도입으로 앞선 시비방법을 받아들이고 김매기를 쉽게 할 수 있는 후치날을 제작하여 일손부족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음.

○ 평안북도의 산림 조성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30)

- 평안북도는 태천, 삭주군 등의 나무모밭 재배 경험을 일반화하는 동시에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에서 자체적으로 나무모밭을 조성하도록 하였음. 선천, 동림, 운산, 철산군을 비롯한 다른 시, 군에서도 나무모 생산사업을 적극 벌려 올해 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를 충분히 마련하였음. 도에서는 적기에 나무를 심기 위해 군중을 조직동원하여 나무심기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박정광이 일하는 타조목장의 식수작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30)

- 박정광이 일하는 타조목장은 해마다 여러 지구에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온 성과와 경험을 살려 올해 봄철나무심기월간에 각 지구에 수만 그루의 나무를 배합하여 심기로 하였음. 목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성한 양묘장에서 수삼나무, 은행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나무심기 현장에 공급하고 있음.

○ 평양시 삼석구역의 밤나무림 조성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18)

- 평양시 삼석구역은 2~3년 동안 16정보에 달하는 밤나무림을 새로 조성할 목표를 세우고 밤나무림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구역 일군들은 구역 소재지에서 40여 리 떨어진 산골짜기에서 밤나무모를 마련하였으며 기관, 기업소, 공장들에 밤나무 모 옮겨심기계획량을 분담시켜 밤나무를 심고 있음.

○ 평안남도 남포시의 나무모밭 조성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19)

- 평안남도 남포시 국토부문은 모체나무모 생산기지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일군들은 앞선 나무모생산기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얻은 좋은 생산경험을 시내 다른 나무모생산기지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해마다 나무모생산계획을 초과달성함으로써 주요 도로와 철길 주변 산들에 산림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각지의 산림조성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4. 20)

- 평양시 평천구역 원림사업소는 구역 내 원림조성정형을 파악하고 수삼나무, 은행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을 전망계획을 세웠음. 그리고 구역 내 빈땅을 이용하여 넓은 면적에 나무모밭을 조성하였음. 봉남, 정평, 해운작업반을 비롯한 각 작업반에서는 거리에 있던 나무를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교체하는 사업을 질적으로 하고 있음.
- 평안북도 동림군 산림경영소는 읍에서 가까운 오봉지구 산기슭에 실험실, 싹틔우기실, 종자보관창고 등 작업반 성원들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양묘장을 건설하였음. 이와 함께 10여 정보의 나무모밭을 조성한데 이어 채종체계와 육종체계를 확립하여 창성이깔나무, 아카시아, 평양포플러 등 수종이 좋은 15종의 나무모를 기르고 있음. 지난해 이곳 양묘장은 69만 그루의 여러 가지 나무모를 생산하였고 앞으로 생산하게 될 나무모로 1,4000여 정보의 산림을 조성하게 된다고 함.

○ 평안북도 운산군의 땀나무림 조성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22)

- 평안북도 운산군은 땀나무림 조성을 위해 나무모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별로 나무모밭을 마련하여 필요한 나무모를 생산하고 있으며 각 협동농장을 비롯하여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자기 단위의 조림구역에서 기술규정대로 많은 아카시아나무를 심고 있음.

○ 산림의 환경보호적 역할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23)

- 산림이 환경보호에 미치는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스 및 먼지흡착작용과 소음막기작용임.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대기 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함. 해마다 대기 중에 탄산가스가 생겨나고 일산화탄소 방출량이 주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대기 중에 그 농도가 높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산림의 광합성작용 때문임.
- 또한 산림은 여러 가지 유독성가스를 흡수하며 대기 중에 떠 있는 먼지가 공중에 떠오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기를 정화해주는 역할을 함. 이와 함께 나무숲의 폭이 넓고 길수록, 식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무성할수록 소음막이효과가 큼. 또한 산림은 바람에 대한 큰 저항체로써 나무 뒤에서 발생하는 회리의 확산현상에 의해 산림주변의 바람속도를 약화시킴. 이 밖에도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기온을 조절하는 환경보호적 역할을 하기도 함.

○ 북부고산지대의 산림조성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4. 24)

- 함경북도는 올해 나무심기목표의 85% 이상을 봄철에 달성하기로 하고 시, 군, 구역에 용재림, 경제림, 기름나무림 등 그 용도에 따라 나무심기 면적과 그루 수를 정해주었음. 김책시에서 올봄에 800여 정보에 나무를 심기로 한 가운데 시 일군들과 근로자, 청소년학생들은 림명지구, 만춘지구, 옥천지구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나무를 심었으며 쌍룡광산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만춘지구의 55정보에 잣나무를 심고 있음. 화성군은 400여 정보의 땔나무림을 조성하기 위해 이미 키운 42만 그루의 아카시아나무모를 심고 있음.
- 자강도 강계시는 홍주지구로부터 석조지구에서 이르는 10여km에 달하는 도로 뒷산에 2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음. 시청년동맹에서 봄철나무심기 실적을 올리는 가운데 각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에서는 북부고산지대의 특성에 맞게 적기에 나무를 뜨는 작업과 심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 인민군 군인들의 봄철나무심기작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26)

- 조선인민군 김수학소속부대 일군들은 현지를 답사해보고 필요한 나무모를 준비하여 나무를 심었으며 리종남소속부대는 주둔지역의 기후풍토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의 나무를 선택하여 나무모 준비, 구덩이파기, 밑거름주기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였음. 조선인민군 김규명소속부대를 비롯한 많은 인민군부대들은 나무모밭을 조성하고 자체적으로 나무모를 생산하여 나무심기실적을 올렸음.

○ 함경남도 장진군의 산림조성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28)

- 함경남도 장진군은 북부고산지대의 특성을 따져서 빨리 자라면서도 추위에 잘 견디는 창성이깔나무를 기본수종으로 정하였음. 군은 도로와 읍지구에 이미 1만 수 천그루의 창성이깔나무를 심는 등 산림조성을 군중적으로 진행하였음. 이와 함께 심은 나무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산불방지대책도 세워나가고 있음.

○ 량강도의 식수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4. 30)

- 량강도 국토환경보호관리국은 원림계획에 따라 시, 군별로 나무심기과제를 분담하고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수종이 좋은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도록 하였음. 이와 함께 단위별로 모체양묘장을 조성하고 나무모 생산을 앞서 보장하도록 하였음.
- 혜산시는 군중적 운동으로 단 며칠 사이에 2만 5,000여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거리, 공원, 유원지에 심었으며 각급 학교 청소년학생들이 시 주변 야산에 많은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음. 특히 김정숙군은 장항리, 신상리 등 군 곳곳에 모체양묘장을 전망성있게 조성하여 봄철 나무심기 기간에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음. 대흥단군, 백암군, 삼지연군 등에서도 경제림, 용재림, 풍치림 조성사업을 설계하고 수종별로 나무심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황해북도 서흥군의 밤나무림 조성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9)

- 황해북도 서흥군은 올해 밤나무림을 대대적으로 늘리기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밤나무 심을 적기에 구덩이를 파고 질 좋은 거름을 실어냈으며 산림경영소는 나무모양이 좋고 생산성이 높은 밤나무모를 선별하여 튼튼하게 키웠음.
- 봄철에 들어서면서 군은 밤나무모심기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금릉리 산림감독원들은 밤나무모를 키우면서 밤나무모심기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밤나무모심기 인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120여 정보에 밤나무모를 심었음. 송월, 양암리 등에서도 많은 면적에 밤나무모를 심는데 이어 농경지 주변, 길가, 개인세대에서도 밤나무를 심었음.

○ 평양시 중화군의 식수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23)

- 평양시 중화군은 올해 산림조성에 앞서 사전준비에 힘을 쏟았음. 군양묘장을 잘 이용하고 땅을 개간하며 종자파종과 비배관리 등 나무모기르기를 성과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나무모가 부족하였음. 군일군들은 나무모 생산을 늘리기 위해 산림감독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숲사이 나무모기르기를 하도록 하여 양묘장을 10여 정보

나 늘렸음. 이와 함께 모든 단위에서 실정에 맞게 자체 양묘장을 조성하여 20여 정보가 늘어났음.

- 군은 산림경영소에서 자동차 정비와 연료확보사업 등을 철저히 하여 나무심기가 시작되면 나무모를 해당 장소에 실어다주도록 조직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운수기재를 제때 준비하지 못한 단위에서 운반차질로 나무모를 죽이는 등의 문제가 해결되었음. 중화군은 사전준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조직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나무심기면적을 100여 정보나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황해북도 곡산군의 바람막이숲 조성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27)

- 황해북도 곡산군은 바람막이숲과 땀나무림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음. 군은 나무심기 준비를 끝내고 평암리, 룰리, 송림리와 현암리를 비롯한 각 리에 작업을 분담시켜 나무심기를 진행하고 있음.
-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일군들은 포전정리를 하면서 폭이 좁은 구역은 여러 줄로 촘촘히 나무를 심도록 하고 땅의 상태와 바람방향에 맞게 수종을 배치하며 습한 지대에는 배수로를 치면서 나무를 심고 받침목을 세웠음. 이로써 군은 며칠 사이에 4,500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500여리 바람막이숲의 폭을 넓히고 땀나무림 430여 정보를 조성하였음.

○ 임업성의 나무심기계획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30)

- 임업성과 각도 산림관리처는 올해 나무심기계획을 세우고 봄철에 연간 나무심기계획의 90%이상을 수행하기 위해 나무모생산을 조직하는 한편 산하 단위에서 식수준비를 하도록 하였음. 자강도산림관리처는 조직배양기술을 받아들여 한해에 100만그루의 나무모를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봄철나무심기가 전군중적으로 진행되었음. 이로써 함경북도, 자강도, 평안북도에서는 계획보다 1,000~1,500정보에 나무를 더 심는 등 20일 현재, 연간나무심기계획을 103.1%로 완수하였음.

8. 과수, 콩

- 농업성 과수관리국은 각지 농업근로자들이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맞으며 열매가 빨리 달리고 수확고가 높은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대대적으로 심도록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와 함께 키낮은 사과나무밭 면적을 늘릴 계획을 세우고 일군들을 각 농장에 파견하여 키낮은 사과나무모를 빠른 기간에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과수

- 강원도 고산과수농장의 키낮은 사과나무밭 조성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23)
 - 강원도 고산과수농장은 새 품종의 키낮은 사과나무를 모든 과수원에 심을 계획을 세우고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키낮은 사과나무의 경제성과 생물학적 특성, 심기와 가꾸기의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기술학습을 조직진행하였음.
 - 시범단위로 선정된 제2작업반은 해마다 키낮은 사과나무를 심고 비배관리를 하여 나무의 사름률을 높였고 지난해 3정보의 키낮은 사과나무밭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농장은 제2작업반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각 작업반에서 나무모 준비를 비롯한 물질적 준비를 갖추도록 한데 이어 구덩이파기와 거름내기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과수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11)
 - 농업성 과수관리국은 각지 농업근로자들이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맞으며 열매가 빨리 달리고 수확고가 높은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대대적으로 심도록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와 함께 키낮은 사과나무밭 면적을 늘릴 계획을 세우고 일군들을 각 농장에 파견하여 키낮은 사과나무모를 빠른 기간에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각지 과수농장에서는 과일나무 재배방법 개선사업에 힘을 쏟고 있으며 키낮은 사과나무모를 대대적으로 심고 가꾸면서 이미 있는 다른 과일나무들도 우량품종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황해남도 연안군 해월협동농장의 정원과수 조성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4. 22)

- 황해남도 연안군 해월협동농장은 집집마다 5그루 이상의 과일나무를 심도록 한 김일성의 뜻에 따라 과일나무모를 생산하여 집집마다 나누어주는 한편 집들의 위치와 토양조건, 특성에 맞게 정원과수를 잘하도록 하였음.
- 올봄에 농장은 키낮은 사과나무를 많이 생산하여 집집마다 나누어 주었고 최근 며칠동안에 수백그루의 과일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음. 이로써 농장은 집집마다 평균 10그루 이상의 과일나무를 심어 가꾸고 있으며 철따라 살구, 자두, 사과, 배, 밤, 감 등 갖가지 과일을 수확하고 있음.

○ 평안북도 선천과수농장의 키낮은 사과나무 비배관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4. 23)

- 평안북도 선천과수농장은 키낮은 사과나무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인암, 상사지구의 작업반들은 키낮은 사과나무밭의 거름주기와 땅다루기작업을 주체농법에 맞게 실시하고 있으며 락원작업반에서도 새로 심은 키낮은 사과나무들에 땅고루기, 물주기를 하고 있음.

○ 황해남도의 정원과수조성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28)

- 황해남도 시, 군당위원회와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각 농장의 정원과수 조성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이어 시, 군들에서는 과일나무모 생산기지를 조성해 놓고 해마다 봄, 가을에 농촌가정에 갖가지 과일나무모를 공급해주고 있음.
- 삼천군은 집집마다 5그루 이상의 과일나무를 심는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연안, 안악, 재령, 신천군 등에서도 집집마다 과일나무를 적극 심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황해남도 농촌살림집의 정원과수는 이미 10여 종에 백수십만 그루에 달하는데 이는 농호당 평균 5그루 이상의 과일나무를 심은 것임.

○ 함경남도 북청군 룡전리 문화협동농장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18)

- 함경남도 북청군 룡전리 문화협동농장은 새로운 품종의 키낮은 사과나무를 심는 것을 비롯하여 과일생산을 과학화, 현대화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음. 농장은 키낮은 사과나무 심기에 앞서 농장원들을 대상으로 키낮은 사과나무의 생태학적 특성, 심는 방법, 비배관리 등에 대한 기술학습을 진행하고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게 하였음.
- 농장은 올해 봄까지 2차에 걸쳐 과일밭에 질 좋은 퇴비를 정당 100톤씩 내고 수만 그루의 키낮은 사과나무를 기술규정대로 심었음. 과수작업반들은 키낮은 사과나

무에 물주기와 거름주기를 잘하고 있으며 작업량을 줄이면서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계화목표를 계획대로 집행해나가고 있음.

○ 평안남도 안주시 남철협동농장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25)

- 평안남도 안주시 남철협동농장은 축산부산물로 과수밭 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수 분조에 축산기지를 조성하였음. 가축우리를 건설하면서 우량품종의 가축 확보와 먹이문제해결에 힘을 쏟은 결과 가축 수가 늘어나고 거름생산실적도 올랐음. 과수 분조에서는 거름원천을 가축우리에 뱉혀내고 퇴적장에 쌓은 거름무지 뒤져주기도 기술규정대로 하여 키낮은 사과나무밭을 낼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있음.

○ 각지 과수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1)

- 함경남도 함주군 운동리는 모든 농가에서 정원과수를 5그루 이상 심도록 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였음. 리에서는 다른 지방에서 나무모를 구해 각 세대에 공급하고 재배방법을 알려주면서 정원과수심기를 적극 추진하였음. 현재 이곳 농장은 정원과수가 5,300여 그루나 되며 한해에 500여 톤의 과일을 생산한다고 함.
- 평안북도 피현군은 정원과수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 새로 지은 살림집들에 1만여 그루의 과일나무를 심었음. 광암협동농장은 올해 봄에 살구, 배, 사과, 복숭아 등 2,000그루의 과일나무를 심었으며 충렬협동농장은 각 농가마다 8그루 이상씩 과일나무를 심어 탁아소와 유치원, 군인들에게 보내주었음.

○ 함경남도의 과수 재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6)

- 함경남도는 정원과수심기사업을 실시하면서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알려주고 정원과수가꾸기에서 모범을 보인 가정과 단위들을 소개선전하고 있음. 도내 각 시, 군에서 지대적 특성에 맞는 과일나무품종을 정해 심고 가꾸는 가운데 특히 함주군 운동협동농장은 세대당 평균 13그루의 정원과수를 심는 등 모든 농가에서 살구, 포도, 앵두, 감나무를 비롯한 10여 종의 정원과수를 심었음.

○ 농업과학원 과수학연구소의 연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8)

- 농업과학원 과수학연구소는 김정일의 종자혁명 방침에 따라 우량종자를 육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연구소는 생산성이 높은 사과나무, 병해충 피해가 없고 수확고가 높은 밤나무품종을 육종하는 등 과수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종합적인 연구기지로 거듭나고 있음.

○ 평안북도 염주군 삼개협동농장의 과수 비배관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6. 24)

- 평안북도 염주군 삼개협동농장은 과수 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농장은 과일나무가지 자르기와 거름주기를 기술규정대로 진행하고 나무모 기르기를 전망성 있게 하고 있음. 키낮은 사과나무모를 많이 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좋은 품종의 배, 복숭아, 살구나무모 생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콩은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아 타 작물에 비해 질소와 린을 비롯한 영양원소의 요구량이 많음. 다수확콩종자는 비료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각지 협동농장에서는 콩밭에 더 많은 유기질비료를 내야 함. 경작지의 산성화를 막고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는 것이 좋는데 콩수확고를 높이려면 정보당 20톤 정도의 유기질비료를 내야 함.

□ 콩

○ 콩 재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16)

- 김정일은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콩농사를 장려하면서 종자와 적지 선정, 기계화, 관수 등 콩농사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밝혀 주었음. 콩농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콩농사를 장려한 김정일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혁명적인 군인품성을 따라 배워 콩농사를 성과적으로 실시해야 함.
- 지력이 높고 관수조건이 좋은 땅을 콩농사 적지로 정하고 주작과 뒤그루, 사이그루 재배방법을 널리 받아들여야 함. 각 농촌에서는 실정에 맞게 선진 콩농사기술을 제때에 농업근로자들에게 보급하고 해당 지방의 기후풍토조건에 적합한 다수확품종을 받아들이는 등 콩농사의 모든 과정을 주체농법에 따라 실시해야 함.
- 해당 부문에서는 콩발관수와 콩농사의 기계화에 필요한 양수동력설비와 파종기, 탈곡기 등 설비를 제때에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함. 이와 함께 수확한 콩의 운반과 보관, 가공을 제때에 기술규정대로 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하며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콩생산을 과학화, 현대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
- 평양시 강남군은 콩농사의 기계화 실현을 위해 콩심는 기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농기계창안사업을 벌리고 있음. 군에서는 이용가치가 큰 콩심는 기계를 중점적으로 제작하면서 콩면적이 넓은 농장들은 연결농기계식, 콩면적이 작은 농장은 축력식 콩심는 기계를 사용하도록 해당 농기계를 만들고 있음.
- 함경북도 경성군은 콩농사적지를 확정하고 콩종자 전량을 마련한데 이어 질 좋은

거름을 수십 톤씩 냈으며 회령시는 협동농장마다 콩농사전문작업반을 조직하고 농사차비를 벌리고 있음. 김책시는 지난해보다 콩농사면적을 수십 정보 늘리고 다수확종자를 마련하여 그 보관관리를 잘하면서 콩밭 지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콩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7)

- 전국 각지의 농촌들에서 콩농사를 대대적으로 짓기 위한 준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함경북도는 적지선정에서부터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씨뿌리기와 가꾸기 등 콩농사의 모든 공정을 주체농법에 맞게 실시하고 있으며 평안북도는 모든 협동농장의 콩밭에 2톤 이상의 흙보산비료를 널 목표를 세우고 비료 생산과 실어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황해남도는 거름 실어내기를 끝내고 콩밭관수 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황해북도는 콩밭관수에 사용할 관을 생산하기 위해 파비닐 모으기를 군중적으로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콩농사 장려정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9)

- 김정일은 인민군 부대에서 콩농사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온 나라에 일반화하여 콩농사를 대대적으로 짓도록 하였음. 우리 인민들이 만들어 먹는 콩음식은 간장, 된장을 비롯해 두부, 순두부, 비지와 콩나물, 콩나물밥과 콩나물국, 콩국과 콩자반, 콩기름 등 수없이 많음. 김정일은 도처에 콩을 가공하여 질 좋은 식품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기초식품공장과 기지를 건설하도록 하였고 콩을 원그루와 뒤키투로도 재배하여 생산량을 늘리며 논두렁콩을 많이 심도록 하고 있음.

○ 콩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20)

- 함경남도 신흥군 중평협동농장은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에서 농장원들을 대상으로 다수확 콩종자에 대한 기술적 특성과 땅다루기, 김매기, 거름주기 등을 지도하고 있음. 황해북도 황주군 룡천협동농장은 경지별로 분수식 관수, 강우기 관수, 고랑관수로 관수방법을 정해놓고 물길과 굴포를 만들고 있음. 함경북도 길주군 농기계작업소는 콩농사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해 콩파종기를 비롯한 농기계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김정일의 콩농사 장려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20)

- 김정일은 지난해 10월 박윤화가 일하는 농장을 다시 방문하여 뒤키투 콩재배에서 성과를 거둔 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콩농사를 적극 장려하도록 하고 그 생산을 늘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었음. 김정일은 현재 농촌

실정에서 콩 생산이 저조한 상태임을 파악하고 먹는 기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의 하나로 콩농사를 장려하면서 그 대책을 마련해주었음.

- 김정일은 1999년 9월 자강도의 어느 한 군을 현지지도하면서 콩농사를 장려하였으며 지난해 9월에도 일군들에게 이모작농사로 밀과 보리, 감자와 함께 콩을 많이 심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었음.

○ 남포시 강서군 삼묘협동농장의 콩농사 차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27)

- 남포시 강서군 삼묘협동농장은 콩밭적지를 선정하고 필요한 종자와 거름준비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음. 농장에서는 개천-태성호물길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대적 조건에 맞게 강우기와 비닐관 등 관수설비를 갖추고 있음.

○ 황해남도 안악군 로암협동농장의 콩농사(민주조선 3. 27)

- 황해남도 안악군 로암협동농장은 지난해보다 100여 정보 늘어난 콩밭을 비옥하게 가꾸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농장에서는 과학적인 계산 하에 콩밭에 2만여 톤의 썩은 흙갈이를 1월 말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인력과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였음. 흙갈이작업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보름 여의 기간 동안에 계획대로 썩은 흙을 파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흙보산비료와 소석회도 충분히 내서 콩밭을 기름지게 가꾸었음.

○ ‘콩농사에 좋은 유기질비료’라는 글을 게재(로동신문 4. 20)

- 콩농사를 잘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콩밭에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는 것임. 유기질비료에는 두엄, 진거름, 풀거름, 여러 가지 농부산물 등이 속하며 농작물에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원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완전비료라고도 함. 콩은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아 타 작물에 비해 질소와 린을 비롯한 영양원소의 요구량이 많음. 더욱이 다수확콩종자는 비료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각지 협동농장에서는 콩밭에 더 많은 유기질비료를 내야 함. 경작지의 산성화를 막고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는 것이 좋은데 콩수확고를 높이려면 정보당 20톤 정도의 유기질비료를 내야 함.
- 유기질비료는 거름을 생산하는 방법과 흙보산비료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만들 수 있음. 콩을 밀, 보리 뒤그루로 심는 경우 앞그루로 심었던 밀, 보리짚을 썩히면 좋은 거름원천이 되며 가축우리에서 나오는 거름과 여러 가지 거름을 콩밭에 많이 내야 함. 흙보산비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콩밭에 내야 함.

○ 콩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23)

- 콩 심는 시기를 앞두고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콩을 제 철에 질적으로 심어야 함. 콩품종의 특성과 지대적 조건에 맞게 심는 시기와 평당 포기수를 바로 정해야 함.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본보기단위의 앞선 콩농사경험을 적극 받아들여 토양물기조건에 따라 과학적인 콩심기방법을 받아들이고 기계화를 적극 실현해야 함.
- 평안남도 성천군 읍협동농장은 밀뒤그루로 콩농사를 하는 조건에서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콩파종기 제작에 힘을 쏟고 있음.
- 강원도 원산시 세길협동농장은 콩농사에 사용할 비료생산을 위해 흙보산비료 생산조를 조직하였음. 농장원들은 흙보산비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으며 습도보장부터 원료 배합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기술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함경북도 부령군은 콩밭관수준비가 한창임. 물길을 파고 양수장을 건설하며 관수에 필요한 관을 생산하는 가운데 유허자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부속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도 제때에 보장하고 있음. 고랑관수와 분수식 관수, 강우관수를 위한 모든 관수시설이 기술규정대로 건설되고 있음.

○ 콩 재배 방법과 대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

- 콩생산을 늘리기 위한 앞선 재배기술 중에 두둑식 좁은줄 밀식재배가 대표적임. 이 재배방법은 너비가 1.2~1.4m인 두둑을 만들고 그 위에 콩을 줄사이 거리가 16~30cm 되도록 4~6줄로 정보당 35~50만 포기씩 심음. 여기서 기본은 이랑재배와는 달리 포기 사이거리, 줄 사이거리가 거의 같도록 포기배치를 균등하게 하면서 촘촘히 심어 빛과 토양의 이용률을 최대한 높여 단위면적당 수확고를 높이는 데 있음. 이 재배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잘 넘어지지 않는 키낮은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하는 것이라고 함.
- 콩을 다수확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과학적으로 해야 함. 유기질비료를 많이 주는 것과 함께 질소, 린 등을 합리적으로 주는 것이 기본임. 시비경험에 의하면 정보당 유기질비료는 30톤 이상, 질소와 린, 칼륨은 1 : 1.3~1.5 : 0.8~1의 비율로 시비하는 것이 좋다고 함.
- 다음으로 관수가 중요함. 콩은 1톤당 물요구량이 1,820m³로 꽃피는 시기와 꼬투리 맺는 시기에 가물면 수확고가 46%나 떨어진다고 함. 이와 함께 관수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의 기후조건과 토양 물기함량에 따라 제때에 물을 공급하는 것임.

- 콩 재배 시 시비 및 관수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연작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함. 밭에 콩만 심을 경우 토양의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뿌리활성이 낮아져 제대로 자라지 못하므로 강냉이나 밀, 감자 등과 그루바꿈하여 심도록 함.

○ 각지의 콩심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7)

- 황해북도에서는 책임일군들이 콩 재배면적이 많은 시, 군에 나가 농장원들이 콩심기에 적극 나서도록 포전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콩심기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평안남도는 콩과종기를 적극 이용하여 품종별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콩을 심고 있음. 황해남도도 밭 조건과 작업반의 실정에 맞게 고랑관수와 분수식 관수, 강우관수를 적극 이용하고 있으며 굴포 및 저수지 관리와 이용을 잘하고 있음.

○ 황해남도의 콩심기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8)

- 황해남도 농촌경리위원회는 콩심기를 앞두고 영농물자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모든 단위에서 계획대로 콩심기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벽성, 은천, 신천군 등에서는 여러 가지 농사일을 겹쳐 진행하는 조건에서 일손관리, 작업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음. 강령, 웅진군은 정보당 20여 톤의 거름과 흙보 산비료를 내면서 콩을 심고 있으며 청단, 연안군은 콩심는 기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작업의 속도와 질을 높이고 있음.

○ 황해북도의 콩 씨불임작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0)

- 황해북도는 계획된 씨불임면적을 보장하면서 질 좋은 거름을 정보당 20톤 이상씩 내도록 하고 있음. 특히 관수조건이 좋은 지대를 선정하여 씨불임적지를 확정하고 고랑관수, 분수식 관수 등 관수보장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각 협동농장들은 모내기를 앞두고 일손조직을 효율적으로 하고 콩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들과 중소농기구들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콩종자를 심고 있음.

○ 콩음식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0)

-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은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콩우유직장에서 생산한 콩우유를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과 소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 평안북도 의주군은 군소재지의 학생들과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 군 내 각 협동농장에서는 콩우유 생산에 필요한 콩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콩농사에 힘을 쏟고 있음.

○ 콩심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2)

- 황해남도 신천군 근로자협동농장은 각 작업반, 분조에 일군들을 파견하여 콩심기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해설해주고 있음. 제8, 3작업반에서 일군들은 밑거름의 질과 양, 씨앗이 묻히는 깊이와 토양의 습도 등에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농장원들이 과학기술적으로 콩을 심도록 하고 있음. 특히 제8작업반은 작업반원들의 나이와 능력에 따라 작업분담을 하고 분조장들이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음.
- 남송기순이 일하는 농장은 콩을 제철에 질적으로 심도록 하는 한편 물길트기와 물길둑 보수를 통해 이미 마련해놓은 저수지 관리에 힘을 쏟고 있음. 이와 함께 지대적 조건에 맞게 모든 콩밭에 물을 넉넉히 댈 수 있도록 이동양수설비도 갖추고 있음.
- 여러 품종의 콩종자를 심는 조건에서 콩품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각 품종의 기술지표에 맞게 과학기술적 조건을 지켜야 빈포기를 없애고 초기생육을 좋게 할 수 있음.
- 땅다루기를 잘해야 함. 밭갈이를 잘하고 씨레를 질적으로 쳐야 땅에 공기가 잘 통하여 종자의 싹트기도 잘되고 뿌리혹균도 많이 생기게 됨.
- 콩씨앗을 잘 골라 심어야 함. 콩종자는 파종하기 전에 콩알색, 알의 광택, 모양과 크기, 눈색 등을 보고 해당 품종의 고유한 특징을 가진 것을 골라 심어야 함.
- 콩심는 시기를 잘 정해야 함. 해당 지역의 봄철 기상기후조건을 따져 콩심는 시기를 바로 정해야 빈포기도 없애고 수확고도 높일 수 있음.
- 토양습도를 보장해야 함. 콩을 심는 5~6월에는 대체로 가물기 때문에 물보장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콩의 싹트기와 단위당 수확고가 결정됨.

○ 평양시 강남군 신흥협동농장의 콩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3)

- 평양시 강남군 신흥협동농장은 올해 콩재배면적을 확장계획을 세우면서 과일나무를 재배했던 수십 정보의 밭에 콩을 심기로 하였음. 그러나 그 밭은 양수장에서 거리가 가장 멀기 때문에 용수공급이 어려웠음. 이에 농장에서는 물길둑정리사업을 벌려 굴착기를 비롯한 기계수단을 동원하고 작업반별로 공사구간을 맡겨 짧은 기간에 1,200여m의 물길공사를 끝냄으로써 대동강물을 용수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

○ 콩농사의 기계화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8)

- 농업과학원 농업기계화연구소는 성능이 좋은 콩파종기를 개발하였음. 공기식 정밀파종기로 콩과 강냉이를 비롯한 밭곡식파종은 물론 비료주기도 할 수 있으며 각이한 이랑너비와 평당 포기수, 포기당 대수를 보장할 수 있음.
- 콩파종기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한가지는 콩종자 준비임. 콩파종기가 종자를 이랑에 한두알씩 뿌리는 조건에서 싹틀 수 없는 종자나 이색물이 섞이면 빈포기가 생기기 때문에 콩파종기를 이용하는 단위들은 콩을 심기 전에 종자고르기를 해야 함.
- 이 콩파종기는 평당 포기수에 따라 포기 사이 거리를 조절하고 포기당 알수에 맞게 원판을 교체하거나 떨굼장치를 조절할 수 있으며 파종깊이와 비료뿌림량, 이랑 사이 거리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콩품종별 특성과 파종기의 조절 방법을 숙지하면 콩심기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음.
- 강원도 평강군은 실정에 맞게 간편하고 능률이 높은 콩파종기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데 충력을 기울였음. 군농기계작업소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방조 밑에 각 협동농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콩파종기를 제작한데 이어 콩심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북계협동농장은 질 좋은 거름을 내면서 콩파종기를 이용하여 제철에 콩을 심고 있으며 상갑, 전승, 랑하, 천암협동농장에서도 콩파종기로 콩심기작업을 다그치고 있음.
- 황해북도 황주군 룡천협동농장은 수백정보에 콩을 심게 되는 조건에서 적기를 보장하기 위해 콩파종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계를 적극 이용하고 있음. 제12작업반은 콩품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콩파종기로 콩심기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고 있음. 제10작업반은 콩종자 선별과 균처리를 비롯한 종자준비에 힘을 쏟고 비료주기와 종자가 묻히는 깊이보장 등을 주체농법에 맞게 하고 있음.

○ 함경북도 연사군의 콩심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23)

- 함경북도 연사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올해 콩재배면적을 확장하고 준비사업을 잘하여 적기에 콩심기를 끝내도록 하였음. 일군들은 우량품종 종자의 처리를 잘하고 모든 협동농장에서 정보당 30톤 이상의 거름을 낸 뒤 주체농법에 맞게 콩심기를 하도록 하였음.

○ 콩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26)

- 평안북도와 황해남도는 콩밭에 정보당 수십 톤의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내고 일손과 기계수단을 집중하여 다수확품종의 콩종자를 심고 있음. 황해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북도에서도 콩밭적지를 정하고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알수를 보장하면서 콩심기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강원도, 량강도, 평양시, 자강도는 일손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기계수단을 집중하여 콩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고 있음.

○ 평안남도 숙천군의 논두렁콩심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8)

- 평안남도 숙천군은 모내기를 하는대로 논두렁콩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고 있음. 논두렁에 콩을 심으면 콩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이 충분히 보장되며 특히 관수문제가 해결되고 바람이 잘 통하여 여느 콩밭보다 높은 수확고를 거둘 수 있음. 약전, 대성, 금풍 등 군내 다른 농장에서도 논두렁콩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관수는 콩농사를 잘 짓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라는 글을 게재(로동신문 6. 10)

- 콩이 싹트고 자라는데 알맞은 토양수분함량은 70%정도로 콩농사에서 관수문제를 소홀히하여서는 높은 소출을 낼 수 없음. 현대적인 관수설비와 앞선 관수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관수면적을 늘려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콩밭관수에 필요한 자재보장대책을 세워야 함. 연안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에서는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몇 달 사이에 수십 톤의 파비닐을 마련하고 콩밭관수에 필요한 비닐관을 자체로 생산보장하였음.
- 이와 함께 기존 관수설비를 정비보강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함. 모든 단위에서는 부족한 관수설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기존 관수설비를 보수하고 전동기, 양수기를 비롯한 양수동력설비를 갖추어야 함. 또한 각 단위의 실정에 맞게 강우관수와 고량관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수를 하도록 함.

○ 콩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12)

- 황해북도 황주군 석산협동농장은 콩의 생육조건에 알맞고 관수하기에 유리한 곳을 콩농사 적지로 정하고 물길트기, 굴포파기 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수방법을 받아들여 콩농사를 짓고 있음.
- 평양시 강남군은 신흥협동농장에서 콩밭관수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콩밭의 특성에 맞게 고량관수, 분수식관수, 강우관수 경험을 소개, 일반화하는 가운데 각 협동농장 일군들은 비탈밭, 평지밭, 양수기의 능력 등에 따른 관수방법을 숙지하고 알맞은 관수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되었음.

- 함경북도 경성군 염분협동농장은 콩밭이 대체로 평지이고 바다 기슭에 위치한 콩밭에는 모래성분이 적지 않은 특성에 맞게 강우관수와 분수식관수 준비를 갖추었음. 강우관수 시 물방울 크기와 물뿌림 세기를 조절하여 콩잎이 상하지 않고 토양 구조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적은 양의 물로 넓은 면적의 콩밭을 적실 수 있는 분수식 방법으로도 관수를 하고 있음.

○ 개성시의 논두렁콩 재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21)

- 개성시 협동농장들은 모내기를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논두렁콩을 심고 있음. 송도, 연릉, 령정, 동창 등 각 협동농장들은 통풍이 잘되고 해비침조건이 좋은 논두렁에 과학기술적으로 콩을 심고 있음.

○ 각지 콩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29)

- 김정일은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콩을 많이 심어 인민들이 콩으로 장을 만들어 먹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2년 전, 김정일은 한 식료공장을 방문하여 현대적인 기초식품생산공정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콩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협동농장에서 콩생산면적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뒤이어 김정일은 인민군부대 산하 어느 한 농장의 뒤그루 콩농사 정형을 살피면서 콩농사를 많이 하면 먹는기름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축산업에 필요한 먹이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민군대의 콩재배를 적극 장려하였음. 김정일의 콩농사 장려 하에 현재 각지 농촌들은 대대적으로 콩을 재배하고 있음.
- 평안남도 평원군 신송협동농장은 콩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해 콩씨뿌리는 기계를 4대나 만들어 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한데 이어 김매기와 관수를 실시하고 있음. 농장에서는 이미 포전머리에 파놓은 10개의 굴포와 13대의 강우기를 비롯한 기존 관수시설들과 양수설비를 수리정비하여 콩밭관수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함경북도 어랑군 읍협동농장은 콩전문작업반을 조직하여 50정보의 적지에 콩을 심었음. 콩전문작업반은 콩밭 애벌김매기를 끝내고 후치질을 하면서 병충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작업반은 농장원들에게 콩종자의 특성과 김매기, 후치질, 병충해방지 등 콩밭가꾸기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알려주고 있음.
- 황해남도 송화군 명례협동농장은 콩밭관수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해 준비사업으로 물길, 굴포, 양수장 건설공사를 진행하였음. 제6작업반의 3정보 콩밭에도 관

수를 할 수 있도록 굴포와 양수장을 건설하였고 제5작업반도 콩밭에 굴포를 만들어 물을 채웠음.

○ 콩비배관리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6. 30)

- 평안북도 운전군 북일협동농장은 올해 품종이 좋은 콩을 주작과 사이그루로 심고 김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농장은 콩심은 날짜와 생육상태, 김이 나온 정도를 따져 포전별, 날짜별 김매기계획을 세운데 이어 작업반, 분조간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여 김매기를 진행하고 있음.
- 황해남도 안악군 마명협동농장 제3, 5작업반은 후치질을 앞세워 김을 매면서 덧거름주기를 비롯한 비배관리에 힘을 쏟고 있음. 콩밭관수와 물빼기에도 관심을 돌려 관수를 제때에 하고 비가 오면 물을 뺄 수 있도록 밭둘레에 도랑도 만들고 있음.

9. 기타 보도 동향

- 제6차 김일성화축전이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동안 평양에서 개최되었음. 이번 축전에는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각 도를 비롯하여 60개 단체와 수많은 개별 근로자들, 군인들,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65만여 명에 달하는 인민군 군인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와 외국인들이 참관하였음. 폐막식에서는 김일성화축전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었음. 품종의 완성 등의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보도

-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 황해남도 장연군의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개관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9)
 - 황해남도 장연군은 건평 220㎡의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건설하였음. 온실에는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각각 재배하는 2개의 재배실과 온실관리에 필요한 설비, 방이 갖추어져 있음.
 -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개관소식을 보도(민주조선 3. 21)
 - 황해남도 재령군과 장연군에 김일성화김정일화 온실이 건설되어 현지에서 개관식이 진행되었음.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해당 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연설자들은 온실 건설로 김일성화, 김정일화 재배기술을 널리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하였음.
 - 제6차 김일성화축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23, 민주조선 3. 23)
 - 제6차 김일성화축전은 2004년 4월 13일부터 김일성화김정일화 전시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김일성화를 널리 재배보급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영농작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황해북도 황주군 청년들의 쉼기모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2, 민주조선 4. 2)
 - 당면한 영농작업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기 위한 황해북도 황주군 청년들의 쉼기

모임이 1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농업부문 청년동맹 일군들과 청년들이 당의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이모작농사방침 관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그리고 청년들이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중요한 영농작업을 도맡아 수행하고 농기계를 제때에 수리정비하여 가동률을 높이는 한편 벼모내기 와 강냉이심기, 김매기 등 영농공정별 작업을 주체농법에 맞게 할 것에 대해 지적하였음.

○ 평양시 김일성화전시회 개막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3, 민주조선 4. 2)

· 평양시 김일성화전시회가 1일, 관상원에서 열렸음. 평양시 각 구역, 군들과 평양산원, 김만유병원, 평양의학대학, 장철구평양상업대학 등 많은 단위에서 600여 상의 김일성화를 출품하였음.

○ 제6차 김일성화축전 개막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14, 민주조선 4. 14)

· 제6차 김일성화축전이 13일, 평양에서 개막되었음. 관계부문 일군들, 내각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시내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강능수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음. 강능수 위원장은 모든 참가자들이 김일성화의 재배와 번식에서 이룬 성과와 경험을 나누고 이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축전이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제6차 김일성화축전 폐막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23, 민주조선 4. 23)

· 제6차 김일성화축전 폐막식이 22일에 진행되었음. 이번 축전에는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각 도를 비롯하여 60개 단체와 수많은 개별 근로자들, 군인들,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65만여 명에 달하는 인민군 군인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와 외국인들이 참관하였음. 폐막식에서는 김일성화축전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었음.

○ 6.19 경축 김정일화전시회 개최소식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1, 민주조선 6. 1)

·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40주년을 맞아 6.19 경축 김정일화전시회가 평양에서 진행될 예정임. 6월 17일부터 일주일간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될 이번 전시회에는 김정일화를 재배하고 있는 성, 중앙기관들과 무력기관들이 참가하며 각 도에서도 6.19 경축 김정일화전시회가 진행되게 됨.

○ 황해북도의 김정일화 재배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3)

- 황해북도는 6.19 경축 도김정일화전시회를 앞두고 김정일화재배사업에 힘을 쏟고 있음. 도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일군들은 기술자, 관리공들을 대상으로 기술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김정일화를 더 많이 키우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재배사업을 벌리고 있음.

○ 6.19 경축 김정일화전시회 준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14)

- 평안남도는 6.19 경축 김정일화전시회를 앞두고 시, 군, 연합기업소들과 연합하여 김정일전시회 준비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도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비롯한 시, 군, 연합기업소 내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서는 빛조절, 온습도 보장과 꽃영양관리를 잘하여 김정일화 피우기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평양시 서성구역은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현대적으로 꾸려 계절에 관계없이 꽃을 재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놓았음.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의 일군들, 원예사, 관리공들은 해비침시간 조절과 물주기 등 모든 재배관리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전시회에 출품할 619상의 김정일화를 키우고 있음.

○ 6.19 경축 김정일화전시회 개막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18, 민주조선 6. 18)

- 김정일의 당중앙위원회 사업 40주년을 맞아 17일, 평양에서 6.19 경축 김정일화전시회가 개막되었음. 관계부문 일군들, 내각위원회,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의 책임 일군들, 전시회에 참가한 단위의 일군들과 시내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한 가운데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강능수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음. 전시회장에는 70여개의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이 출품한 1만 5,000여상의 김정일화가 전시되었음.

□ 각종 모임

○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에 나선 평안남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모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1, 민주조선 4. 1)

- 김정일의 2004년 3월 16일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평안남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쉼기모임이 3월 31일 평성시에서 진행되었음.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정일이 토지정리와 개천-태성호 물길공사의 완성으로 알곡생산의 기초가 마련된 조건에 맞게 종자혁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모작농사를 대대적으로 하며 영농작업의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하는 문제 등 농업생산에 대한 문제들을 가르쳐주었다고 지적하였음.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도의 토지정리와 금성간석지 개간을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끝내고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영농작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황해북도 황주군 청년들의 쉼기모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2, 민주조선 4. 2)

- 당면한 영농작업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기 위한 황해북도 황주군 청년들의 쉼기모임이 1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농업부문 청년동맹 일군들과 청년들이 당의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이모작농사방침 관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그리고 청년들이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중요한 영농작업을 도맡아 수행하고 농기계를 제때에 수리정비하여 가동률을 높이는 한편 벼모내기과 강냉이심기, 김매기 등 영농공정별 작업을 주체농법에 맞게 할 것에 대해 지적하였음.

○ 평안북도 태천군 은홍협동농장 농장원들의 쉼기모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13)

- 올해농사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평안북도 태천군 은홍협동농장 농장원 쉼기모임이 11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허정옥 관리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작업반장 백광철, 트랙터운전수 계명수, 농근맹초급단체 위원장 이춘미가 토론하였음.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벼모내기과 강냉이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대중들이 당면한 영농작업에 적극 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앞그루농작물에 대한 비배관리를 잘하고 뒤그루농사에 힘을 넣어 정보당 수확고를 높임으로써 이모작농사의 생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국의 농업근로자들에게 벼모내기과 강냉이심기를 다그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벌릴 것을 호소하였음.

○ 전국건설자대회 개최 소식을 보도(로동신문 4. 29, 민주조선 4. 29)

- 전국건설자대회가 28일, 평양시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음. 대회에서는 당의 건설정책 관철 과정에서 이룬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건설부문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논의하였음.
- 내각성원들, 성, 중앙기관, 도, 시, 군당, 정권기관 일군들, 연관부문 일군들, 공로

가 있는 건설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배달준 국가건설감독상은 보고에서 지난 50년간 대기념비적 건축물을 수없이 건설해낸 역사에 대해 언급하고 최근 모든 것이 어려운 조건에서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국방공업 건설에 힘을 쏟으면서 공업, 농업, 철도, 도시와 농촌건설 등 기본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것을 지적하였음. 특히 보고자는 토지정리사업과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알곡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뒤이어 진행된 여러 토론 가운데 농업성 부상 강경욱, 토지정리돌격대 평양시여단 정치책임자 박철남, 함경남도농촌경리위원회 부위원장 최승철은 당의 대자연개조 구상에 따라 자연흐름식 물길공사와 토지정리를 다그치고 축산기지를 더 많이 건설하여 강성대국 건설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김정일이 량강도 대홍단군에 진출한 제대군인들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보도(로동신문 5. 1, 민주조선 4. 30)

- 김정일이 량강도 대홍단군에 진출한 제대군인들에게 보낸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29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김정일은 감자농사에서 제대군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문화정서생활을 잘하도록 악기를 선물로 보냈음.

○ 황해남도의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30)

- 황해남도는 당의 청년운동사상에 따라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을 강화하고 있음. 많은 중학교 졸업생들이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에 자원하고 있으며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은 각 군의 농장들에서 알곡생산에 앞장서고 있음.
- 연안군 소아, 오현, 천태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은 30여 정보씩 논을 맡아 지난해 분조별 계획수행률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음. 강령군 평화농장 청년작업반은 이모작 재배면적을 전체 밭면적의 50%로 늘려 높은 생산성과를 거두는 등 도내 농촌들에서 청년분조, 작업반이 급격히 늘어나 현재 178개에 이르고 있음.

□ 농장소개

○ 각 농장의 발전상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17)

- 신창호가 일하는 농장은 봄철을 맞아 잣나무, 평양포플러, 수삼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심기와 마을 꾸리기에 한창임. 농장 일군들은 심은 나무들의 배치를 살피

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각 작업반에서는 길가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함경남도 신흥군 중평협동농장은 1969년 김일성의 현지도에 따라 농장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음. 풀이 무성하던 앞벌을 논으로 만들고 그 옆에 양어장을 건설하였으며 40여 동의 문화주택을 건설하였음.

○ 평안북도 의주군 인민위원회의 가스화, 전기화사업 추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13)

- 평안북도 의주군 인민위원회는 인민생활에 필요한 땔감문제, 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탄가스화와 풍력발전에 의한 전기화사업을 추진하였음. 위원회에서 메탄가스화 도입조와 풍력발전기 제작 및 도입조를 조직하고 군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내부원천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원가를 절감하면서도 최대한의 실리를 낼 수 있는 메탄가스탱크와 풍력발전기 제작에 총력을 기울였음.
- 위원회는 메탄가스화와 풍력발전기를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이 마련되자 메탄가스화 실현과 풍력발전에 의한 전기화 실현을 단계로 나누어 홍암협동농장 과수작업반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음. 이로써 홍암협동농장 과수작업반마을에 짧은 기간에 메탄가스화가 도입되었으며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전기문제가 해결되었음. 의주군에서는 홍암협동농장 과수작업반을 본보기로 일반화사업이 적극 진행되고 있음.

○ 황해북도 농촌경리위원회의 사업 경험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22)

- 황해북도에서 올해 배치하기로 한 벼품종에서 높은 수확을 거두자면 5월말까지 총면적의 50%이상의 논에 모를 내야 함. 농촌경리위원회는 모내기차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비닐박막이 상당량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도 자체적으로 박막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음.
- 위원회는 시범적으로 논벼농사를 많이 하는 은파군에서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과 함께 대중을 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다량의 비닐박막을 재생할 수 있는 원료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은파군에서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닐박막 방식상학을 진행하였고 재생하는 비닐박막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하였음. 이로써 도내 농촌들은 비닐박막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어느 단위에서나 계획한 비닐박막 전량을 해결하고 씨뿌리기를 하고 있음.

○ 현대적인 농촌마을 조성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6. 16)

- 대규모 규격포전으로 정리된 수십만 정보의 인공평야, 자연흐름식 관개물길, 수백 수천의 농목장, 양어장 등 현대적인 창조물과 더불어 새 농촌마을이 전국 각지에 조성되었음. 중강군 오수덕의 50동 마을, 청단군 심평리 35동 마을, 개성시 평화리 65동 마을, 이천군 읍협동농장 69동 마을을 비롯하여 지난 10년간 도, 시, 군소재지의 새 주택지구를 제외한 농촌지역에 1,600여 개의 마을이 새로 건설되었음.
- 새 마을의 주택들은 대부분 건축면적이 70~100㎡ 정도이고 합각지붕에 전실, 살림방 두세개, 부엌, 위생실, 창고와 가축우리, 텃밭 등 농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갖추어져 있음. 김정일이 방문하여 만족을 표시한 숙천군 장흥리 60동 마을, 성간군 성하농촌지역의 55동 마을, 서흥군 범안리 40동 마을, 경성군 상온포리 80동 마을, 신흥군 중평리 41동 마을 등은 전기난방화, 메탄가스화가 실현되었음.

○ 평안남도 온천군 금당협동농장의 발전상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20)

- 평안남도 온천군 금당협동농장은 10년 전, 6월 어느날 김일성으로부터 협동벌에 거름을 많이 내고 농작물 비배관리를 잘하여 알곡소출을 높이라는 현지교시를 받았음. 농장은 현지교시 관철을 위해 해마다 1만여 톤의 거름을 생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였음. 농장원들은 거름원천을 가축우리에 밍혀내어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기 위해 세대별로 여러 가지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하였고 해마다 집집마다 많은 거름을 생산하였음.
- 이로써 농장에서 매년 정보당 논에 30톤, 밭에 20톤 그리고 흙보산비료 2톤씩을 내어 논밭을 기름지게 가꾸고 벼, 강냉이, 콩 등 여러 가지 농작물을 성과적으로 재배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가뭄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김일성이 제시한 발관수대책을 받아들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관수를 실시함으로써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 수 있었음.

○ 각지 협동농장의 발전상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23)

- 김정일은 농촌을 끊임없이 방문하여 농업생산을 늘리며 농장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조성하도록 과업을 제시하고 이끌어 주었음. 황해남도는 살림집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산기슭에 살림집을 건설하였고 함경남도는 신흥군 중평, 북청군 룡전리 문화, 청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도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였음.
- 이와 함께 서흥군 범안협동농장, 안주시 송학협동농장, 숙천군 미남별 내 농장, 박천군 맹중협동농장, 경성군 염분협동농장, 대흥단군 제대군인들의 살림집마을도 사회주의선경 농장마을로 거듭나게 되었음.

□ 양어

○ 양어 발전추세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22)

- 현 시기 양어는 현대 과학과 기술, 설비를 갖추고 공업화, 현대화되어 가고 있음. 양어에 정보기술을 받아들여 자체 생산계획을 세움으로써 경제효과를 높이고 있음. 이와 함께 민물양어와 함께 바다양어도 그 범위와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양어발전과 더불어 물고기들의 성장발육에 알맞는 각종 먹이처방이 계속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그에 맞게 첨가제들이 개발, 이용되어 먹이의 소화흡수율이 높아지고 있음.

○ 함흥규산염화학공장의 메기 기르기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8)

- 함흥규산염화학공장은 당조직의 지도 하에 메기를 기르고 있음. 공장은 종어못의 수온을 기술규정대로 보장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간 메기알 깨우기와 새끼메기 기르기를 성과적으로 하여 메기생산을 늘리고 있음. 또한 양어작업반은 여러 가지 자연먹이로 배합먹이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음.

○ 황해북도의 양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3)

- 황해북도는 서흥군 범안양어장을 본보기로 모든 시, 군에서 양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연탄군, 황주군은 종어장을 건설한데 이어 새끼고기 생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리원시, 송림시, 평산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에서는 20~30정보 이상의 양어장을 건설하고 물고기생산을 늘리고 있음. 사리원닭공장은 새끼고기와 먹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양어장을 건설하였고 몇해 전부터 해마다 종업원들에게 물고기를 공급하고 있음. 이외 사리원시상하수도난방사업소, 연산군남새상점, 피복공장 등 많은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양어를 하여 많은 물고기를 생산하고 있음.

○ 최중화가 일하는 양어사업소의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23)

- 최중화가 일하는 양어사업소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더운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해마다 메기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새끼메기를 생산하여 여러 지역에 공급하고 있음. 이 사업소는 양어못에서 메기기르기에 이어 봄, 가을에 채소를 심을 계획을 세웠음. 양어못에서 메기기르기와 봄, 가을채소를 심기 위해서는 메기기르기는 기간을 단축해야 함. 사업소에서는 메기살찌우기기간을 4달에서 3달여로 단축하기로 하고 겨울철 종어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알낳이시기를 앞당기고 새끼 메기사름률을 높임으로써 5월에 새끼메기를 양어못에 넣었음.

- 사업소는 1차적으로 메기를 기르고 못의 물을 뺀 뒤 질 좋은 못바닥에서 이모작농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8월 중순이 되면 메기를 모두 공급, 소비한 뒤에 양어못 바닥에 가을채소모를 옮겨심고 11월에 김장용채소를 수확하게 됨. 연이어 시금치와 가을보리를 심어 봄채소와 메기먹이용 보리를 해결할 수 있음.

○ 평안남도 온천양어사업소의 알반이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25)

- 평안남도 온천양어사업소에서 물고기 알반이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사업소는 알반이대와 정화탱크, 부화기 등을 준비하고 알반이 양어못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어미물고기 관리에 힘을 쏟고 있음. 각 양어작업반들은 이달 초부터 붕어, 송어 알반이를 시작하였고 어미물고기를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면서 실리적인 인공수정방법을 도입하여 더 많은 알을 받고 있음.

□ 양잠

○ 전국여맹누에치기열성자회의 개최 소식을 보도(로동신문 4. 28)

- 전국여맹누에치기열성자회의가 27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회의에서는 각급 여맹일군들과 여맹원들이 누에치기에서 이룬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이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가 토의되었음.
- 관계부문 일군들, 중앙과 지방의 여맹일군들, 누에치기에서 모범을 보인 여맹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각지 여맹원들이 지대별 특성에 맞게 뽕밭을 조성하고 뽕밭 비배관리를 잘하여 누에먹이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고치생산량을 늘렸다고 강조하였음. 각 시, 군들에서 빈땅을 찾아 뽕밭을 더 조성하고 모든 여맹원들이 뽕나무를 심고 가꾸며 누에치기 가내반의 조직과 운영을 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이와 함께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 자강도의 봄누에치기작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24)

- 자강도 잠업관리국은 지리적 조건과 기후차이에 따라 지구를 나누고 정한 순서대로 누에알을 공급하였음. 각 시, 군고치생산사업소 산하 작업반들과 분조, 잠업전문협동농장과 잠업농장에서 관리공들은 누에알깨우기와 어린누에를 과학기술적으로 키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와 함께 각 단위에서는 뽕밭 1회 김매기를 끝내고 2회 김매기를 마무리단계에서 진행 중임.

□ 옥수수

○ 황해남도 벽성군의 강냉이영양단지모 옮겨심기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4. 28)

- 황해남도 벽성군 서원협동농장은 날짜별, 필지별로 강냉이영양단지모 옮겨심기계획을 세우고 매일 계획을 1.3배로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상림, 안곡, 내호협동농장은 밭갈이를 앞세우고 강냉이영양단지모 옮겨심기에서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

○ 평양시 주변 농촌들의 강냉이심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0)

-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는 올해 봄에 강냉이심기와 함께 콩심기가 진행되는 조건에서 일손과 기계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지도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작업과정에서 진행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음. 만경대구역 만경대농장, 칠골농장에서는 질을 보장하면서 매일 계획대로 강냉이를 심고 있으며 형제산구역, 대성구역, 상원군, 강동군, 순안구역 등에서도 강냉이심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노농통신원이 보내온 소식을 통해 강냉이밭 김매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14)

- 황해북도 황주군 장천협동농장은 날짜별, 포전별 김매기계획을 세워 강냉이밭 김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함경북도 김책시 은호협동농장은 후치질을 앞세우면서 강냉이밭 김매기를 실속있게 하고 있으며 노력일평가사업을 실시하여 농장원들의 작업열의를 높이고 있음.

○ 각지의 강냉이밭 김매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6. 27)

- 평안남도 개천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일군들을 각 협동농장에 파견하여 강냉이밭 김매기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냉이를 심은 날짜와 김이 나온 상태에 맞게 일손과 영농수단을 집중하여 김매기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평안북도 의주군은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강냉이밭 김매기를 여러 번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김매기작업을 조직하고 있음. 대화협동농장은 포전별, 필지별 김매기 일정계획을 세우고 후치질을 앞세우면서 강냉이밭 김매기를 하고 있음. 홍남, 룡계협동농장에서도 작업반, 분조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매일 김매기계획을 150%이상 수행하고 있음.

○ 평안북도 대관군 로흥협동농장의 수수농사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1)

- 평안북도 대관군 로흥협동농장은 올해 다수확품종의 수수종자를 마련하고 질 좋은 거름을 내는데 총력을 기울였음.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수수밭에 질 좋은 거름을 정보당 30톤씩 낸데 이어 제때에 수수심기를 끝냈음.

□ 채소

○ 평양시 력포구역의 채소모 옮겨심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24)

- 평양시 력포구역은 3모작 채소농사 계획을 세운데 이어 채소농사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넉넉히 마련하고 3모작 채소밭에 50여 톤 이상씩 거름을 실어냈음. 농업부문 일군들은 단계별 채소모 옮겨심기계획에 따라 수백 정보에 달하는 채소밭에 1단계 봄통배추모 옮겨심기를 하고 있음.

○ 평안남도 평원군 송석협동농장의 채소모판 관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6)

- 평안남도 평원군 송석협동농장은 배추, 고추, 가지, 오이, 토마토 등 채소모판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남새작업반 모판관리공들은 온도보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찬바람을 스미지 않도록 바람막이바자와 비닐박막을 항시 손질하는 것은 물론 저녁에는 모판나래를 덮어주어 밤에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모판 물주기, 비료주기, 씨숙음, 김잡이, 바람쏘이기 등 기술공정을 제때에 해나가고 있음.

□ 약초

○ ‘약초자원을 적극 보호증식시키자’라는 글을 게재(로동신문 4. 5)

- 4, 5월 약초재배월간을 맞아 모든 부문, 단위의 일군들 특히 시, 군인민위원회와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이 아래 단위에 약초재배계획을 주고 재배, 채취와 수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조직해야 함. 약초관리소를 비롯한 고려약 생산부문은 약초종자와 약초뿌리를 엄선하고 거름 장만과 모판 준비, 약초 줄기를 올릴 수 있는 나무를 충분히 갖추며 영농기계도 보수정비해야 함.
- 모든 재배단위에서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기후와 토양조건을 분석하여 약초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품종을 배치하고 약초농사를 집약화, 전문화하고

산지약초 재배에 힘을 쏟아야 함. 각급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에서는 약초재배월간사업이 군중적인 사업이 되도록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해야 함.

○ ‘약초를 더 많이 심고 가꾸자’라는 글을 게재(민주조선 4. 20)

- 4, 5월 약초재배월간을 맞아 각급 인민위원회와 보건부문 해당 단위에서는 각 지역의 기후풍토에 맞는 약초품종을 바로 선정하고 약초농사를 과학화, 집약화, 전문화해야 함. 약초를 심을 때에는 약초 품종과 재배계획을 정확히 해야 하며 약초농사에서 이모작 재배를 받아들여 생산을 집약화해야 함.
- 약초재배단위에서는 약초밭 김매기 등 비배관리를 잘하고 병해충 피해대책도 세워나가야 함. 또한 약초 한뿌리를 캐면 두세 뿌리를 심는 원칙에서 약초자원을 보호증식시켜야 함. 각급 정권기관 일군들은 군중들이 약초재배월간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전군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함.

○ 자강도 시중군의 약초재배월간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2)

- 자강도 시중군 인민위원회는 약초재배월간을 맞아 약초밭들의 지대별, 필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약초 종류를 선정하고 심도록 하며 약초품종별 채취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웠음. 이와 함께 일군들을 해당 단위에 파견하여 약초심기와 채취를 제때에 하도록 하고 군중동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영흥리인민병원을 비롯한 군내 보건기관들은 비경지에 밭갈이, 두둑짓기를 하고 정보당 수십푼씩의 거름을 내서 약초심기를 적기에 끝냈으며 심귀리인민병원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약초심기와 함께 약초채취도 적기에 하고 있음. 시중군인민병원 등에서는 봄철에 채취해야할 약나무껍질과 꽃, 뿌리들을 제때에 거두어들이고 있음.

○ 봄철약초재배월간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1)

- 강원도에서 보건기관들을 대상으로 약초재배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강원도의약품관리소는 도내 보건기관들의 약초재배 실태를 파악한 뒤 자체적으로 양묘장을 조성하여 지대적 특성에 적합한 약초, 약나무모를 보급하였음.
- 이와 함께 약초채취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약초산지조사사업과 채취기술강습을 실시한 뒤 채취사업을 적당한 시기에 집체적으로 벌리도록 하였음. 각 조별로 채취작업과 수확한 약초 말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채취계획량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황해남도 삼천군 수장리진료소는 약초밭을 조성하기 위해 리 주변의 넓은 수렁을

약초밭으로 개간하였음. 진료소에서는 다른 고장에서 약나무모를 구해오는 등 약초밭에 여러 가지 약초를 품종별로 규모있게 심었고 약초밭에거 거두어 들이는 약초로 고려약을 생산하여 주민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을 해나가고 있음.

○ 평안남도 덕천시의 약초재배월간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14)

- 평안남도 덕천시는 기후풍토에 적합한 약초품종을 선정하고 약초재배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였음. 시내 모든 보건부문들에서 적기적작,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약초재배를 실시하는 가운데 시약초관리소, 시의약품관리소, 시인민병원에서는 최 적기에 많은 약초를 심었음.

○ 강원도 평강군 의약품관리소의 약초재배월간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5)

- 강원도 평강군 의약품관리소는 인민병원과 진료소들의 해당 지역별 지대적 특성을 고려하여 약초와 약나무 품종을 선정하고 전문적으로 재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약초들의 싹틔우기에서부터 약초재배방법들에 대한 기술학습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여러 곳에 분포된 약나무 옮겨심기와 수심 정보에 달하는 약나무림과 약초산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함경북도의 약초재배월간 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19)

- 함경북도 고려약생산관리국은 산하단위에 올해 심을 약초재배면적과 약초품종을 알려주고 본격적으로 약초를 심도록 하고 있음. 연사군 약초재배사업소는 올해 여러 종의 약초를 심을 계획 하에 모생산을 위한 씨뿌리기를 끝냈으며 질 좋은 거름을 많이 내고 있음. 이 밖에 김책시, 회령시와 화성군의 약초관리소에서도 고려약과 보약생산에서 중요한 약나무와 약초를 더 많이 심고 가꿀 계획을 세우고 약초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고구마

○ 고구마 심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7)

- 황해북도는 곡산군 평암리와 물리를 고구마농사의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이 단위들의 과학농사방법을 일반화하면서 고구마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곡산군은 종자선택과 품종배치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모를 실하게 길러 질적으로 심고 있으며 평암리의 고구마농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신계, 수안군에서도 일정 계획대로 고구마심기와 비배관리를 하고 있음.

□ 버섯

○ 평안북도 삭주군 방산협동농장의 버섯생산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4. 30)

- 평안북도 삭주군 방산협동농장은 버섯재배를 중단없이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원료를 제때에 보장하면서 분쇄, 종균접종, 발효, 재배 등 모든 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종균 접종 및 발효를 맡은 농장원들은 멸균소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버섯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으며 관리를 맡은 농장원들은 날씨조건에 맞게 공기갈이를 자주하고 온습도를 보장하고 있음.

○ 평안북도 삭주군 내옥협동농장의 버섯 재배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7)

- 평안북도 삭주군 내옥협동농장 버섯작업반은 원료 확보에 힘을 쏟는 한편 실내버섯재배장과 야외버섯재배장 정리를 신속히 끝내고 본격적인 재배에 돌입하였음. 종균생산자들은 원료배합, 멸균, 접종, 배양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실수율을 높였으며 관리공들은 적합한 온습도를 보장하고 공기갈이를 자주 해주면서 버섯을 잘 기르고 있음.

□ 대마

○ 대마 재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25)

- 대마를 많이 심도록 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각지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대마씨앗 확보대책을 세워나가야 함.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은 대마를 길가, 밭머리와 기관, 기업소의 마당에 심기 위한 사업을 군중적으로 벌려야 함. 이와 함께 대마 대량생산을 통해 천과 종이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맞고 수확고가 높은 좋은 품종의 대마를 육종하여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해야 함.
- 농업과학원 3월27일연구소는 대마섬유로 인민의 입는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김일성의 유훈 관철을 위해 대마 연구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왔음.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으며 생산성도 높은 우리 식의 새로운 대마품종을 육종하여 평양시, 평안북도, 황해남도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대마를 비롯한 인기섬유작물의 새 품종 육종과 재배기술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연구소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재배 현지에서 대마 가꾸기와 가공에서 나타나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들도 해결해주고 있음.

- 삼 또는 역삼이라고도 불리는 대마는 우리나라 모든 지대에서 잘 자라며 씨에서는 기름을 짜고 대에서는 섬유를 뽑는 기름 및 섬유작물임. 대마씨에는 30~35%의 기름이 함유되어 먹는 기름으로 이용하거나 비누, 니스, 칠감 등의 원료로 사용함. 기름을 짠 깨묵은 단백질 30%정도, 기름 8~10%로 가축먹이로 이용됨. 섬유에는 리그닌이 비교적 많아 뻣뻣하지만 길고 질기므로 여러 가지 천이나 천막, 주단 등을 짜며 모기장, 밧줄, 노끈, 마대 등의 원료로도 사용함. 섬유를 벗긴 대는 종이 원료로 씀.

□ 피마주

○ 피마주 재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13)

- 최근 당에서는 피마주 심기를 사회적 운동으로 벌리고 있음. 비누생산용 피마주를 비롯하여 다음해에 심을 피마주종자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생산성이 높은 우리 식의 우량한 피마주종자를 육종해내야 함.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들과 학교, 가두인민반에서는 길가, 공공건물, 살림집 주변과 유흥지에 피마주를 많이 심고 잘 가꾸어야 함.
- 자강도는 인민생활에 필요한 비누 생산원료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피마주 생산에 힘을 쏟고 있음. 강계시, 화평, 위원, 시중, 고평군을 비롯한 각 시, 군들에서는 종자를 마련하여 집 주변과 밭둑, 길가와 울타리 주변 등 빈땅에 피마주를 심는 등 자강도 전체적으로 봄철에 천수백만 포기의 피마주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음.
- 피마주기름은 낮은 온도에서 잘 굳지 않아 내연기관이나 기계들의 윤활유로 쓰이며 화장품, 가죽, 비누, 방직, 금속가공공업에도 이용됨. 피마주기름은 또한 변비, 식중독, 급성위아픔 때 설사약으로도 쓰이며 얇은 누에의 먹이로 이용됨.

○ 여맹중앙위원회의 피마주 재배 장려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21)

- 올해 봄, 여맹중앙위원회는 각 도, 시, 군에서 피마주 종자를 최대한 동원하여 길가, 산비탈, 집집마다 심고 종자를 확보하도록 하였음. 이와 함께 피마주 심는 운동을 전 사회적으로 벌리도록 한 당 방침에 따라 여맹중앙위원회는 여맹원들이 피마주심기에 앞장서도록 사상교양사업을 벌리고 있음.

□ 농업과학

○ 농업과학원 평안북도농업과학분원의 다수확품종 연구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4. 30)

- 농업과학원 평안북도농업과학분원은 올해 기후풍토에 적합한 품종배치안을 완성한데 이어 다수확품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과학자료통보연구실의 연구사들은 도내 여러 협동농장에서 품종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농업생산을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도와주고 있음.
- 분원에서는 각 지역별 농작물 연구시험장을 설정하고 농업생산에 이바지할 다수확품종을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대적 특성에 맞게 이모작 농사에서 성과를 이루기 위한 연구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음.

○ 농업과학원 10월7일연구소의 과학연구성과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7)

- 농업과학원 10월7일연구소는 새로운 들깨품종을 육종해냈음. 이 품종은 기름함량이 45~48.7%이고 수확고는 종전에 비해 정보당 수백kg이나 높으며 생육기일도 50여 일이나 짧음. 과학자들은 지난 6년간 새 들깨품종의 밀보리뒤그루와 강냉이 사이그루 재배방법을 연구완성하였음.
- 농업과학원 10월7일연구소는 나무모사름률을 높이고 초기 성장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나무모뿌리마름방지제를 개발하였음. 최근 2~3년간 이 나무모뿌리마름방지제로 나무모를 처리하여 150여 정보의 산림에 나무를 심어본 결과 나무모의 사름률이 종전에 비해 1.2~1.3배나 올라갔음. 이 나무모뿌리마름방지제 2kg이면 1년생 창성이칼나무모 45만그루(1정보분)를 처리할 수 있음.

□ 기초식품(장공장)

○ 함경남도 영광군장공장의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24)

- 함경남도 영광군장공장은 최근 자체적인 기술과 역량으로 생산공정의 기술개선을 이루고 건물도 새로 단장하였음. 공장 일군들은 발효간장 생산공정과 된장 생산공정을 새로 조성한데 이어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된장, 간장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음. 이와 함께 공장 구내에 있는 양어장과 온실을 잘 운영하고 돼지와 토끼 사육을 잘하여 종업원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있음.

○ 평안남도 개천시의 장공장 건설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4. 21)

- 평안남도 개천시당위원회의 지도 하에 시인민위원회에서는 높은 생산능력과 기술장비를 갖춘 장공장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2년여 만에 개천장공장을 완공하였음. 개천장공장은 생산공정의 집약화가 보장되어 전반적인 공정이 현대적인 기술수단으로 조종되며 된장, 간장, 고추장과 함께 요드된장, 간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식료가공품을 생산하게 됨.

○ 함경북도 청진기초식품공장의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4. 22)

- 함경북도 청진기초식품공장 된장작업반은 증자원료 공급량을 기술규정대로 보장하고 증자물의 익힘도를 정확히 맞춰 질 좋은 증자물을 생산하고 있음. 간장작업반은 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 온습도와 염도 관리를 과학적으로 실시하여 곡자의 질을 높이고 있음. 동력직장은 전반적인 생산공정에 알맞은 온도를 보장하기 위해 열효율을 최대한 높여 더 많은 증기를 생산하고 있음.

□ 가공식품

○ 감자엿 생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8)

- 김정일은 현대적인 대홍단감자가공공장을 건설하도록 한데 이어 감자엿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감자가공품의 공급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감자엿 생산에 적극 나서야 함. 감자엿 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을 적극 발전시키고 감자엿 한가지만이 아니라 물엿, 강엿, 가락엿 등도 생산해서 인민들에게 공급해야 함. 이와 함께 감자가공설비의 현대화 수준을 높여 감자엿 생산을 공업화해야 함.
- 량강도 대홍단감자가공공장 엿직장의 기술자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물엿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당화탱크에 온도조절장치를 받아들이는 기술혁신안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였음. 이와 함께 강엿 생산설비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 생산을 흐름식으로 함으로써 생산실적을 높였음.

○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콩우유생산공장 건립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4)

-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현대적인 콩우유생산공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신의주 석하지구 5,000여㎡ 부지에 건설될 이 콩우유생산공장이 완공되면 신의주 시내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에 콩우유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됨.

○ 평안남도 룡강식료공장의 생산공정 정비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20)

- 평안남도 룡강식료공장은 생산작업을 진행하면서 공장 현대화공사를 추진하였음.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공사자재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면서 공사작업에 나서 연건평 수백㎡, 2층 높이의 식료작업반 건물을 완공하였음. 이와 함께 현대적인 기초식품 생산설비를 들여놓을 기본생산건물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장생산 공정의 보일러를 개조하고 현대적인 기름짜는 기계도 마련하였음.

□ 비료생산

○ 함경남도 신흥군의 흙보산비료 생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1)

- 함경남도 신흥군은 올해 흙보산비료로 지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에 총력을 기울였음. 군 일군들은 각 농장들의 부식토 생산정형을 따져보고 이점을 일반화하여 짧은 기간에 계획보다 많은 부식토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각 협동농장들은 작업반마다 흙보산비료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기술지표대로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였음.
- 원동, 창서, 경흥, 영고협동농장에서는 흙보산비료를 질적으로 생산하여 정보당 6~7톤의 흙보산비료를 내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군내 다른 농장에서도 흙보산비료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늘린데 이어 정보당 5톤 이상의 흙보산비료를 내고 있음.

○ 생물비료의 개발이용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31)

- 김정일은 농업과학의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대해 지적하면서 농업부문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고 미생물비료와 미생물농약을 이용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었음. 1998년 10월, 김정일은 량강도 대흥단군을 방문하여 복합미생물비료공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하고 물거름과 복합미생물비료를 가지고 감자농사를 짓는 방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김정일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민들을 대상으로 복합미생물비료 생산과 이용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기술강습을 조직하는 등 복합미생물비료 이용을 적극 장려하였음. 이로써 1999년 복합미생물비료와 리미액비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생물비료가 개발되어 농업생산에 이용되고 있음.

○ 평안북도 신도군 황금평협동농장의 사업운영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31)

· 평안북도 신도군 황금평협동농장은 올해 농사를 앞두고 거름원천이 부족한 상황에서 질 좋은 흙보산비료를 기술지표에 맞게 생산하는데 힘을 쏟았음. 기술일군들은 흙보산비료 생산에 필요한 균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개인퇴적장에서부터 분조, 작업반, 관리위원회, 리당위원회 퇴적장에서 나오는 거름으로 흙보산비료를 만들었음. 퇴적장의 거름은 8, 12월 매년 두차례 파내는데 8월에 파낸 거름은 흙보산비료를 만들고 겨울에 파낸 잘 썩은 거름을 논밭에 냈음.

· 또한 농장은 풀거름 생산을 위해 멀리 떨어진 압록강 기슭에서 풀베기작업을 벌려 3,000여 톤의 풀거름을 생산하는 등 질 좋은 거름을 충분히 마련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50여일이나 앞당겨 논밭에 거름을 내고 모내기를 적기에 하고 있음.

○ 미생물비료 생산과 이용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4)

· 자강도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고 미생물비료와 미생물농약을 개발, 이용하여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도는 각종 미생물비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미생물종균을 시, 군에 제때에 생산보장하며 협동농장들의 미생물비료생산기지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또한 농업부문 기술일군들은 각 협동농장에서 여러 가지 미생물비료를 과학기술적으로 시비하도록 하고 있음.

· 김옥실이 일하는 공장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질 좋은 미생물비료를 생산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 영양가 높은 가축먹이를 손쉽게 생산할 수 있는 먹이첨가제를 개발한데 이어 새로운 미생물먹이첨가제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기계화

○ 함경북도 어랑군 읍협동농장의 농기계 생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18)

· 함경북도 어랑군 읍협동농장은 올해 콩농사를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 작업반을 조직하고 적지로 선정한 수십 정보의 콩밭에 정보당 40톤의 거름을 냈음. 이와 함께 김정일의 뜻대로 콩농사를 기계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농기계 제작에 나섰음. 농장일군들과 기계화작업반, 농장원들은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자재를 마련하고 용접봉과 철판도 구해 짧은 기간에 콩파종기를 만들었음.

○ 평안남도 덕천시농기계작업소의 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4. 18)

- 평안남도 덕천시농기계작업소는 트랙터 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을 생산하기 위해 전기와 자재가 부족한 여건 속에서 여러 건의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농기계작업소는 새로운 메달주조방법을 비롯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각종 부속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농산작업의 기계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음.

○ 황해남도 농기계작업소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4. 22)

- 황해남도 내 농기계작업소들은 봄철영농작업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의 생산 및 수리정비를 끝마쳤음. 청단군농기계작업소를 비롯한 연백지구의 농기계작업소들은 농기계수리정비를 지난해보다 10여일 앞당겨 끝냈으며 작업소들에서는 착통, 피스톤 등 부속품들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에 보내주었음.
- 벽성, 은률, 봉천, 신원군농기계작업소는 모판같이기계, 모판만드는기계 등 여러 가지 중소형농기계를 새로 만들거나 개조하였으며 높은 작업능률을 낼 수 있는 새 형의 보습도 제작하였음.

○ 개성농기계공장의 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13)

- 개성농기계공장은 새로운 벼종합탈곡기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새 벼종합탈곡기는 기존 탈곡기에 비해 효율이 2배나 높고 전력은 30%나 절약할 수 있으며 벼 뿐만 아니라 밀, 보리 탈곡도 가능함. 또한 일손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다루기가 간편하여 호평을 받고 있음.

○ 평안북도 향산군 농기계작업소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14)

- 평안북도 향산군 농기계작업소는 농기계 수리정비와 농기계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트랙터 수리작업반은 트랙터 수리와 함께 모내는기계의 원동기 수리에 힘을 쏟고 있으며 가공작업반은 농기계 생산과 수리에 부속품 가공을 앞세우고 있음. 기술혁신조는 부속품 수리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합리화 방안을 도입하여 올해 들어서 20여 종에 수백 점의 각종 부속품을 생산하였음.

○ 윤전기계공업관리국의 농기계부속품 생산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20)

- 윤전기계공업관리국은 농기계부속품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2월26일공장은 연료펌프, 분사기를 비롯한 7종에 5만 7천여 개의 질 좋은 부속품을 생산하였으며 금성트랙터공장에서도 부속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강서스리브공장과 보통강전기공장 등에서도 부속품생산과제를 초과달성하였음. 종합

된 자료에 따르면 총 17종에 6만 수천 개의 각종 트랙터부속품이 생산되어 농촌에 공급되었으며 질 좋은 트랙터다리아를 생산하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함.

○ 평안남도 평원군 농기구공장의 소형양수기 생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5. 29)

- 평안남도 평원군 농기구공장은 콩밭 관수에 사용할 소형양수기 생산에 힘을 쏟고 있음. 공장은 양수기 생산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기술자들이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재보장부문 일군들이 각종 자재와 연료를 보장하였음. 이 과정에서 편리하고 능률높은 소형양수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조건을 마련하였고 생산한 소형양수기를 군내 협동농장들에 공급하고 있음.

□ 메탄가스 이용

○ 황해남도 연안군 오현협동농장의 메탄가스 이용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22)

- 황해남도 연안군 오현협동농장은 모범적으로 메탄가스를 생산, 이용하고 있는 가정의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작업반 30여 세대의 각 가정마다 메탄가스 발생로를 갖추도록 하였음. 이로써 메탄가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60세대를 넘어섰고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취사를 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농장에서는 수백톤 용량의 가스발생로 2개와 가스저장탱크를 건설하여 여기서 생산된 메탄가스로 원동기를 가동시켜 5대의 모내는기계와 김매는기계로 모내기과 김매기를 실시하였음.

○ 황해남도 벽성군 서원협동농장의 메탄가스화 실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5. 20)

- 황해남도 벽성군 서원협동농장 제5작업반 덕흥마을은 메탄가스화 실현을 위해 작업반장 최광운의 집에 메탄가스화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음. 해당부문 일군들의 방조 속에 일정한 크기의 메탄가스탱크를 건설하고 여러 가지 농부산물과 진거름 등을 넣고 운영하였으며 겨울철 보온대책과 원료배합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하였음. 작업반에서는 이 경험에 기초하여 모든 농장원 세대에 메탄가스화 도입사업을 벌려 짧은 기간에 30여 동의 살림집들에 메탄가스화를 실현하였음.

□ 각 지역 영농동향

○ 황해남도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4. 8)

- 황해남도 연안군 오현협동농장은 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 앞선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모판만들기, 모판고르기, 씨뿌리기 등 모든 공정을 기술규정대로 진행하고 있음. 배천군 금성협동농장, 수원농장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에서는 필요한 자재와 물자를 마련한데 이어 트랙터의 가동률을 높여 논밭갈이를 일정계획대로 실시하고 거름을 충분히 내고 있음.

○ 함경남도 정평군 룡성협동농장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1)

- 함경남도 정평군 룡성협동농장은 모내기와 강냉이밭 김매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농장은 후치질을 앞세워 짧은 기간에 강냉이밭 1회 김매기를 끝내고 비배관리를 잘하고 있음.

○ 황해북도의 씨불임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6. 1)

- 황해북도는 올해 씨불임면적을 늘리기 위해 기본면적에서 총 포기수를 보장하면서 유휴지를 이용하기로 하였음. 각 시,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모든 분조마다 계획된 씨불임면적보다 1,000평 이상의 유휴지를 찾아 씨불임하도록 사업을 실시하였음. 봉산군, 수안군, 평산군을 비롯한 각 시, 군에서는 유휴지를 경작지로 이용하기 위해 비옥하게 가꾸면서 씨불임을 제때에 하였음.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촌들에서는 3,120여 정보의 유휴지를 가꾸어 씨불임을 끝냈다고 함.

○ 평안북도 구성시 청룡농장의 밭김매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6. 24)

- 평안북도 구성시 청룡농장은 후치질을 앞세워 밭김매기를 하고 있음. 작업반장들은 부림소관리공들의 역할을 높이고 분조들의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는 등 후치질 속도와 질을 더욱 높이고 있음.

○ 농작물 비배관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6. 30)

- 함경남도 홍원군은 5월말까지 모내기를 끝내고 김매기에 대용비료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책임일군들이 각 지구에서 대용비료 생산정형을 파악하고 일일총화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음. 이와 함께 모든 농장들에서 병해충피해방지대책과 논물대기를 비롯해 밀, 보리, 감자를 수확한 앞그루논에 모내기를 하루 빨리 끝내기 위한 작업이 한창임.

- 평안북도 룡천군은 일손과 기계수단을 집중하여 포전별, 날짜별 김매기계획을 수행하고 있음. 신암, 장산, 쌍룡협동농장들은 후치질과 김매기를 배합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흥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에서도 김매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실적을 올리고 있음.

□ 기타 보도

○ 각지의 농촌지원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4)

- 내각사무국은 수안군과 곡산군, 신계군의 협동농장들에 비료를 실어다 주었고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은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농장에서 거름 운반작업을 돕고 있으며 형제산구역 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근로자들, 가두인민반원들은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하루 동안에 1,000여 톤의 거름을 형산, 학산협동농장에 실어냈음.

○ 강원도 원산시 시루봉협동농장의 위생월간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7)

- 강원도 원산시 시루봉협동농장은 3, 4월 위생월간을 맞아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와 작업반을 비롯한 농장 내 곳곳에 분담을 주어 울타리, 도로, 공공건물, 일터를 문화적으로 꾸리는 봄철위생사업을 벌이고 있음. 휴일에는 각 세대에서 벽체회칠과 창고정리를 하며 가정위생문화사업을 정상화하고 있으며 돼지우리와 마을의 오물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있음. 농산, 과수, 채소작업반에서는 작업반 휴게실과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정리정돈하고 공구창고와 탈곡장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음.

○ 현미 장려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25)

- 김정일은 인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비타민이 함유된 현미밥을 장려해주었음. 이에 따라 수매양정성에서는 현미의 장점을 널리 소개하고 현미를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또한 현미를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미를 가공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 중임.
- 현미는 벼겨를 여러 번 벗겨낸 흰쌀에 비해 영양소가 많아 사람들의 건강과 장수에 좋음. 현미에는 식용섬유가 흰쌀의 3~4배나 되며 변비와 대장암 예방에 좋고 비타민E, 리놀산 등과 섬유소가 많으므로 동맥경화증 예방에도 효과적임.

○ 평안북도 태천군 학당협동농장의 현지교시 관철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4. 17)

- 평안북도 태천군 학당협동농장은 40여년 전, 고치강 기슭의 모래밭을 개간하여 강

냉이농사를 짓도록 한 김일성의 현지교시에 따라 강에 제방을 쌓고 흙을 날라 모래밭을 강냉이밭으로 전변시켰음. 김일성은 모래땅을 강냉이밭으로 전변시켜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다시 방문하여 효율적인 농사방도를 지도해주었고 학당리는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변모되었음.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대북한 지원 동향
3. 교류협력사업 동향
4.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4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4년 4월 중 남북교역액은 208품목 7,314만 달러로 전월 240품목 3,989만 달러에 비해 83.4%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의 245품목 3,888만 달러에 비해 88.1% 증가하였음.
- 반입은 77품목 2,058만 달러로 전월의 72품목 2,249만 달러에 비해 8.5%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의 83품목 1,879만 달러에 비해 9.5% 증가하였음.
 -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39.0%, 섬유류 30.5%, 철강·금속제품 21.4%, 광산물 3.4% 등임.
- 반출은 154품목 5,255만 달러로 전월의 192품목 1,739만 달러에 비해 201.2%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의 196품목 2,009만 달러에 비해 161.8% 증가하였음.
 - 품목별 구성은 화학공업제품 74.4%, 전자·전기제품 7.6%, 섬유류 7.2%, 농림수산물 3.7%, 기계류 2.9% 등임.

□ 4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4년 4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803만 달러로 전월 948만 달러 대비 15.3% 감소하

* 통일부 교류협력국에서 발간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고, 전년 동월 786만 달러 대비 2.1% 증가했으며, 4월 전체 반입액 2,058만 달러의 39.0%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 대두·표고버섯 등 농산물이 18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9.0%), 목제식탁용품·기타 목재류 등 임산물이 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1%), 어패류·건조수산물 등 수산물이 617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30.0%)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4년 4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192만 달러로 전월 168만 달러 대비 14.3%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7.5%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면류·제조담배 등 농산물이 17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4%), 분유 등 축산물이 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5%), 어패류·건조수산물 등 수산물이 1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3%)를 차지했음.

□ 5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4년 5월 중 남북교역액은 260품목 8,744만 달러로 전월 208품목 7,314만 달러에 비해 19.6%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의 171품목 4,235만 달러에 비해 106.5% 증가하였음.
- 반입은 74품목 1,727만 달러로 전월의 77품목 2,058만 달러에 비해 16.1%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의 77품목 1,819만 달러에 비해 5.1% 감소하였음.
-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52.2%, 철강·금속제품 23.1%, 섬유류 17.3%, 전자·전기제품 4.0% 등임.
- 반출은 217품목 7,017만 달러로 전월의 154품목 5,255만 달러에 비해 33.5%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의 119품목 2,415만 달러에 비해 190.6% 증가하였음.
- 품목별 구성은 화학공업제품 41.7%, 농림수산물 21.8%, 섬유류 7.8%, 광산물 6.5% 기계류 5.9% 등임.

□ 5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4년 5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901만 달러로 전월 803만 달러 대비 12.2% 증가하고, 전년 동월 940만 달러 대비 4.1% 감소했으며, 5월 전체 반입액 1,727만 달러의

52.2%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 식물성한약재·표고버섯 등 농산물이 165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9.6%), 로얄제리 등 축산물이 15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9%), 목제식탁용품 등 임산물이 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2%), 어패류·건조수산물 등 수산물이 717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41.6%)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4년 5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1,337만 달러로 전월 192만 달러 대비 596.4%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332.1%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 쌀·밀가루 등 농산물이 1,300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1.2%), 기타 가축·분유 등 축산물이 3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5%), 목제식탁용품·기타 목재류 등 임산물이 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4%), 어패류 등 수산물이 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5%)를 차지했음.

□ 6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4년 6월 중 남북교역액은 263품목 6,021만 달러로 전월 260품목 8,744만 달러에 비해 31.1%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의 230품목 5,963만 달러에 비해 1.0% 증가하였음.
- 반입은 79품목 1,666만 달러로 전월의 74품목 1,727만 달러에 비해 3.5%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의 77품목 1,789만 달러에 비해 6.8% 감소하였음.
 -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59.8%, 철강·금속제품 20.4%, 섬유류 10.3%, 전자·전기제품 5.8% 등임.
- 반출은 216품목 4,354만 달러로 전월의 217품목 7,017만 달러에 비해 37.9%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의 176품목 4,174만 달러에 비해 4.3% 증가하였음.
 - 품목별 구성은 화학공업제품 45.7%, 섬유류 10.5%, 기계류 10.5%, 철강·금속제품 8.1%,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7.7%, 전자·전기제품 6.9% 등임.

□ 6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4년 6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996만 달러로 전월 901만 달러 대비 10.5% 증가하고, 전년 동월 1,200만 달러 대비 17.0% 감소했으며, 6월 전체 반입액 1,666만 달러의

59.8%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고사리·기타 채소 등 농산물이 369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22.2%), 로얄제리 등 축산물이 10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6%), 목제식탁용품·기타 목재류 등 임산물이 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1%), 어패류·건조수산물 등 수산물이 61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36.8%)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4년 6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35만 달러로 전월 1,337만 달러 대비 82.4%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7.7% 감소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쌀·밀가루 등 농산물이 16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9%), 쇠고기·분유 등 축산물이 1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3%), 제재목·건축용 목제품 등 임산물이 3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9%), 어패류 등 수산물이 1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3%)를 차지했음.

표 1 2004년 4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666,397	1,848	9.0	농산물	520,403	1,768	3.4
대두	586,450	370		쌀	31,659	95	
녹두	300,000	185		고구마	5,511	15	
팥	337,000	271		밀가루	100,000	15	
기타 곡식류	200	1		기타 곡분	500	3	
기타 채소	67,681	61		호박	2,438	5	
고사리	3,640	15		기타 채소	10,788	29	
고비	140	1		송이버섯	7,615	25	
송이버섯	1,330	7		대두유	50,000	54	
표고버섯	59,467	349		사료	2,400	1	
기타 버섯류	8,310	35		커피	350	4	
호도	20,000	96		초코렛	1,497	8	
기타 견과류	59,975	22		제조담배	39,610	221	
식물성액즙	5,000	9		맥주	44,720	33	
제조담배	34,000	263		위스키	1,229	41	
식물성 한약재	42,970	63		기타 주류	94	4	
인삼주	3,120	16		정당	15,341	149	
기타 주류	21,427	14		사탕	29,865	199	
물	57,687	35		비스킷	3,593	11	
면류	30,000	16		빵	1,198	3	
기타 농산가공품	28,000	20		면류	129,959	759	
				기타 농산가공품	42,036	94	
축산물	-	-	-	축산물	8,975	26	0.05
				소시지	995	2	
				분유	7,980	24	
임산물	11,485	12	0.1	임산물	720	-	-
목제식탁용품	4,500	10		기타 목재류	720	-	
기타 목재류	6,985	2					
수산물	3,017,863	6,171	30.0	수산물	75,422	133	0.3
넙치	499	4		명태	33,900	25	
대구	35,781	46		기타 어류	14,941	53	
기타 계	26,124	190		기타 해조류	2,474	7	
문어	17,826	40		건조수산물	24,107	49	
피조개	3,002	7					
기타 조개	1,528,945	1,367					
기타 연체동물	903,969	818					
미역	7,095	6					
기타 염장수산물	10,975	23					
건조수산물	380,145	3,249					
기타 수산가공품	88,118	238					
기타 수산물	15,384	184					
합 계		8,031	39.0	합 계		1,927	3.7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54호(2004.4.1~4.30).

표 2 2004년 5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증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증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091,750	1,659	9.6	농산물	12,153,680	13,001	21.2
기타 서류	2,500	13		쌀	5,150,917	7,321	
녹두	200,000	124		밀	20,000	10	
팥	81,000	67		옥수수	23,700	245	
기타 곡실류	5,344	59		감자	138,673	76	
호박	132,090	54		보리가루	15,000	100	
기타 채소	172,646	234		밀가루	5,336,770	2,744	
고사리	504	4		기타 곡분	14,400	7	
고비	490	3		기타 채소	500	1	
영지버섯	200	6		송이버섯	3,339	12	
표고버섯	75,871	367		대두유	60	-	
기타 버섯류	7,000	100		마아가린	4,634	3	
호도	4,000	20		식물성액즙	3,250	20	
기타 견과류	2,000	10		박류	17,500	6	
식물성액즙	458	40		사료	215,249	87	
고추장	77,364	70		효모류	1,349	1	
식물성 한약재	183,324	368		제조담배	34,939	266	
물	24,240	5		맥주	1,720	1	
과일주스	12,600	17		위스키	938	39	
면류	35,510	33		기타 주류	309	5	
기타 농산가공품	74,610	64		원당	4,608	2	
				정당	81,400	91	
				기타 당류	93,087	840	
				물	477,046	286	
				사탕	47,850	91	
				비스킷	4,791	21	
				빵	1,497	3	
				면류	382,418	489	
				기타 농산가공품	77,652	172	
				종자류	84	63	
축산물	15,852	152	0.9	축산물	42,342	314	0.5
로얄제리	15,852	152		기타 가축	20,930	243	
				로얄제리	34	-	
				분유	21,378	71	
임산물	16,400	26	0.2	임산물	1,064	25	0.04
목제식탁용품	16,400	26		목제식탁용품	152	1	
				기타 목재류	912	24	
수산물	2,930,978	7,178	41.6	수산물	23,619	30	0.05
넙치	120	1		기타 게	2,614	16	
대구	48,158	58		낙지	500	1	
기타 어류	3	-		기타 조개	20,220	12	
기타 게	1,433	13		기타 연체동물	285	1	
문어	86,460	195					
기타 조개	945,986	736					
기타 연체동물	1,097,949	1,124					
미역	1,080	1					
기타 해조류	230	4					
명란	3,679	23					
기타 염장수산물	5	-					
건조수산물	470,651	3,919					
기타 수산가공품	220,469	788					
기타 수산물	54,756	316					
합 계		9,015	52.2	합 계		13,370	21.8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55호(2004.5.1~5.31).

표 3 2004년 6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증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증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403,028	3,698	22.2	농산물	1,773,115	1,693	3.9
들깨	252,230	154		쌀	111,088	282	
기타 채유종실	500	4		감자	14,828	45	
기타 과일	4,000	20		밀가루	1,085,920	577	
기타 채소	308,278	636		기타 과일	898	52	
고사리	249,823	1,139		고사리	3,000	13	
고비	2,100	13		양송이	500	1	
표고버섯	62,071	337		기타 버섯류	500	2	
기타 버섯류	68,174	381		기타 견과류	3,000	15	
호도	4,000	14		대두유	10,040	17	
기타 견과류	3,000	15		마아가린	4,340	3	
식물성 액즙	6,100	32		사료	2,564	1	
된장	15,000	9		효모류	1,520	2	
제조담배	62,000	478		제조담배	19,091	120	
식물성한약재	169,300	200		인삼류	4,008	27	
소주	16	-		소주	2,050	4	
맥주	15	-		맥주	4,980	5	
인삼주	650	5		위스키	943	23	
포도주	670	3		기타 주류	411	14	
기타 주류	14,100	79		원당	4,280	2	
물	21,686	6		물	49,594	17	
면류	36,000	34		사탕	31,262	117	
기타 농산가공품	123,315	140		비스킷	17,689	47	
				빵	45	1	
				면류	384,772	259	
				기타 농산가공품	15,792	47	
축산물	3,646	103	0.6	축산물	43,243	132	0.3
로얄제리	3,646	103		기타 가축	7,000	6	
				쇠고기	27,416	66	
				로얄제리	251	4	
				분유	4,526	20	
				모류	4,050	36	
임산물	9,595	22	0.1	임산물	788,770	394	0.9
목제식탁용품	3,000	8		제재목	788,640	389	
기타 목재류	6,189	11		건축용 목제품	130	5	
기타 임산부산물	406	3					
수산물	2,129,427	6,140	36.8	수산물	50,978	138	0.3
넙치	5,006	36		넙치	1,588	10	
기타 어류	54	-		뱀장어	2,042	6	
꽃게	7,033	76		기타 어류	15,230	41	
문어	164,496	375		새우	941	5	
낙지	3,024	5		꽃게	817	15	
피조개	1,845	4		낙지	500	4	
기타 조개	560,287	388		피조개	3,340	7	
기타 연체동물	627,973	695		기타 조개	9,840	6	
기타 해조류	100	-		김	1,560	14	
염장어란	4,975	10		미역	10,920	18	
기타 염장수산물	7,600	11		기타 수산가공품	4,200	14	
건조수산물	357,868	3,065					
기타 수산가공품	366,974	1,209					
기타 수산물	22,192	265					
합 계		9,963	59.8	합 계		2,357	5.4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56호(2004.6.1~6.30).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 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 11,090
1991	300	43	105,719	-	16	5,547	111,266	△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7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소 계	31,624	-	2,355,544	27,562	-	1,939,578	4,295,122	△ 415,963
2004.1	411 (476)	74 (75)	20,753 (21,544)	310 (295)	119 (125)	15,961 (25,819)	36,714 (47,363)	△ 4,792 (4,275)
2004.2	395 (311)	81 (80)	18,440 (15,164)	344 (341)	142 (165)	9,694 (26,252)	28,134 (41,416)	△ 8,746 (11,088)
2004.3	478 (438)	72 (86)	22,494 (20,666)	442 (340)	192 (151)	17,396 (18,712)	39,890 (39,378)	△ 5,098 (△ 1,954)
2004.4	433 (477)	77 (83)	20,586 (18,792)	418 (329)	154 (196)	52,556 (20,092)	73,142 (38,884)	31,970 (1,300)
2004.5	431 (486)	74 (77)	17,272 (18,197)	494 (246)	217 (119)	70,176 (24,152)	87,448 (42,350)	52,904 (5,955)
2004.6	476 (413)	79 (77)	16,667 (17,890)	599 (374)	216 (176)	43,546 (41,740)	60,213 (59,630)	26,879 (23,850)
소계	2,624 (2,601)	155 (151)	116,212 (112,253)	2,607 (1,925)	430 (402)	209,329 (156,767)	325,541 (269,020)	93,117 (44,514)
총 계	34,248	-	2,471,756	30,169	-	2,148,907	4,620,663	△ 322,846

주: 1) ()안은 2003년 동기 실적임.

2)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3)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27~156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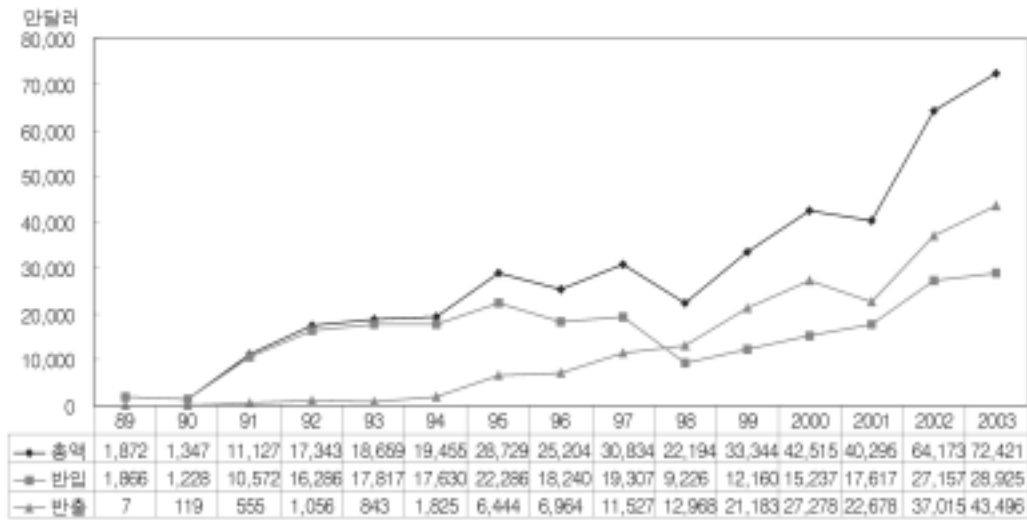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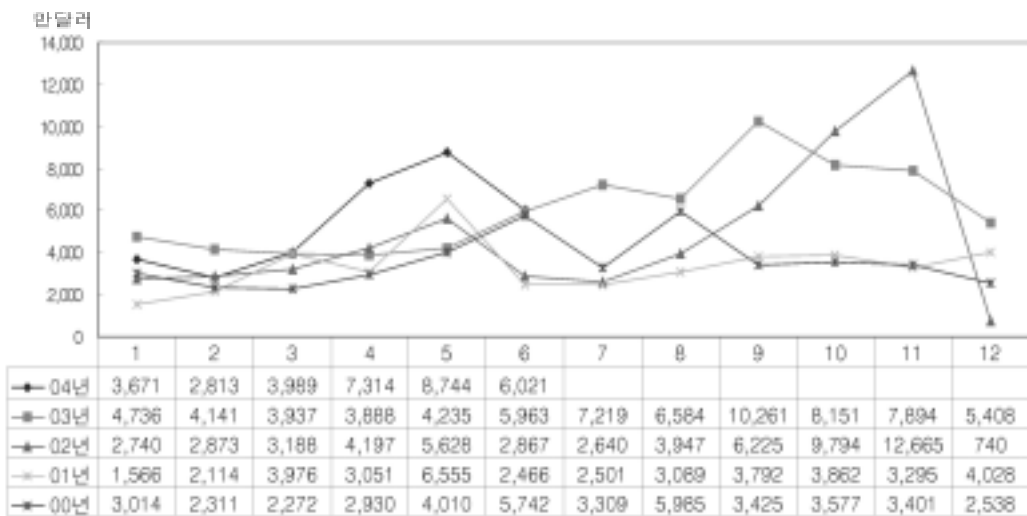


표 5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2,352
1990	5,130	-	49	393	5,572	10	-	-	-	10	5,582	△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소 계	218,770	1,947	49,161	328,086	597,964	337,100	14,661	7,489	9,798	369,048	967,012	△228,916
2004.1	4,322 (3,079)	35 (3)	14 (14)	6,219 (6,977)	10,590 (10,073)	1,693 (6,460)	294 (930)	14 (4)	170 (104)	2,171 (7,498)	12,761 (17,571)	△8,419 (△2,575)
2004.2	2,731 (1,899)	- (566)	8 (8)	4,814 (4,712)	7,553 (7,185)	604 (507)	293 (683)	349 (16)	106 (71)	1,352 (1,277)	8,905 (8,462)	△6,201 (△5,908)
2004.3	2,208 (1,879)	29 (5)	35 (38)	7,209 (6,643)	9,481 (8,565)	1,289 (880)	165 (507)	107 (71)	125 (52)	1,686 (1,510)	11,167 (10,075)	△7,795 (△7,055)
2004.4	1,848 (1,770)	- (-)	12 (8)	6,171 (5,745)	8,031 (7,523)	1,768 (857)	26 (350)	- (205)	133 (229)	1,927 (1,641)	9,958 (9,164)	△6,104 (△5,882)
2004.5	1,659 (2,257)	152 (377)	26 (23)	7,178 (6,755)	9,015 (9,412)	13,001 (303)	314 (461)	25 (32)	30 (2,297)	13,370 (3,093)	22,385 (12,505)	4,355 (△6,319)
2004.6	3,698 (3,744)	103 (392)	22 (7)	6,140 (7,862)	9,963 (12,005)	1,693 (525)	132 (2,372)	394 (197)	138 (169)	2,357 (3,263)	12,320 (15,268)	△7,606 (△8,742)
소 계	16,466 (14,628)	319 (1,343)	117 (98)	37,731 (38,694)	54,633 (54,763)	20,048 (9,532)	1,224 (5,303)	889 (525)	702 (2,922)	22,863 (18,282)	77,496 (73,045)	△31,770 (△36,481)
총 계	-	-	-	-	652,597	-	-	-	-	391,911	1,044,508	△260,686

주: 1) ()은 2003년 동기 실적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제127~156호.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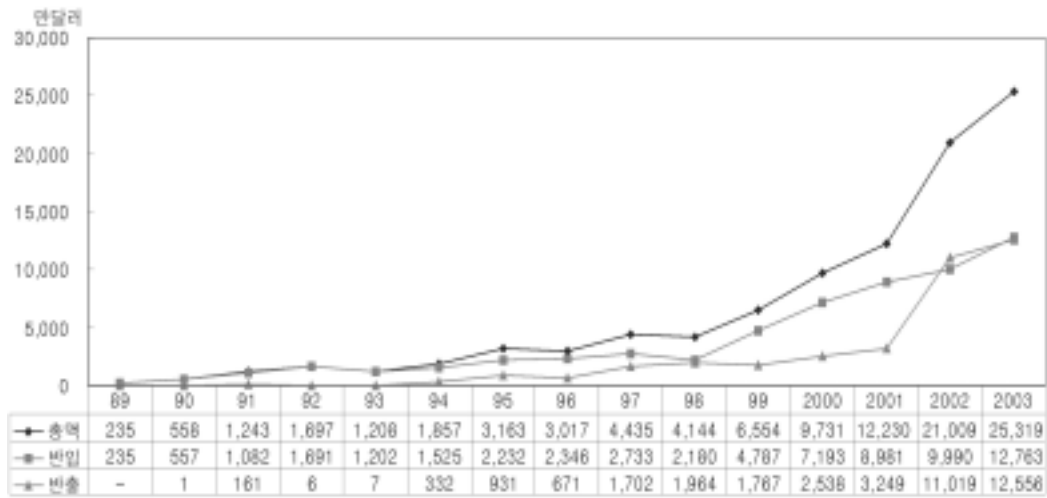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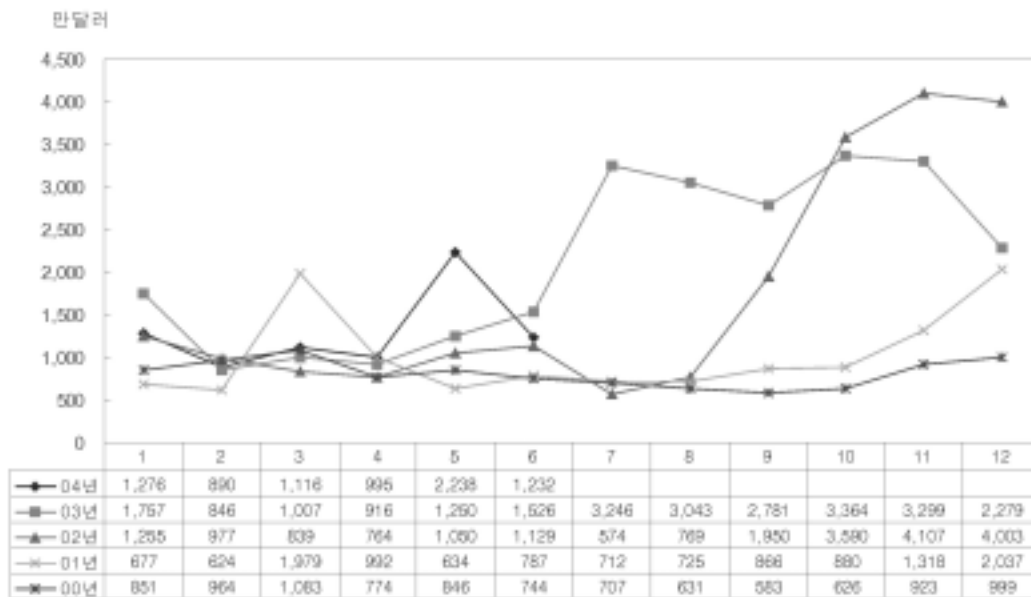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대북한 지원 동향

□ 4월 중 민간차원 대북 지원액, 총 334억 6,399만원

○ 2004년 4월 중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9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지원액은 총 334억 6,399만원임.

표 6 4월 중 대북지원 세부 내역

지원단체	품목 및 수량	금액(만원)
대한적십자사	못자리용 비닐 300톤, 의약품, 의료장비 등 용천 : 응급구호세트, 생필품 11종	537,657
용천동포돕기운동본부	의약품, 의료비품, 생필품 등	1,037,553
북녘용천에 새희망을 범국민 캠페인 본부	의약품, 의료비품, 발전기 등	31,218
국제라이온스	평양안과병원 건축자재	35,176
국제옥수수재단	옥수수종자 20톤, 양말	11,377
굿네이버스	의약품, 철근 360톤, 발전기 등 용천 : 라면 81,000개, 담요 2,400장	41,674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연어치어 50만미, 방류자재 등	12,492
남북농발협	수의약품, 사료첨가제	5,403
남북어린이어깨동무	건축자재, 수성페인트 등	5,934
선한사람들	콩식품공장 운영설비, 대두유 50톤 용천 : 담요 5,000장, 탈지면 등	46,081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의약품, 의료 진단장비, 의료비품	81,04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안경용품, 돼지사료, 의약품, 의료기기, 경운기 등 농자재, 농기계수리공장 자재	1,274,575
원불교	양말, 옷감	5,215
월드비전	밀가루 800톤, 냉면·떡제조설비 용천 : 담요 5,000장, 빵, 생수, 의류 등	49,948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밀가루 60톤	2,592
천주교 서울교구	밀가루 300톤	8,568
한국기독교 북한동포후원연합회	분유 8톤, 아동복	108,278
한국JTS	구충제, 영양제, 비료 252톤, 농자재 등 용천 : 의류, 이불 500채, 의약품 등	33,024
한민족복지재단	용천 : 콩 20톤, 수액제, 항생제 등	18,588
합 계	3,346,399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54호(2004.4.1~4.30).

□ 5월 중 민간차원 대북 지원액, 총 387억 624만원

○ 2004년 5월 중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21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지원액은 총 387억 624만원임.

표 7 5월 중 대북지원 세부 내역

지원단체	품목 및 수량	금액(만원)
대한적십자사	덤프트럭, 시멘트 등 용천재해 복구지원 자재·장비, 의약품, 생필품 등 용천재해 긴급구호품	2,578,619
국제기아대책기구	담요, 생수, 김치, 라면 등	13,054
국제라이온스	평양안과병원 건축자재	8,079
굿네이버스	의약품, 젓소 100두, 설탕 35톤, 식용유 17톤, 종이 60톤, 비닐 20톤, 학용품, 의류 등	447,815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의약품, 치과장비, 건축자재 등	10,131
농협중앙회	콩종자 15톤	1,38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내의 5,000벌, 신발 200켤레	3,333
불교종단협의회	생필품, 라면 등	2,996
선한사람들	증기보일러 1세트	2,790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의약품, 앰블런스 1대 등	28,08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의약품, 밀가루 254톤, 쌀1톤, 비료, 경운기, 살충제 등 농자재, 건축자재 등	53,321
원불교	밀가루 36톤, 내의 4만벌,	14,880
월드비전	담요, 의류, 신발 학용품 등	21,205
유진벨	화상연고 등 의약품	558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밀가루 60톤, 의류, 비누 등 생필품	10,763
한국기독교 북한동포후원연합회	밀가루 60톤, 분유 7톤, 라면, 의류 등	61,221
한국JTS	분유 14톤, 설탕 28톤, 비닐 10톤, 학용품, 밀가루 200톤	15,458
한국대학생선교회	밀가루 100톤, 젓염소 100두, 사료 12톤, 수의약품 등	18,186
한국복지재단	건축자재, 의약품, 의류, 라면 등	4,181
한민족복지재단	밀가루 등 급식빵자재, 의료장비, 의약품, 분유, 담요, 책가방 등	236,496
※ 용천동포돕기운동본부	의약품, 의류, 생필품 등	338,069
합 계	3,870,624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55호(2004.5.1~5.31).

□ 6월 중 민간차원 대북 지원액, 총 178억 9,146만원

- 2004년 6월 중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9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지원액은 총 178억 9,146만원임.

표 8 6월 중 대북지원 세부 내역

지원단체	품목 및 수량	금액(만원)
대한적십자사	수지창, 폴리에틸렌, 시멘트 등 용천 재해 복구 자재장비, 밀가루 420톤, 의약품	727,848
국제기아대책기구	머드펌프 등 지하수 개발장비	43,811
국제라이온스	평양안과병원 건축자재, 철판지붕재 28톤	12,159
굿네이버스	요구르트 생산설비, 건축자재, 양로원 지원물자, 어린이 책장 등	93,826
남북나눔	밀가루 100톤, 분유 2톤, 라면	8,068
남북농발협	건축자재, 손수레 200대	1,752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의약품, 건축자재, 분유, 세제 등	6,339
불교종단협의회	1톤 트럭 3대, 밀가루 34톤, 담요, 식용유	11,030
새마을운동중앙회	밀가루 500톤, 손수레 6,000대	28,541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수술실 장비, 의약품 등	24,69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의료기기, 승합차1대, 건축자재, 경운기 등 농기계, 중형버스 5대 등	113,923
원불교	밀가루 36톤	1,104
월드비전	콩종자 12톤, 비료 24톤, 라면	3,342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양파종자	108,000
천주교서울대교구	밀가루 300톤	9,360
한국JTS	쌀 15톤, 옥수수 7톤, 위생복 등	2,470
한국복지재단	급식빵 설비 등	23,412
한민족복지재단	밀가루 170톤, 의약품, 급식빵자재 등	472,289
※ 용천동포돕기운동본부	밀가루 360톤, 쌀 5톤, 건축자재, 의약품 등	97,180
합 계	1,789,146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56호(2003.6.1~6.30).

□ 대북 지원액 추이, 1995.9~2004.6

단위: 만원

연 도	민간차원	정부차원	합 계
1995	396,915	18,500,000	27,397,160
1996		240,000	
1997		2,400,000	
1998		1,540,000	
1999	2,235,920	3,390,000	5,625,920
2000	4,202,218	9,435,722	13,637,940
2001	7,944,634	8,495,400	16,440,034
2002	6,408,548	11,380,000	17,788,548
2003	8,711,092	10,410,000	19,121,092
소 계	34,219,572	65,791,122	100,010,694
2004.1	341,797 (983,832)	0 (0)	341,797 (983,832)
2004.2	189,945 (630,330)	0 (0)	189,945 (630,330)
2004.3	623,982 (630,330)	0 (0)	623,982 (630,330)
2004.4	3,346,399 (755,997)	90,000 (80,000)	3,436,399 (835,997)
2004.5	3,870,624 (831,468)	220,000 (0)	4,090,624 (831,468)
2004.6	1,789,146 (848,626)	6,590,000 (60,000)	8,379,146 (908,626)
소 계	10,161,893 (4,680,583)	6,900,000 (140,000)	17,061,893 (4,820,583)
총 계	44,381,465	72,691,122	117,072,587

주: 1) 통일부가 발표한 반출 승인기준 금액에 근거하였으며 통관기준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은 2003년 동기 실적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27~156호.

3. 교류협력사업 동향

□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 2004년 4~6월 중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이나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단체)은 없음. 6월 말 현재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단체)은 총 11개로 전체 112개 기업(단체)의 9.8%를 차지하고 있음. 승인된 협력사업 76건 중 농림수산분야는 6건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음.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2004년 6월 말 현재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 승인일
미홍식품**(합 영)	조선철산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가공·양식 및 판매	청진, 함흥 원산, 남포	15만불 (47만불)*	'97.5.22 ('98.3.13)*
파라우수산(합 영)	조선은파산무역상사	수산물 생산·가공	원산, 해주	300만불	'97.8.1
금오식품(합 작)	은하무역총회사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불	'97.8.1
태영수산/LG상사** (합 영)	광명성총회사	가리비 양식·생산	나진, 원산	200만불 (65만불)*	'97.10.14 ('98.8.28)*
안흥개발(합 작)	조선56무역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불	'98.3.13
두레마을영농조합법인** (합 작)	라선경제협조회사	나진,선봉지대 합영농장 운영 및 계약배사업	나진, 선봉	800만불 (200만불)*	'98.4.8 ('98.7.27)*
국제옥수수재단** (조사·연구)	농업과학연구원→ 농업과학원 ('99.3.25)	새품종 생산력 감정시험 및재배적지 확정, 신품종 슈퍼옥수수개발을 위 한 공동연구	평양, 기타	30.9억원 →216억원* ('99.3.25)*	'98.6.18 ('99.6.18→ '01.6.20)*
백산실업**(합 영)	함경북도 선봉군 온실농장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 산·수출	나진, 선봉 (선봉군읍)	20.8만불*	'98.10.28 ('98.10.28)*
(주)해주(합 작)	광명성총회사	북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인근	299만불	'99.1.8
(주)G-한신 (주)경평인터내셔널	광명성총회사	식품가공업 (김치, 된장, 상황버섯음료)	평양	-	'03.10.31
(주)안동대마방직**	새별총회사	북한내 대마재배 및 삼배제품	평양, 황해도	250만불*	'04.2.18*

주: 1) *는 협력사업 승인 금액 및 날짜임.

2)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단체)임.

3)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총회사간의 계약에 의한 금강산영농장사업은 현대아산이 영농장의 시설·농자재를 금강산관광총회사에 연불수출(延拂輸出)하고 북한측은 생산물로 연불수출금을 상환하는 형태임(금강산관광총회사에서 영농장 운영은 고성군인민위원회에, 생산물 납입가격 협의는 광명성총회사에 위탁).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56호.

4.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²

□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1) 개 요

-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4. 5. 4~7 평양에서 개최
 -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2회 및 실무대표 접촉 5회 진행
- 남과 북은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및 차기회담 일정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 이외에도 공동보도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6.15 계기 제10차 이산가족상봉, △6자회담에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협력하는데 대해 의견 접근

2) 성과 및 의의

가. 장성급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시기 사실상 합의

-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 평화 증진의 핵심 요소
 - 지난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꾸준히 진전되었으나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
- 장성급 군사회담의 개최시기(5월중)에 사실상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인 군사 분야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 남북 경협을 보장하기 위한 기존의 군사당국자 채널만으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에는 미흡
 - * 북측은 지난 13차 회담시에는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 대해 ‘건의’라는 표현을 했으나 이번 회담에서 ‘합의’로 바뀐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가 완료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

² 통일부 자료를 요약 재정리한 것임.

- 이로써 경제와 군사분야의 균형 발전이 가능, 상호 상승작용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자체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우리측은 동 회담에서 서해상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문제를 우선 협의할 것을 제기함으로써 매년 5, 6월경 꽃게 잡이 철마다 되풀이 되는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주력

나.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회담문화 형성에 진전

- 북측은 회담 기간 내내 △한미합동 군사연습 중지 △미국 이지스함의 동해배치 철회 공동노력 △탈북자의 인터넷방송 등 대북방송 중지 등을 요구하고 상기 3가지 요구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현안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주장
- 우리측은 북측의 부당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대해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하게 대응
 -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남북관계의 현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과거 냉전·대결시대의 비정상적인 회담형태의 재현임을 지적하고
 - 장성급회담 개최는 이미 약속한 사항인 만큼 다른 조건없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우리측이 회담성가에 급급하지 않는 입장과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한 결과 북측도 결국 우리측의 입장을 수용
 - 이로써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새로운 회담문화가 한 단계 진전을 이룩

다. 남북화해협력 추세가 대세임을 재확인

-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꾸준히 진전됨에 따라 남북간 상호의존성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화
 - 북한의 대외 관계에서 우리와의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형식·실질 모두에서 심대
 - 회담 종료 마지막 순간 북한의 태도 변경은 이를 반증
- 이제는 남북관계가 남북화해협력과 평화증진을 병행해 나갈 수 있는 단계에 진입
 - 앞으로 정부는 북한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

라. 제10차 이산가족상봉에 원칙적으로 합의

-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쌍방은 제10차 이산가족상봉을 6월 중에 진행할 것에 의견 접근
 - 이로써 이산가족상봉 정례화가 지속
- * 이번 회담에서도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북측에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음.

마. 차기 회담 일정에 합의

- 남북은 회담 기간중 군사적 문제 등에 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차기 회담 일정에 어렵지 않게 합의
 - 남북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쌍방 이견이 없음을 재확인
 - 또한 제15차 회담일정에 합의함으로써 장관급회담은 분기별 정례화 정착

□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정식 서명·교환**1) 남북해운합의서 추진경과**

- 2001. 6. 2 ~ 6. 5 북한상선 3척 제주해협 무단 통과, 남북간 해운협력문제가 남북간 쟁점으로 등장
 - * 2001.6.4 우리측은 통일부장관 명의 대북전통문을 통해 해운합의서 체결을 위한 해운회담의 필요성 제기
- 2001. 9.15 ~ 9.18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민간선박의 상호 영해통과 허용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해운실무접촉 합의
- 2002.10.19 ~ 10.22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해운실무접촉 합의
- 2002.11.18 ~ 11.20 제1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개최
- 2002.12.25 ~ 12.28 제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개최, 남북해운합의서 가서명
- 2003.10.11 ~ 10.12 제3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개최

- 2004. 2.25 ~ 2.26 제4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개최, 남북해운부속합의서 주요 쟁점사항 타결
- 2004. 5.28 남북해운부속합의서 가서명
- 2004. 6. 2 ~ 6. 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시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정식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교환

2) 남북해운합의서 주요내용

☐ 남북 해상운송

-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운항 보장

☐ 항로개설

- 해상항로는 나라와 나라가 아닌 민족내부 항로로 인정
-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홍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항로 개설

☐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 항만내에서 자기측 선박과 동등한 대우 부여
 - 항만시설의 사용료 부과, 선석배정, 화물 하역 등

☐ 행정증서의 상호 인정

- 선박관련 서류와 선원 신분증명서 상호인정

☐ 해양사고시 등의 상호 협력

- 선박의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해양사고나 긴급환자발생시 긴급피난 보장
- 해사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구조 또는 해양오염방제 실시

☐ 선원 및 여객의 상륙

-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대측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 가능

-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

☐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 선박운항 정보교환을 위하여 해사당국간에 통신망 구성
- 항만시설의 개선, 해상운송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 및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기구 구성·운영

☐ 통신

- 전화 및 모사전송을 포함한 유선통신망 확보

3) 남북해운합의서 기대효과

☐ 남북한간 안정적인 수송 실현

- 해상항로 개설 및 해상항로대 지정
- 남·북간 해양사고에 대한 구조체제 확립
-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
- 선박운항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망 구축

☐ 해운항만산업의 상호 발전

-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교류와 협력 촉진
- 항만시설의 개선, 해상운송 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 연안해운 활성화 및 교역 확대

- 제3국적선이 수송하던 물자를 남·북한 국적선이 직접수송
- 연간 30억 이상의 용선료 해외유출 방지
- 물류비 절감에 따른 교역 확대

□ 남북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

○ 상호 교류확대를 통해 공감대 형성

○ 해운항만산업의 공동발전으로 통일기반 조성

4) 남북간 선박운행 및 물동량 현황

□ 남북간 선박운행현황

○ 현재 남북간 선박운행은 3개 항로의 정기선과 수산물 교역, 쌀, 비료 등 인도지원물자 운송 부정기선으로 운행

- 쌀, 비료 지원물자 운송 등 일부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3국적선을 용선 운행

- 2003년도의 경우 남북간 선박운행은 편도기준 2,022회, 해상물동량은 1,048,383톤

【연도별 남북한간 선박운행 횟수】

(단위: 회)

구 분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남한→북한	27	99	101	113	260	731	916	766	798	877	4,688
북한→남한	70	208	221	244	342	983	1,157	920	1,029	1,145	6,319
계	97	307	322	357	602	1,714	2,073	1,686	1,827	2,022	11,007

【연도별 남북한간 선박 물동량 현황】

(단위: 천톤)

구 분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남한→북한	6	281	148	361	396	781	547	402	899	841	4,662
북한→남한	131	346	188	250	162	203	156	239	1577	207	3,459
계	138	627	335	611	558	984	703	642	1,056	1,048	6,702

□ 남북간 정기항로현황

선박명(선사명)	항 로	운행목적	운행횟수
CHU XING(동용해운)	부산-나진	남북교역물자 운송	월 4회
TRADE FORTUNE(국양해운)	인천-남포	남북교역물자 운송	월 4회
한겨레호(대아고속해운)	속초-양화	경수로 건설인력 운송	월 2회

* 한겨레호를 제외하고 CHU XING호는 중국, TRADE FORTUNE호는 파나마 국적선

□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1) 회담 개요

- 제9차 경추위가 2004.6.2~5 (3박 4일) 평양에서 개최
 - 개성공단 건설 일정 등 7개항의 합의문 타결
 - 전체회의(2회), 위원장 접촉, 위원접촉 등 실질협의 진행
 - * 이번 경추위 기간 중 지난 '04.2.26 제4차 남북 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타결된 해운 부속합의서를 서명·교환(6.3)

2) 회담의 의의

□ 안보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계기 마련

- 이번 제9차 경추위와 같은 기간에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6.3-4)을 개최, 남북관계의 균형 발전에 기여
 - 평양 경추위에서는 경험 관련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설악산 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합의

□ 주요 경험사업 진전의 추동력 확보

- 개성공단 건설 관련 6월중 관리기관 구성, 9월 전력·통신공급 일정에 합의, 하반기 기업입주, 제품생산의 토대를 구축
 - 북측은 전력·통신 공급 관련 상업적 방식을 재확인하고, 당국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개성공단실무협의회에서 논의
- 경의선·동해선 도로 10월중 개통에 합의, 개성공단 개발사업 및 금강산 관광 활성화에 기여
 - 철도는 금년 10월 가능한 구간에서 시험운행, 내년 개통에 합의, 한반도 등서 물류축 형성이 가시권에 진입
- 민간부문의 경험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제기,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 선적전 검수, 북측 지역 체류시 통신 편의제공, 현지 기술지도 확대, 원산지 증명서 발급지연 문제 등 업계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한 북측의 인식 제고

□ **핵문제 해결 및 군사적 긴장완화 등 안정적 경험 추진여건 마련 촉구**

- 전체회의 기초발언에서 우호적인 경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 핵 문제 등 경험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함을 강조

3) 주요 합의사항 해설

① **개성공단 건설**

- 개성공단 건설은 6월말 부지조성공사 완공, 관리기관 구성 → 하반기 기업입주, 제품생산
 - 4.23 공사에 착수한 이래, 5월말 현재 30% 이상 공사 진척
- 전력·통신은 합의된 바에 따라 상업적 방식으로 시범단지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9월까지 적기 공급
 - 시범단지 전력(15,000kW)은 배전방식, 본공단 전력(70,000kW)은 송전 방식으로 공급
 - 통신은 문산-개성(전신전화국)-개성공단 통신센타간 전송로를 연결, 운용(시범단지 유선 100회선, 본 공단 유선 10,000회선 등)
 - * 전력, 통신 등 기반시설을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투자하고 이를 운영,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아 원가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
- 국내적으로도 시범단지 분양 관련 절차가 진행 중
 - 5.18 분양공고, 5.24-27 분양신청접수, 6.5 업체선정, 6.14 선정 업체와의 계약 체결 예정(136개 기업이 입주를 신청)
 - 시범단지는 국내기업들의 수요, 공단개발시 블록별 개발이 효율적이라는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 최대 2만 8천평으로 분양면적 조정

② **남북 철도·도로 연결**

- 남북간 도로는 금년 10월 동시개통, 철도는 금년 10월 시험 운행 실시, 내년말 개통 추진
 - 남북은 철도·도로 공사를 착실히 추진 중
- 도로 개통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추진에도 합의
 - * 현재는 '03.1.27. 9.17 채택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의해 군사적 보장이 되고 있으나 본도로 통행 관련 새로운 합의를 채택하여 도로 통행과정에서의 안전보장, 사고시 협력 등을 규정

할 필요

- 도로 개통시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 금강산육로관광 등 경협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성, 편리성 제고

③ 남북 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는 직교역 확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협의통로라는 데는 남북간 인식이 접근
 - 사무소 기능, 사무소 활동보장, 통신 등 사무소 개설,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빠른 시일내에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합의
- 사무소가 개설될 경우 지금까지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 교역방식의 고비용, 불편함 해소 → 교역활성화의 촉매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④ 경협 제도적 장치 확충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입법사항이 포함된 남북한 합의서에 대해 국회의 체결동의 추진
 - 차량운행('02.12.6), 개성공단 통신, 통관, 검역('02.12.8), 해운('02.12.28), 해운부속('04.6.3),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03.10.12), 개성·금강산 출입·체류('04.1.29) 등 합의서
 - * 현재 이들 합의서에 대해 법제처 사전심사 등 정부내 발효절차가 추진 중
- 부속합의서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 통신에 관한 부속합의서, 통관에 관한 부속합의서, 검역에 관한 부속합의서, 원산지 확인에 관한 세부기준합의서, 차량운행부속합의서, 열차운행부속합의서,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
 - 청산결제 관련 지원창구 지정, 해운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등
- 남북해운합의서 후속조치
 - 남북이 각각 7개 항구간 항로 개설 문제, 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2회선) 설치·운영, 해양사고시 상호협력 방안 등 협의 필요
 - 해운합의서가 발효되면 국적선의 직접운송이 가능,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운송 제도가 마련되어 남북교역의 활성화는 물론 남북한 해운항만분야 협력의 기반이 마련

⑤ 경협 애로사항 시정·해소

- 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기업인들이 남북경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제기, 당국이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 현지 기술지도 확대, 선적전 검수, 통신편의 등 요구
- 정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의 시정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업계의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나갈 방침

⑥ 쌀 차관 제공

-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식량지원을 공식 요구
 - 북측의 식량난(매년 100만톤 내외 부족)을 감안, 쌀 40만톤(예년수준)을 지원키로 합의
 - * 2000년 식량50만톤 (외국산쌀 30만톤 + 옥수수 20만톤), 2002년 국내산 쌀 40만톤, 2003년 국내산쌀 40만톤 제공

4) 향후 남북회담 일정

- 제2차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 6월중 (개성)
- 제10차 남북 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 6.30~7.2 (금강산)
- 제5차 해운실무접촉 : 7.13~15 (속초)
- 제15차 장관급회담 : 8.3~6 (서울)
- 경추위 제10차 회의 : 8.31~9.3 (서울)

□ 제2차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회의

1) 개 요

- 남북은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2004.6.24~25간 개성에서 개최하여
 - 개성공단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전력, 통신, 용수 및 폐기물처리와 통관, 검역 등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 앞으로 개성공단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실무접촉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음.

- 아울러 청산결제 은행간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수출입은행과 무역은행간 청산결제 업무에 관한 합의서』에 가서명하였음.

2) 주요 협의사항

-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전력·통신공급 등 사업자간 쟁점을 타결하고 통신·통관·검역 부속합의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회담을 운영하였음.
 - 통신공급 관련 북측의 참여범위, 통관·검역 등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호 의견을 개진하고 추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 쌍방은 개성공단 건설사업이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있어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 전력 및 용수공급, 폐기물 처리 등 내부기반시설의 적기 건설을 위해 협력하는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 향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정부는 앞으로 북측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여 개성공단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

□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음.
 - 금년 10월중 경의선·동해선 도로 개통에 필요한 실무적 문제, 북측 분계역사 등 건축설계, 신호·통신·전력계통 시공관련 기술지원 등을 협의하고 5개항에 합의
- 북측 경의선·동해선 분계역사 등의 건축계획설계 및 향후 일정 합의
 - 현장조사시 검토한 기술적 사항을 바탕으로 철도 개통후 열차운행에 필요한 규모의 건축계획설계 확정
 - * 경의선·동해선 현장조사('04.4.17~19, 4.27~4.29), 추가기술협의('04.5.27~5.29)
 - '05년 철도 개통 일정을 고려, 8월초순 기초도면, 9월말 실시설계를 확정하는 일정 합의
- 금년 10월 도로개통에 필요한 도로 안전용 자재를 제공기로 합의, 금강산 당일관광, 개성공단시범단지 입주 등에 따른 원활한 운행 지원
 - 도로 가로등, 중앙분리대, 도로표지판을 제공, 남북 도로운행의 안전성 제고

- 신호·통신·전력계통 등 철도·도로 공사를 위한 기술지원에도 합의
 - 8월초순 분계역사 건축기초공사를 위한 기술지원, 7월하순 신호·통신·전력계통 시공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 * 우리측 설계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 예정
 - 고장장비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도 지속 실시, 제공장비의 사용 투명성·효용성 제고
- 지난 제9차 경추위에서 합의한 금년 10월 경의선·동해선도로 개통, 철도 시험운행을 재확인하고
 - 이를 위해 분계역사 건축설계 일정 및 자재지원 등에 합의함으로써
 - 철도·도로 건설이 이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 마련
- 특히, 우리측 왕래 인원들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 가로등, 도로표지판 등을 설치하기로 합의
 - 이미 지원키로 합의된 자재·장비의 품목을 일부 조정하여 우리측이 제공

□ 북한 용천 사고 지원 현황

1) 사고 개요

- 4.22 평북 용천역에서 열차 폭발사고가 발생
 - 질안비료(질소암모늄)를 적재한 화물차량과 유조차량을 궤도교체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전기선에 접촉하여 폭발사고 발생(4.24, 조선중앙통신)
 - 4.26 현재 피해반경 1.5~2km, 폭발지점 깊이 15m, 건물 30여동 및 완파 1,850세대 포함, 주택 8,100여세대 파괴, 사망자 150여명, 부상자 1,300여명, 행불자는 조사 중 (4.26 조선중앙통신)

2) 주요 지원내용

- 정부·한적(민간기탁 포함) 지원상황(누계 : 34,948백만원 / 2,912만불)

품 목	금액	수송상황
○ 1차 구호물자 해상수송 - 의약품 72종, 의료장비 및 의료비품 91종 - 응급구호품 3종, 생필품 등 2종	886백만원 (73만8천불)	4.29 남포항 전달완료

품 목	금액	수송상황
○ 2차 구호물자 항공수송 - 응급구호세트 3,480세트, 생필품 11종, 의약품 9종	591백만원 (49만3천불)	4.30 순안공항 전달완료
○ 3차 구호물자 항공수송 - 의약품 341종, 의료비품 277종, 의료장비 9종	2,640백만원 (220만불)	5. 4 순안공항 전달완료
○ 4차 구호물자 해상수송 - 구호세트, 식료품, 의류, 생수 등 컨테이너 88대 분량	1,945백만원 (162만불)	5. 6 남포항 전달완료
○ 1차 자재·장비 육로수송 - 덤프트럭(8t) 20대, 책걸상 1,500조, 철판 50개	1,104백만원 (92만불)	5. 7 개성 전달완료
○ 2차 자재·장비 지원 - 굴삭기 5대, 휠로더 10대, 부품 15개	864백만원 (72만불)	5.13 신의주 완료
○ 3차 자재·장비 지원 - 철근(10mm) 500톤, 염화비닐 460톤, PVC파이프 15톤, PVC 필터 25톤	641백만원 (53만불)	5.11 인천항 출항 5.15 신의주 완료
○ 5차 구호물자 지원 - 식료품, 생필품, 의류, 생수 등	2,221백만원 (185만불)	5.12 인천항 출항 5.13 남포항 완료
○ 4차 자재·장비 지원 - 쌀 5,000톤	9,128백만원 (760만7천불)	5.17 군산항 출항 5.21 남포항 완료
○ 5차 자재·장비 및 6차 구호물자 지원 - 디젤유 500톤, 휘발유 500톤 - 의약품, 의류 등	1,540백만원 (128만불) 720백만원 (60만불)	5.21 인천항 출항 5.24 남포항 완료
○ 6차 자재·장비 지원 - 시멘트 1차분 6,600톤	535백만원 (44만6천불)	5.20 동해항 출항 5.24-27 단동-신의주 수송
○ 7차 자재·장비 - 밀가루 5,000톤, 철판지붕재 4만m ² , 철근(13mm) 500톤	3,425백만원 (285만4천불)	5.25 인천항 출항 6. 1 남포항 완료
○ 8차 자재·장비 - 시멘트 2차분 3,000톤	243백만원 (20만3천불)	5.23 인천항 출항 5.24-29 단동-신의주 수송
○ 9차 자재·장비 - 시멘트 3차분 3,000톤	243백만원 (20만3천불)	5.30 인천항 출항 6. 1 신의주 완료
○ 10차 자재·장비 - 시멘트 4차분 9,500톤	769백만원 (64만1천불)	6. 2 출항(동해 →단동) 6.11 신의주 완료

품 목	금액	수송상황
○ 7차 구호물자 - 의약품, 생필품 등	768백만원 (64만불)	6. 3 인천항 출항 6. 6 남포항 완료
○ 13차 자재·장비 - 수지창(2만㎡, TV 50대)	768백만원 (64만불)	6. 4 출항(인천 →단동) 6. 9 신의주 완료
○ 11차 자재·장비 - 시멘트 5차분 3,000톤	243백만원 (20만3천불)	6. 6 인천항 출항 6.14 신의주 완료
○ 14차 자재·장비 - 폴리에틸렌 1,000톤	990백만원 (82.5만불)	6. 6 인천항 출항 6.10 신의주 완료
○ 15차 자재·장비 - 수지창(2만㎡)	753백만원 (62.8만불)	6. 8 출항(인천 →단동) 6.11 신의주 완료
○ 12차 자재·장비 - 시멘트 3,000톤	233백만원 (20만3천불)	6. 8 출항(인천 →단동) 6.17 신의주 완료
○ 16차 자재·장비 - 시멘트 9,700톤	786백만원 (65만5천불)	6.16 출항(동해 →남포) 6.24 남포 완료
○ 17차 자재·장비 - 시멘트 8차분 2,700톤	218백만원 (18.2천불)	6.28 신의주(완료)
○ 8차 구호물자 - 의약품, 생필품 등	1,421백만원 (118.4만불)	6.26 남포항(완료)
○ 18차 자재·장비 - 시멘트 9차분 9,500톤	769백만원 (64.1천불)	7.8 신의주(완료)
○ 9차 구호물자 - 식료품, 생필품 등	494백만원 (41.1만불)	7.4 남포항(완료)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활동 참가와 관련 WHO(세계보건기구)에 20만불을 지원(5.13)
- NGO, 시민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성·금품을 모집하여 대한적십자사에 지정기탁을 의뢰하는 경우, 수송비 지원
- 남북당국간 개성실무회담(4.27)에서 북측이 피해복구를 위해 요청한 자재·장비는 가급적 전량 지원
 - 소요비용(수송비 등 포함 약 310억원 추정), 국민성금과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지원 자재·장비 내역
 - ① 철판지붕재(0.8mm 아연도) 4만㎡, ② 시멘트 5만t, ③ 수지창(유리포함) 2만㎡,

④ 페이로더 10대, ⑤ 굴삭기(유압식 0.5~1m³) 5대, ⑥ 자동적재차(8t급 이상) 20대, ⑦ 디젤유 500t, ⑧ 휘발유 500t, ⑨ 환강(10mm, 13mm 각각) 500t, ⑩ 염화비닐(사출용) 500t, ⑪ 경화성수지에칠렌(사출용) 1,000t, ⑫ 식량(쌀, 밀가루 각 5,000t) 10,000t, ⑬ 교육용비품(TV, 책걸상, 칠판 : 1,500명분)

- 북측이 5.17 적십자 창구를 통해 추가로 지원 요청한 고무방수판 20m²과 도로건설용 피치 1,000톤은 물자가 확보되는 대로 지원

5) 향후 추진계획

- 북측이 요청한 복구 자재·장비의 가능한 빠른 지원을 위해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나누어 전달을 추진
 - 추가 요청분에 대해서는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
 - * 8월초 지원 추진(예정)
- 최종 10차 구호물자 지원이 7. 21경 이루어질 예정
- 민간·지자체의 지원은 가급적 “한적” 창구 활용을 권유
 - ※ 7. 12 현재, 민간·지자체 지원 상황(통일부 반출승인 기준) : 20여개 기관 약 279.5억원 상당 구호물품 지원

☐ 용천 재해 관련, 국제구호 현황

☐ 개별국가

- 미국
 - 4.26 백악관 대변인, 적십자사를 통해 10만불 상당의 구호물품 지원계획 발표
- 일본
 - 4.25 외무성, 10만불 상당의 비상 의료세트 지원 계획 발표
- 중국
 - 4.24 외교부, 1천만원(120만불) 상당 구호물자 지원 발표
 - 4.25 1차로 신의주 세관을 통해 50만원(6만불 상당) 담요 2,000매, 텐트 300장, 식품 등 전달
 - 4.30 모포, 식료품, 자재 등 1,000만원(121만불 상당) 지원

○ 러시아

- 4.24 푸틴 대통령 명의 위로전문 전달
- 4.25 1단계로 의약품 10t, 모포 1천장, 텐트(10-30인용) 85장 등 지원(45만불 상당) 발표
 - * 4.27 평양 순안공항으로 전달
 - * 2단계로 건축자재를 철도를 통해 공급

○ 캐나다

- 10만 캐나다달러(7.4만불), 적십자사 통해 지원 발표

○ EU

- 4.23, EU집행위는 20만 유로(24만불) 상당을 덴마크 적십자사를 통해 지원 결정

○ 독일

- 총리명의로 위로전문 발송
- 30만불 상당 지원계획

○ 그밖에,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체코, 그리스, 싱가포르, 캄보디아, 시리아, 태국,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헝가리, 이탈리아 등 지원 또는 지원 예정

□ 국제기구

-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 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적십자국제위원회(ICRC) 등 204만불 상당 지원

□ 국외 NGOs

- 독일 카리타스, 독일 세계식량원조, LA한인회, 단동한인회 등 48.6만불 상당 지원
 - ※ 용천돕기 워싱턴 한인모임 의약품, 의료용품 등 1,200만불 상당의 의약품·의료용품 지원(美 King 제약회사 기증)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

표 1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 1995.9~2004.7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70	79.5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9, EU 860 등
3차 '97.4~12	18,439	15,781	85.6	미국 4,537, 일본 2,700, 한국 2,633, EU 2,752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EU 1,380, 한국 1,100, 캐나다 395, 노르웨이 239, 이집트 280, 호주 132, 체코 2 등
5차 '99.1~12	29,208	18,980	65.0	미국 17,50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호주 270, 노르웨이 200,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263	48.6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80	64.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5, 스위스 222, 노르웨이 212, 캐나다 170, 덴마크 151 등
8차 '02.1~12	24,684	21,979	89.0	미국 6,347,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노르웨이 176, 영국 171, 독일 135, 덴마크 103, 핀란드 70, 룩셈부르크 56 등
9차 '03.1~12	22,937	13,315	58.2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21,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99, 네덜란드 220, 호주 176, 덴마크 154, 핀란드 125, 쿠바 47 등
10차 '04.1~7	20,893	4,891	23.4	EU 1,403, 스웨덴 765, 호주 506, 캐나다 497, 독일 441, 노르웨이 298, 아일랜드 292, 영국 182, 핀란드 119, 덴마크 116, 룩셈 부르크 81, 한국 70, 뉴질랜드 25, 네덜란드 21 등
총 계	230,655	140,974	61.1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

며 유엔합동호소를 통해 지원하였거나 지원을 약속한 금액을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25 July, 2004)

* UN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DPR Korea

표 2 2003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실적 (2004.1.1~7.25)

기 구	지원요청액(달러) ¹⁾	조성금액(달러) ²⁾	부족액(달러)	실적율(%)
ADRA	636,327	148,000	488,327	23.3
AFMAL	240,000	0	240,000	0.0
CESVI	974,971	649,971	325,000	66.7
CONCERN	1,595,887	1,342,887	253,000	84.1
DWH/GAA	2,945,099	2,142,099	803,000	72.7
FAO	3,978,000	2,376,641	1,601,359	59.7
HI B	575,000	0	575,000	0.0
OCHA	579,984	534,444	45,540	92.1
PU	1,229,000	1,066,351	162,649	86.8
SC UK	970,000	0	970,000	0.0
TGH	1,185,656	785,656	400,000	66.3
UNFPA	672,000	194,056	477,944	28.9
UNICEF	14,951,960	8,523,795	6,428,165	57.0
WFP	172,432,746	28,148,744	144,284,002	16.3
WHO	5,962,300	3,000,190	2,962,110	50.3
총 계	208,928,930	48,912,834	160,016,096	23.4

주: 1) 조정된 지원요청액

2)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약속을 받은 금액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25 July, 2004)

표 3 2004년도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분야/지원경로별)

기구	프로젝트	프로젝트 주요 내용	지원요청액 ^{a)} (달러)	조정금액 (달러)	부족액 (달러)
농업(Agriculture) 및 식량(Food)					
FAO	A01	이모작 지원(주작물 및 봄작물)	1,100,000	448,724	651,276
	A02	원예작물 생산	1,060,000	624,384	435,616
	A03	이모작 지원(주작물 및 겨울작물)	1,100,000	1,110,560	680,000
	FAO	예비 할당액	0	0	-10,560
소 계(FAO)			3,260,001	2,183,668	1,756,332
WFP	F01	취약계층 긴급지원(EMOP 10141.1)	171,330,191	23,455,362	147,874,829
	F024	특별사업(지방식품생산 지원, 하역, 취로사업)	1,102,555	4,693,382	-3,590,827
소 계(WFP)			172,432,746	28,148,744	144,284,002
CONCERN	A06	감자 및 밀 생산 지원	274,657	274,657	0
	A07	평안남도 화북생산 및 경사지 관리	271,370	271,370	0
DWH/GAA	A04	평안북도 겨울밀 종자 증식 및 분배관리체계 도입	250,000	0	250,000
	F03	평안북도 유치원 어린이 급식	1,478,000	1,478,000	0
TGH	A05	양묘장 복구사업	271,370	271,370	0
		소 계(NGOs)	2,545,397	2,295,397	250,000
합 계			178,238,144	32,627,809	146,290,334
건강(Health)					
UNICEF	H01	기초 의약품 지원	5,118,400	861,195	4,257,205
	H02A	예방접종 확대사업	1,299,200	1,011,420	287,780
	H03	긴급영양회복, 영양실조예방, 미량영양소결핍 예방	2,358,720	1,089,075	1,269,645
	H04	산모안전	343,840	0	343,840
WHO	H02B	예방접종 확대사업	320,000	0	320,000
	H05	SARS를 포함한 질병발생 조기 발견 및 관리	964,600	0	964,600
	H06	말라리아, HIV/AIDS, 결핵 관리 강화	777,000	700,000	77,000
	H07	지역수준의 보건 서비스 강화	2,438,000	0	2,438,000
WHO	H08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 의약품 지원	857,300	0	857,300
	H09	수혈서비스 향상	372,200	0	372,200
	H10	지역수준의 시험분석서비스 개선	233,200	0	233,200
	WHO	예비 할당액	0	2,300,190	-2,300,190
UNFPA	H11	지역수준의 아동보호 강화	378,000	194,056	183,944
	H12	어머니 건강 증진	294,000	0	294,000
HI B	H13	협종의 정형외과병원 복구 및 장애인 지원	575,000	0	575,000
	H14A	군 단위 병원 복구 종합사업	148,000	148,000	0
ADRA	H14B	군 단위 병원 복구 종합사업 - 제2단계	136,000	0	136,000
	H20	용천 시범병원 건설	352,327	0	352,327
SC UK	H15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아동병원 복구	0	0	0
	H16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지역보건 서비스 강화	970,000	0	970,000
PU	H17	IV 용액생산 개선	29,000	0	29,000
	H18	도 및 군 단위 병원의 IV 용액 생산 복구	1,200,000	1,066,351	133,649
AFMAL	H19	강원도의 어머니 및 여성 건강 서비스 강화	240,000	0	240,000
TGHI	H20	양로원 지원	400,000	0	400,000
CESVI	H21	관교군 및 원산도립병원 보건 서비스 강화	325,000	0	325,000
CONCERN	H22	북청군 농촌 보건시설 지원	253,000	0	253,000
합 계			20,382,787	7,370,287	13,012,500
식수와 위생(Water and Sanitation)					
UNICEF	WS01	식수와 환경위생	3,732,800	3,167,270	565,530
DWH/GAA	WS02	평안북도 3개군 18개 협동조합 건강증진사업	664,099	664,099	0
TGH	WS03	평안남도 물 및 위생사업	514,286	514,286	0
CONCERN	WS04	덕천 및 북청군 도농 물공급 복구사업	304,191	304,191	0
	WS05	회창군 도농 물공급 복구사업	417,763	417,763	0
	WS06	북창, 곡천, 회창군, 평양시 AES 장비지원 및 훈련사업	74,906	74,906	0
	CESVI	강원도 원산도립병원 및 관교의 용수 및 위생 종합사업	649,971	649,971	0
합 계			6,358,016	5,792,486	565,530
교육(Education)					
UNICEF	E01	기초교육	924,000	262,134	661,866
UNICEF	E02	용천군 제2유치원 재건축	331,818	0	331,818
UNICEF	E03	용천군 보육원 재건축	297,727	0	297,727
UNICEF	E04	용천군 제1초등학교 재건축	545,455	0	545,455
DWH/GAA	E05	총천군 사회복지시설 건축	553,000	0	553,000
FAO	E06	용천군 농업고등학교 재건축	468,000	0	468,000
합 계			3,120,000	262,134	2,857,866
조정업무(Coordination)					
OCHA	CSS01	2004년도 대북지원 프로그램의 조정업무	379,984	267,222	112,762
	CSS02	NGO 긴급지원	200,000	267,222	-67,222
	CSS03	2004년 농업 및 식량안보 긴급복구 및 농업 지원	250,000	192,973	57,027
합 계			829,984	727,417	102,567
총 계			208,928,930	48,912,834	160,016,096

주: 조정된 지원요청액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25 July, 2004)

표 4 2004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분야/지원국가별)

분야/지원국가	지원경로	프로젝트 번호	지원액(달러)
농업(Agriculture)			
핀란드	FAO	DPRK-04/A02	426,836
아일랜드	CONCERN	DPRK-04/A06	93,633
노르웨이	FAO	DPRK-04/A01	448,724
노르웨이	FAO	DPRK-04/A02	197,548
노르웨이	FAO	DPRK-04/A03	188,959
개인/NGO/국제	CONCERN	DPRK-04/A06	181,024
스웨덴	TGH	DPRK-04/A05	271,370
스웨덴	CONCERN	DPRK-04/A07	271,370
스웨덴	FAO	DPRK-04/A03	921,601
합 계			3,001,065
경제회복 및 하부구조(Economic Recovery and Infrastructure)			
호주	UNICEF	DPRK-04/WS01	746,269
합 계			3,001,065
교육(Education)			
호주	UNICEF	DPRK-04/E01	262,134
합 계			262,134
식량(Food)			
호 주	WFP	DPRK-04/F01	2,158,274
호 주	WFP	DPRK-04/F01	2,158,274
캐나다	WFP	DPRK-04/F01	751,793
캐나다	WFP	DPRK-04/F01	751,879
캐나다	WFP	DPRK-04/F021	1,911,764
캐나다	WFP	DPRK-04/F021	1,102,805
덴마크	WFP	DPRK-04/F01	1,156,833
덴마크	WFP	DPRK-04/F01	7,112
유럽집행위원회	WFP	DPRK-04/F01	4,988,123
핀란드	WFP	DPRK-04/F01	373,135
핀란드	WFP	DPRK-04/F02	17,044
독 일	WFP	DPRK-04/F01	1,865,671
독 일	WFP	DPRK-04/F02	919,117
독 일	DWH/GAA	DPRK-04/F03	1,478,000
아일랜드	WFP	DPRK-04/F01	932,836
아일랜드	WFP	DPRK-04/F01	1,807,552
일 본	WFP	DPRK-04/F02	13,761
룩셈부르크	WFP	DPRK-04/F01	808,166
네덜란드	WFP	DPRK-04/F01	208,609
뉴질랜드	WFP	DPRK-04/F01	250,000
노르웨이	WFP	DPRK-04/F01	711,238
노르웨이	WFP	DPRK-04/F01	393,013
개 인	WFP	DPRK-04/F01	20,000
개 인	WFP	DPRK-04/F02	15,360
스웨덴	WFP	DPRK-04/F01	2,999,877
스웨덴	WFP	DPRK-04/F01	1,062,307
스웨덴	WFP	DPRK-04/F01	38,225
스웨덴	WFP	DPRK-04/F01	12,445
스웨덴	WFP	DPRK-04/F02	704,907
미 국	WFP	DPRK-04/F02	8,624
합 계			29,626,744

보건(Health)			
캐나다	UNICEF	DPRK-04/H01	406,933
유럽집행위원회	UNFPA	DPRK-04/H11	194,056
유럽집행위원회	PU	DPRK-04/H18	1,066,351
유럽집행위원회	UNICEF	DPRK-04/H03	959,846
유럽집행위원회	WHO	DPRK-04/WHO	1,184,834
핀란드	UNICEF	DPRK-04/H03	111,000
한 국	WHO	DPRK-04/H06	700,000
노르웨이	UNICEF	DPRK-04/H02A	320,993
노르웨이	WHO	DPRK-04/WHO	572,615
개 인	ADRA	DPRK-04/H14A	148,000
스웨덴	WHO	DPRK-04/WHO	542,741
영 국	UNICEF	DPRK-04/H03	18,229
영 국	UNICEF	DPRK-04/H01	454,262
영 국	UNICEF	DPRK-04/H02A	690,427
합 계			7,370,287
미분류(Unattributed)			
유럽집행위원회	UNICEF	DPRK-04/UNICEF	2,132,701
합 계			2,132,701
물 및 위생(Water and Sanitation)			
캐나다	UNICEF	DPRK-04/WS01	44,195
유럽집행위원회	CONCERN	DPRK-04/WS05	342,857
유럽집행위원회	DWH/GAA	DPRK-04/WS02	514,286
유럽집행위원회	TGH	DPRK-04/WS03	514,286
유럽집행위원회	UNICEF	DPRK-04/WS01	1,616,914
유럽집행위원회	CESVI	DPRK-04/WS07	514,286
독 일	UNICEF	DPRK-04/WS02	149,813
아일랜드	CONCERN	DPRK-04/WS04	85,714
노르웨이	UNICEF	DPRK-04/WS01	105,757
개인/NGO/국제	CONCERN	DPRK-04/WS05	74,906
개인/NGO/국제	CONCERN	DPRK-04/WS04	218,477
개인/NGO74	CONCERN	DPRK-04/WS06	74,906
스웨덴	WHO	DPRK-04/WS07	135,685
영 국	UNICEF	DPRK-04/WS01	654,135
합 계			5,046,217
총 계			48,912,834

주: 2004년 7월 25일 현재 실적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25 July, 2004)

표 5 2004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식량지원)

지원국가	품 목	물량(톤)	금액(달러)
호 주	밀가루	5,733	2,158,274
호 주	밀가루	5,604	2,158,274
캐나다	밀가루	2,214	751,793
캐나다	밀가루	TBI	751,879
캐나다	생선통조림	2,054	1,911,764
캐나다	콩	1,846	1,102,805
덴마크	밀가루	4,319	1,156,833
덴마크	밀가루	27	7,112
유럽집행위원회	여러가지	10,174	4,988,123
핀란드	식물성유지	442	373,135
핀란드		지원예정	17,044
독 일	밀가루	6,165	1,865,671
독 일	밀가루	2,898	919,117
아일랜드	식물성유지	1,124	932,836
아일랜드	밀가루	6,749	1,807,552
일 본			13,761
룩셈부르크	밀가루	2,000	808,166
네덜란드	밀가루	779	208,609
뉴질랜드	밀가루	825	250,000
노르웨이	식물성유지	885	711,238
노르웨이	콩	771	393,013
개 인		지원예정	20,000
개 인		지원예정	15,360
스웨덴	밀가루	11,024	2,999,877
스웨덴	밀가루	3,967	1,062,307
스웨덴	밀가루	143	38,225
스웨덴	밀가루	47	12,445
스웨덴	쌀	1,297	704,907
미 국		지원예정	8,624
합 계			28,148,744

주: 2004년 7월 25 현재 실적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25 July, 2004)

표 6 2004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비식량 지원)

지원국가 및 단체	지원경로	프로젝트 번호	지원내용	지원액(달러)
호 주	UNICEF	DPRK-04/WS01	물 및 환경위생사업	746,269
캐나다	UNICEF	DPRK-04/WS01	물 및 환경위생사업	44,195
캐나다	UNICEF	DPRK-04/H01	기초의약품	406,933
유럽집행위원회	UNICEF	DPRK-04/H03	긴급영양회복, 영양실조 예방	959,846
유럽집행위원회	TGH	DPRK-04/WS03	평안남도 물 및 위생사업	514,286
유럽집행위원회	UNFPA	DPRK-04/H11	지역 단위 출산간호 강화사업	194,056
유럽집행위원회	PU	DPRK-04/H18	도 및 군 단위 병원의 IV용액 생산 복구사업	1,066,351
유럽집행위원회	UNICEF	DPRK-04/WS01	물 및 환경위생사업	1,616,914
유럽집행위원회	WHO	DPRK-04/WHO	사업 예비비	1,184,834
유럽집행위원회	CESVI	DPRK-04/WS07	판교, 원산 병원의 물 및 환경 종합사업	514,286
유럽집행위원회	UNICEF	DPRK-04/UNICEF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사업	2,132,701
유럽집행위원회	CONCERN	DPRK-04/WS05	회천군 도농 물 공급 복구사업	342,857
유럽집행위원회	DWH/GAA	DPRK-04/WS02	평안북도 3개 군 18개 협동농장 건강개선사업	514,286
핀란드	UNICEF	DPRK-04/H03	긴급영양회복 지원사업	111,000
핀란드	FAO	DPRK-04/A02	원예작물 생산 지원	426,836
핀란드	UNICEF	DPRK-04/E01	기초교육사업	262,134
독 일	DWH/GAA	DPRK-04/F03	평안북도 유치원 어린이 급식사업	1,478,000
독 일	DWH/GAA	DPRK-04/WS02	평안북도 3개군 18개 협동농장 건강개선사업	149,813
아일랜드	CONCERN	DPRK-04/WS04	덕천, 북창군 도농 물 공급 복구사업	85,714
아일랜드	CONCERN	DPRK-04/A06	감자 및 밀 생산 지원	93,633
한 국	WHO	DPRK-04/H06	말라리아 방제	700,000
노르웨이	UNICEF	DPRK-04/WS01	물 및 환경위생사업	105,757
노르웨이	FAO	DPRK-04/A03	겨울작물과 주작물 이모작 지원사업	188,959
노르웨이	FAO	DPRK-04/A02	원예작물 지원사업	197,548
노르웨이	WHO	DPRK-04/WHO	사업 예비비	572,615
노르웨이	UNICEF	DPRK-04/H02A	예방접종 강화사업	320,993
노르웨이	FAO	DPRK-04/CSS03	농업 및 식량안보사업	42,945
노르웨이	FAO	DPRK-04/A01	불작물과 주작물 이모작 지원사업	448,724
개 인	CONCERN	DPRK-04/WS06	평양, 북창, 곡천, 회창지역 식수 개선사업	74,906
개 인	ADRA	DPRK-04/H14A	군 단위 병원 보건사업	148,000
개 인	CONCERN	DPRK-04/WS04	덕천, 북창군 도농 물 공급 복구사업	218,477
개 인	CONCERN	DPRK-04/A06	감자, 밀 생산 지원	181,024
개 인	CONCERN	DPRK-04/A05	회천군 도농 물 공급 복구사업	74,906
스웨덴	OCHA	DPRK-04/CSS02	NGO를 통한 긴급지원사업	267,222
스웨덴	FAO	DPRK-04/A03	겨울작물과 주작물 이모작 지원사업	921,601
스웨덴	OCHA	DPRK-04/CSS01	2004년 인도적 지원 조정	267,222
스웨덴	WHO	DPRK-04/WHO	사업 예비비	542,741
스웨덴	TGH	DPRK-04/A05	양묘장 복구사업	271,370
스웨덴	CESVI	DPRK-04/WS07	판교, 원산 독립병원 물 및 위생종합사업	135,685
스웨덴	FAO	DPRK-04/CSS03	농업 및 식량안보 지원사업	150,028
스웨덴	CONCERN	DPRK-04/A07	평안남북도 화목 생산 및 경사지 관리사업	271,370
영 국	UNICEF	DPRK-04/H03	긴급영양회복 및 영양실조 예방지원	18,229
영 국	UNICEF	DPRK-04/WS01	물 및 환경위생사업	654,135
영 국	UNICEF	DPRK-04/H01	기초의약품 지원사업	454,262
영 국	UNICEF	DPRK-04/H02A	예방접종사업	690,427
합 계				20,764,090

주: 2004년 7월 25일 현재 실적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25 July, 2004)

표 7 2004년도 국별 대북 인도적 지원 실적

지원국가	지원액(\$)	총지원액중 비중(%)
한 국	60,226,000	39.25
유럽연합	32,026,644	20.87
개 인	19,301,766	12.58
스웨덴	8,183,136	5.33
독 일	7,746,612	5.05
호 주	5,096,897	3.32
캐나다	4,969,369	3.24
노르웨이	3,371,811	2.20
아일랜드	2,919,735	1.90
유엔기구	1,902,000	1.24
덴마크	1,819,596	1.19
영 국	1,817,053	1.18
핀란드	1,248,389	0.81
이태리	932,836	0.61
룩셈부르크	808,166	0.53
기 타	1,058,128	0.69
합 계	153,428,138	100.00

주: 2004년 7월 25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유엔합동호소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가 별도로 지원한 금액을 모두 포함한 것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25 July, 2004)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가. 유엔기구

□ 유엔인도지원조정국 2004년 4~5월 상황보고서

- 2004년 4월 22일 용천역 기차 폭발사고로 1,300여 명이 다치고 이중 370명이 입원 치원함.
 - 폭발사고로 어린이 76명을 포함하여 총 161명이 사망하였음.
 - 용천군 인구 123,200명 중 용천읍에 거주하는 주민 27,000명이 이주하였으며 1,850가구가 집을 잃었음.
- 이번 용천 폭발사고 이후 북한 당국은 사고 소식을 국제사회에 신속하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결과 2주일 동안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 유엔아동기금, 국제적십자사 등으로부터 3,000만 달러의 지원을 얻어낼 수 있었음.
- 북한의 경제개혁 결과 식량 구매 능력이 급격히 감소한 취약계층이 발생하였으며 이들은 전보다 식량안보가 더욱 취약해졌음.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감소로 인해 300만 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이 세계식량계획의 식량지원 혜택에서 제외되었음.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어린이 영양실조 현상이 재발될 우려가 있음.

자료 : <http://www.reliefweb.int> (UNOCHA, DPR Korea OCHA Situation Bulletin Apr/May 2004, May 31, 2004)

□ 세계식량계획의 2004년 긴급보고 제23호

-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18개의 지방 식품생산공장에서는 총 5,500 톤의 식품을 생산하였으며 이는 계획량의 90% 이상 달성된 것임.
- 세계식량계획은 3명의 북한 고위관리가 인도네시아의 도시지역 공공취로사업과 공공식량배급제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외견학을 주선하였음.
-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키로 한 소맥 수송이 지연됨으로써 임신부, 수유부, 유치원 어린이 등 주로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200만 명의 취약계층이 세계식량계획의 식량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6~7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8월이 되면 상황이 일시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지원이 없을 경우 10월이 되면 상황이 다소 악화되고 11월이 되면 모든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지원과 공공취로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6개월(4월~11월) 동안 175,400 톤의 식량 지원이 필요함.

자료 : <http://www.reliefweb.int> (WFP, WFP Emergency Report No. 23 of 2004, Jun. 4, 2004)

□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지원 상황 - 2004년 5월

-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200만 명 이상의 취약계층이 6월과 7월 동안 세계식량계획의 식량지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됨.
 - 8월 중 34,000 톤의 소맥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황이 잠시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10월이 되면 지원 상황이 다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5월에는 80만 명에 달하는 유치원 및 유아원 어린이들이 식용유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서부지역의 어린이 100만 명 이상은 두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 향후 6개월 동안 필요한 식품은 다음과 같음.
 - 취약계층 및 공공취로사업 지원을 위한 곡물 162,500톤
 - 유치원 및 유아원 어린이 지원, 지방 식품생산공장 원료 지원을 위한 두류 8,200톤

- 유치원 및 유아원 어린이 지원을 위한 식물성 기름 2,000톤
- 지방 식품생산공장 원료 지원을 위한 설탕 2,700톤
- 북한 당국의 공공배급제도 배급량은 1인당 1일 곡물 300그램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6월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250그램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지난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배급제도를 통해 육류를 배급함.
 - 일부 공장에서는 근로자 가구당 1kg의 돼지고기를 배급
- 일부 군에서는 어린이를 유아원에 보낼 때 해당 가구가 어린이 1인당 월 150원을 유아원에 지불하는 것으로 보고됨.
 - 이 비용은 해당 유아원이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식품비의 일부임.
- 5월은 식량 사정이 가장 나쁜 계절이어서 일부 군에서는 식용 산채를 채취하여 공공 배급제도를 통해 주민에게 분배함.
 - 분배량은 10일 동안 1인당 200그램 정도임.
 -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배급제도를 통해 분배하는 대신 개별 가구가 직접 채취하여 자가 소비하도록 함.
- 6, 7월 동안에는 대용식량으로 산채 대신 지방 식품생산공장이나 가정에서 국수를 만들어 부족한 식량을 보충함.
 - 북부 지방에서는 대용식으로 밀 또는 보릿짚, 옥수수 대, 감자 분말을 섞어 사용함.
 - 공공배급제도 대상자 중 70%에게는 1인당 1일 70그램 정도의 국수를 싼값에 배급함.

자료 : <http://www.reliefweb.int> (WFP, DPR Korea Monthly Update - May 2004, Jun. 7, 2004)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대북 식량지원은 기아 극복뿐만 아니라 개혁을 위해서도 필요

- 2주일 동안 북한을 방문하고 베이징으로 돌아온 가톨릭 구호단체인 카리타스의 캐티

젤위거는 한 독일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의 기아를 해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함.

- 카리타스는 연간 230만 달러의 대북 지원 목표를 설정하고 식량 지원이나 병원 건립을 위해 지원하고 있음.

자료 : www.reliefweb.int (Deutsche Presse Agentur, North Korea needs ongoing assistance for hunger and reforms, Jun. 17, 2004)

□ ADRA, 북한 어린이에게 영양 많은 쿠키 선물

- 예수재림교 개발 및 구호기관인 ADRA(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은 북한 어린이의 영양실조 예방을 위하여 평양에 있는 제과점을 통해 32,000명의 어린이에게 영양이 풍부한 통밀 쿠키를 만들어 나누어 주기로 함.
 - 50명의 직원이 2교대로 매일 300,000개의 쿠키를 생산하여 일주일 단위로 평안남북도에 있는 450여 개의 유치원에 소달구지를 이용하여 수송할 계획임.
 - 제과점에서 사용하는 100,000 달러 이상에 달하는 기계류와 인건비는 스위스ADRA와 독일의 DWHH/GAA(Deutsche Welthungerhilfe/German Agro Action)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DWHH는 쿠키 원료를 제공함.
- ADRA는 1995년부터 북한에 식품, 기계류, 종자 등을 지원해 왔으며 2002년부터 일주일에 50,000개의 빵을 생산할 수 있는 제과점을 운영하여 평양에 있는 25,000명의 어린이에게 나누어 주고 있음.

자료 : <http://www.reliefweb.int> (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 International, ADRA cookies 'Smile' at North Korean children, Jun. 18, 2004)

□ 러시아, 국제 인도적 지원에 동참

-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러시아가 큰 규모로 유엔의 국제적 인도지원사업에 참여한 첫 사건이라고 유리 페도토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밝힘.

- 러시아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35,000 톤의 밀을 지원하였음.

- 2003년 러시아는 세계식량계획과 유엔고등판무관실을 통해 각각 1,100만 달러와 200만 달러를 처음 지원하였음.

자료 : www.reliefweb.int (WFP, WFP head, meeting with New Zealand PM, welcomes new donation to North Korea, Jun. 28, 2004)

□ 용천 열차 폭발사고 긴급지원 실적

- 국제적십자연맹은 용천역 폭발사고로 인한 1,850가구의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 4월 26일 국제사회에 125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요청하여 6월 25일까지 목표액의 69.9% 모금액을 달성
- 주요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단계: 담뇨, 식품, 의료키트 등 긴급구호 물품의 분배
 - 제2단계: 의복, 신발, 담뇨, 석탄 지원
 - 제3단계: 종합병원 재건축 및 식수공급체계 복구

자료 : <http://www.reliefweb.int> (IFRC, DPR Korea: Train explosion in Ryongchon Chunt'y Emergency Appeal No. 12/2004 Operations Update No. 5, Jun. 30, 2004)

□ 한국 정부, 북한에 쌀 40만 톤 지원

- 한국 정부는 금년 북한에 40만 톤의 쌀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밝힘.
 - 쌀 40만 톤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2억 7,000만 달러이며 국내산 쌀이 부족함에 따라 30만 톤은 외국쌀을 수입하여 북한에 지원할 계획임.
 - 이 중 10만 톤은 육로를 통해 북한에 수송하되 5만 톤은 서해안 개성, 5만 톤은 동해안 고성에 전달할 계획임.
 - 한국 정부는 당초 북한에 2만 톤만 육로로 수송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 당국은 10만 톤을 육로로 수송해 줄 것을 요청함.
 - 육로수송을 위하여 7월 20일 80대의 25톤 트럭이 동서해안으로 나누어 쌀을 수송하

기 시작하였으며 총 10만 톤의 쌀을 육로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13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 한국 정부는 금년에도 북한 주민의 식량난 해소를 위하여 유엔기구를 통해 10만 톤의 옥수수를 지원할 계획임.

자료 : www.reliefweb.int (Agence France-Presse, South Korea to ship 400,000 tonnes of rice to North, Jul. 6, 2004)

www.reliefweb.int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verland transportation of rice assistance to North Korea, Jul. 13, 2004)

www.reliefweb.int (Agence France-Presse, North Korea opens tightly sealed border for rice aid, Jul. 20, 2004)

☐ 베트남, 쌀 1,000톤을 북한에 지원

- 세계 제2위의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1,000 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함.
 -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용천역 폭발사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자료 : <http://www.reliefweb.int> (Reuters, Vietnam donates 1,000 tonnes rice to North Korea, Jul. 7, 2004)

☐ 미국, 북한에 농산물 5만 톤 지원

- 미국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5만 톤의 농산물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임.
 - 미국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도와주기 위한 것임을 강조

자료 : <http://www.reliefweb.int> (Agence France-Presse, US to donate 50,000 tonnes of commodities to North Korea, Jul. 23, 2004)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북한의 기상

□ 기 온

- 금년 4~6월의 기온은 1~3월에 이어 평년에 비해 높았음.
 - 1월 평균 기온은 평년에 비해 1.4도 높았으며, 2월은 2.9도나 높았으며, 3월은 0.5도 높은 등 겨울철은 작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온화한 기후를 나타냄.
 - 4월 평균 기온은 평년에 비해 1.5도, 5월 0.6도, 6월 2.1도 등 봄철에도 계속 높은 기온을 유지하였음.
- 금년 봄의 높은 기온은 겨울 작물의 생육에 좋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름 작물의 파종 및 발아에도 도움이 되었음.
 - 지난 가을 밀, 보리 등 겨울 작물 파종기만 해도 평년에 비해 건조하였으나 금년 1월 이후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아 겨울 작물의 발아가 평년에 비해 1~2주 정도 빨랐음.
 - 4월부터 6월까지의 온화한 기후와 강우는 봄에 파종한 봄밀, 봄보리, 유채, 감자의 생육에도 좋은 환경을 제공하였음.

□ 강수량

- 5월의 강수량은 전국평균 96.2mm로 평년에 비해 21.2mm 더 내린 반면, 4월과 6월의 강수량은 각각 48.1mm, 60.2mm로 평년에 비해 3.3mm, 54.9mm 덜 내렸음
 - 지역별로 보면 서해안 지역은 4~6월 동안 대체로 평년에 비해 적절하고 고른 강우량을 보인 반면, 동해안 지역과 황해남도 지역은 강우의 시기별 편중이 심한 편임.
- 북부와 고원지역인 선봉, 삼지연, 청진, 중강, 혜산, 강계, 풍산 지역의 4월과 6월의 강우량이 평년에 비해 적게 내렸지만, 청천강 유역의 곡창지대인 신의주, 구성, 안주, 평양 지역은 비교적 적절한 강우량을 보임.
 - 청천강 유역은 작년에 비해 모내기 실적이 좋은 반면, 예성강 유역과 동해안의 금야강 유역은 작년에 비해 모내기 실적이 저조함.

□ 누적강수량, 4~6월

단위: mm

선봉	삼지연	청진	중강	혜산	강계	풍산
128.6 (210.1)	271.3 (337.4)	144.5 (179.1)	124.0 (223.3)	104.5 (218.9)	239.7 (281.9)	162.3 (248.2)
김책	수풍	장진	신의주	구성	희천	함흥
125.0 (175.1)	232.4 (227.1)	86.5 (272.4)	240.4 (242.0)	339.5 (273.2)	237.8 (262.4)	211.0 (223.3)
신포	안주	양덕	원산	평양	남포	장전
97.8 (203.5)	205.8 (217.2)	222.8 (241.9)	213.4 (291.3)	254.4 (220.0)	151.9 (180.6)	197.7 (313.7)
사리원	신계	용연	해주	개성	평강	
257.8 (214.4)	251.0 (257.7)	134.1 (201.4)	282.1 (249.6)	322.2 (286.8)	280.8 (266.8)	

* ()는 평년 누적강수량을 나타냄.

□ 북한 주요지역의 월평균기온 및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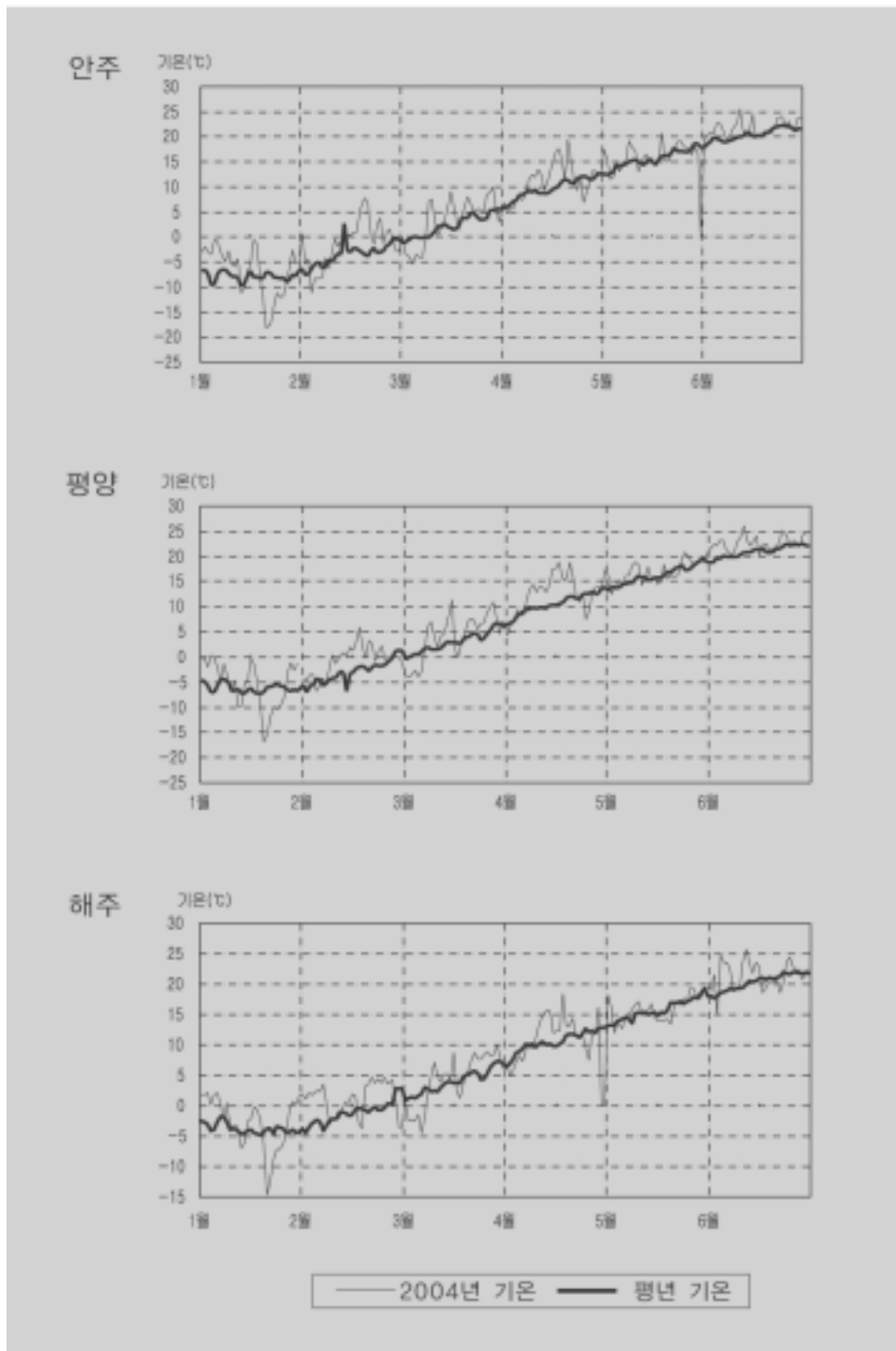
단위: °C(기온), mm(강수량)

구 분		안주	평양	해주	청진	함흥	원산
4월	기 온	11.2 (9.7)	12.3 (10.5)	11.4 (10.5)	8.1 (7.0)	12.2 (9.7)	12.8 (10.5)
	강수량	43.0 (37.3)	30.0 (53.4)	42.0 (57.4)	27.1 (36.4)	35.7 (54.2)	130.0 (56.6)
5월	기 온	16.0 (15.6)	16.9 (16.3)	16.0 (15.8)	12.6 (12.0)	16.8 (15.3)	17.3 (15.9)
	강수량	97.8 (71.3)	114.3 (68.9)	175.9 (73.8)	83.4 (42.0)	88.3 (57.6)	39.3 (84.7)
6월	기 온	21.6 (20.4)	22.5 (21.0)	21.8 (20.3)	18.6 (15.5)	21.6 (18.6)	21.4 (19.0)
	강수량	65.0 (108.6)	110.1 (97.7)	64.2 (118.4)	34.0 (100.7)	87.0 (111.5)	44.1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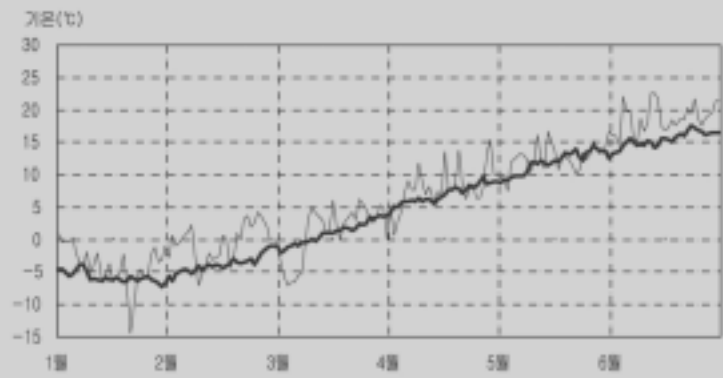
* ()는 평년 평균기온 및 강수량을 나타냄.

27개 기상관측지역의 평년 기후값 가운데 선봉, 청진, 중강, 혜산, 강계, 신의주, 함흥, 원산,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 등 13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73~1994년이며, 삼지연, 풍산, 수풍, 장진, 구성, 희천, 신포, 안주, 양덕, 남포, 장전, 신계, 용연, 평강 등 14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81~1994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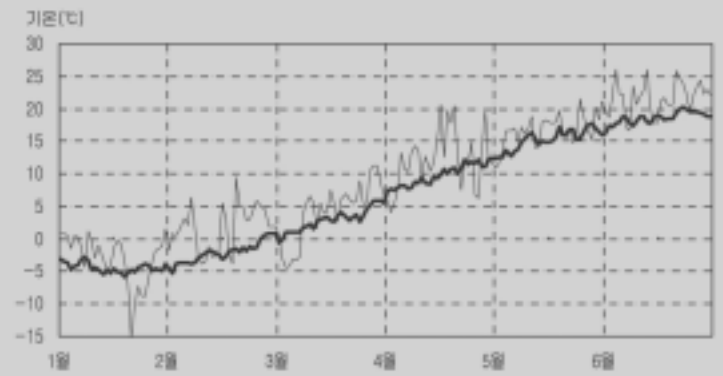
□ 월 평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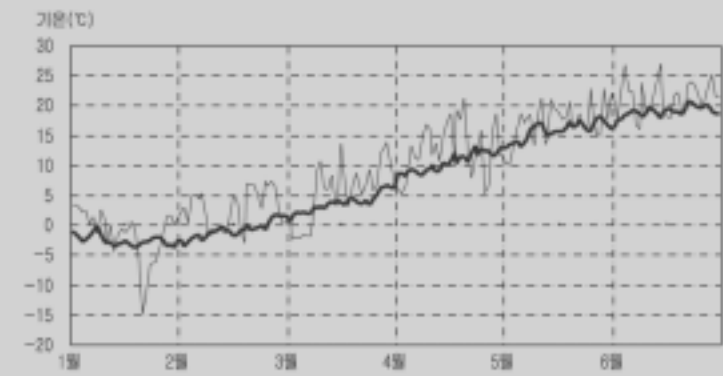
청진



함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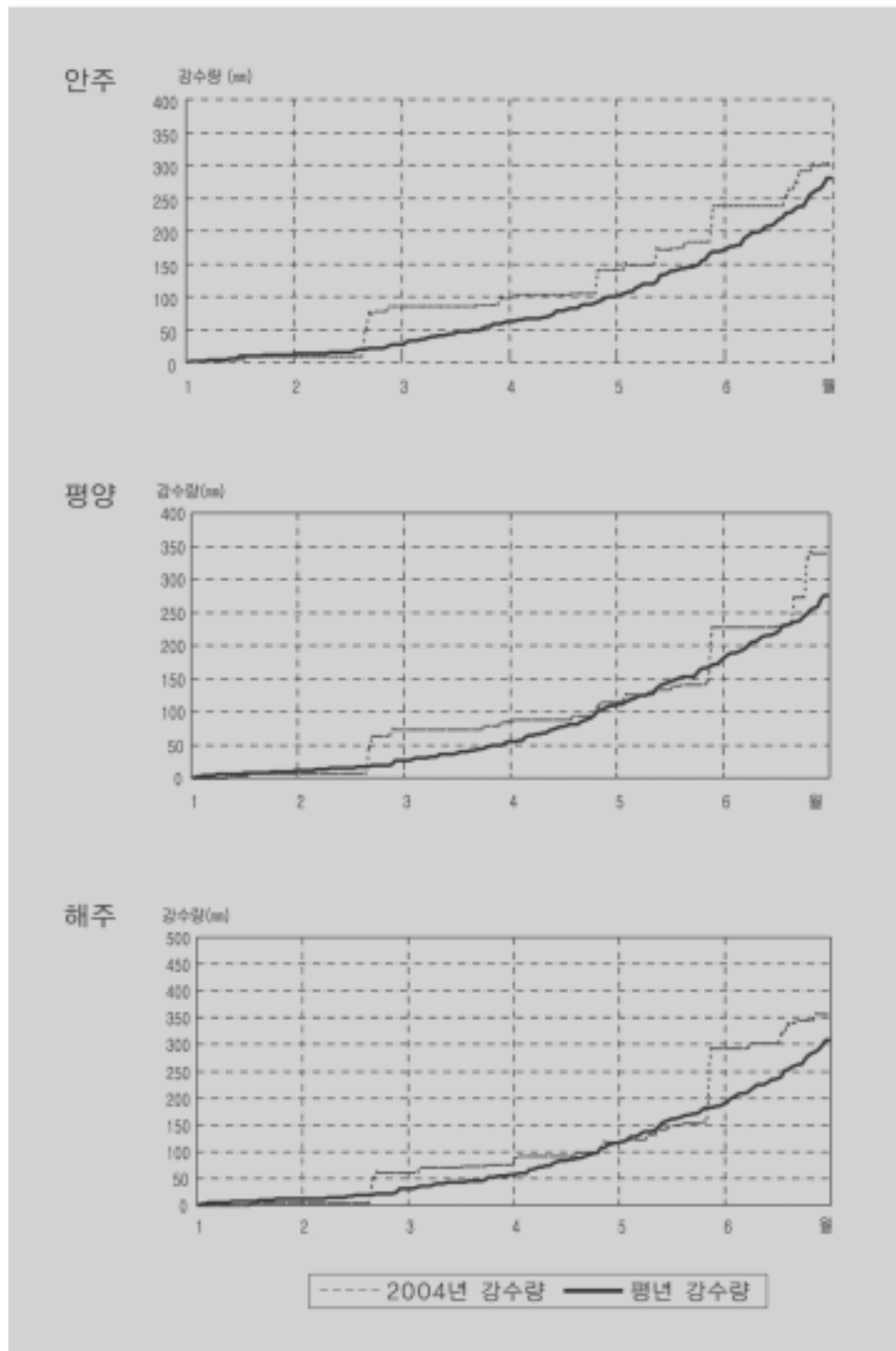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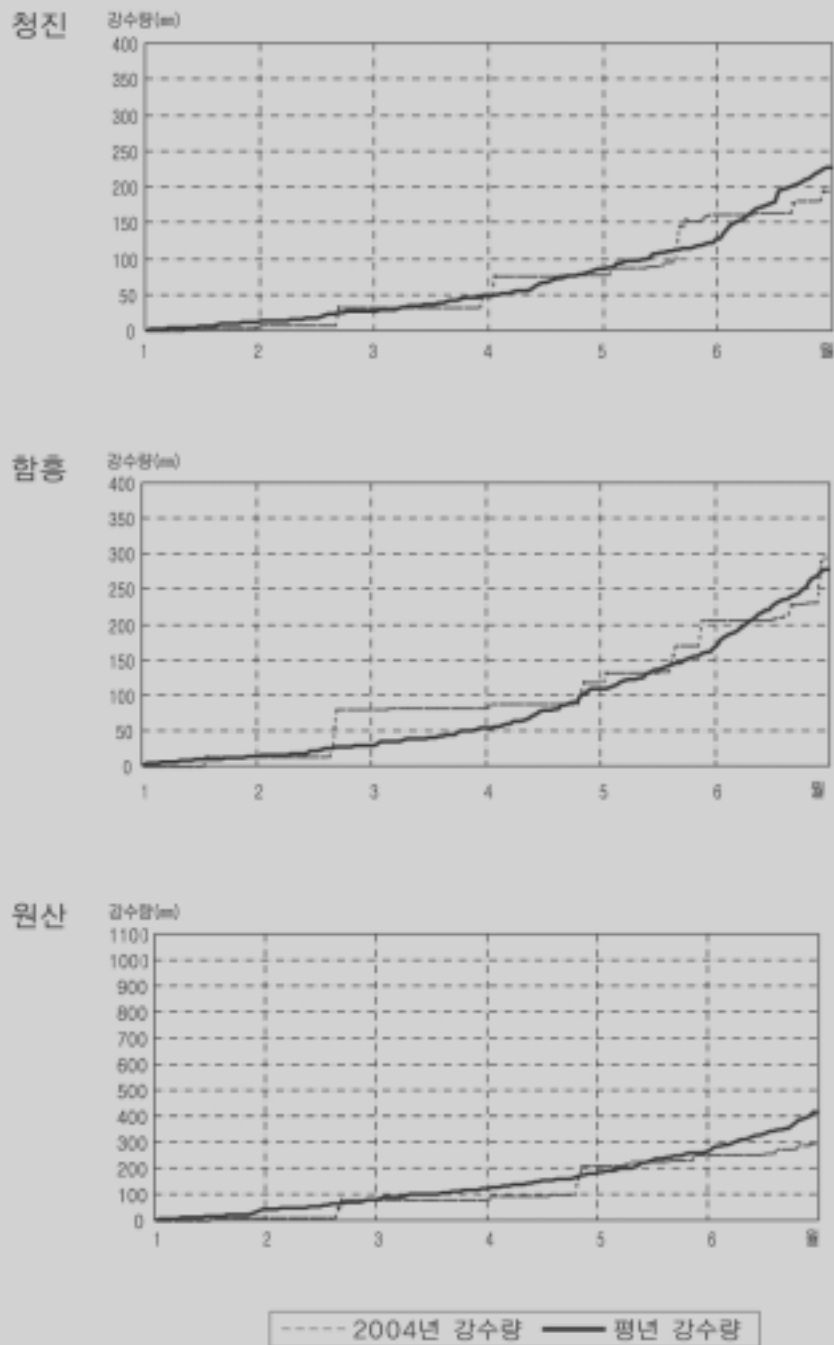
원산



—— 2004년 기온 ——— 평년 기온

□ 누적 강수량





M46-6-2 KREI 북한농업동향 제6권 제2호

찍 은 날	2004. 7.	펴낸날	2004. 7.
발 행 인	이 정 환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경희정보인쇄(주) (代) 2263-7534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